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학년도  
석사학위논문

제주도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신화적 성격

지도교수 : 김 현 선

경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현 수



# 제주도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신화적 성격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경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김 현 수

김 현 수의 석사학위논문 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2017년 12월

경기대학교 대학원

# 목 차

표 목차 .....	ii
논문개요 .....	iii
I. 서 론 .....	1
1. 연구 목적 .....	1
2. 선행 연구 정리 .....	3
3. 연구 방법론 .....	9
II.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자료 양상과 화소 분석 .....	11
1. 자료의 존재양상 .....	11
2. 중요 화소 분석 .....	21
III.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신화적 성격 .....	26
1. 일반신화적 특징 .....	26
2. 여신신화적 특징 .....	41
3. 거인신화적 특징 .....	54
IV.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의의 .....	66
V. 결론 .....	69
참고문헌 .....	71
부록 .....	74
Abstract .....	121

## 표 목 차

<표1>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자료 정리 .....	11
<표2> 『설문대할망』의 행적 정리 .....	22
<표3> 『설문대할망』 이야기와 『천지왕본풀이』의 특성 비교 .....	35
<표4> 설문대할망의 배설을 통한 지형 창조 .....	42
<표5> 설문대할망의 거구를 이용한 지형 창조 .....	54
<표6> 『설문대할망』 이야기와 외국의 거인신화 비교 .....	59

## 논문개요

『설문대할망』은 제주도민들에게 매우 친숙한 존재(이야기)이다. 지금도 제주도민에게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널리 전승되고 있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제주도의 지형지물과 연관된 내용의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는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원래 지니고 있던 위상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향유하던 집단은 세계가 운행되는 원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그 사유의 결과가 『설문대할망』 이야기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신격의 위상이 높고, 전승마저 널리 되고 있는 『설문대할망』이 제주도 무당신화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앞으로의 논문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에 따라 『설문대할망』의 신화적 성격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설문대할망』 이야기 자료를 조망하여 정리하고, 주요 신화소를 도출했다. 『설문대할망』 이야기 자료를 모아서, 자료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신화소의 항목을 정리하고, 이 신화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핌으로써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신화적 성격을 새롭게 보기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인류 문화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제주도 무당신화인 『천지왕본풀이』와 간략한 비교를 했다. 이를 통해 『설문대할망』 이야기와 『천지왕본풀이』의 신적 성격이 다름을 확인했다. 『설문대할망』 이야기와 『천지왕본풀이』의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차이점은 사제자의 유무이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사제자가 성과 속이 분리된 세상을 이어주는 매개자이지만, 『설문대할망』에서는 이러한 매개자가 필요 없음이 중요한 특징점이다. 이것으로 『설문대할망』 이야기와 『천지왕본풀이』의 시대적 차이를 살피고 두 신화가 서로 다른 갈래에 속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다.

세계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향유되었다고 생각되는 신화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특징을 확실히 드러냈다. 위대한 여신, 거인신적인 변모가 인류 문화 발달 단계에 따라 점점 사람과 비슷해져가고, 원래 가지고 있던 원초적인 힘을 잃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모가 세계의 보편적으로 나타

나는 현상임을 살피고, 이 시대의 거인신화, 여신신화의 핵심적인 특성을 도출해 내었다. 이 시대의 신격과 후대의 신격이 달라지는 현상을 신화 분석을 통해 드러냈다. 이런 신화가 인류의 문화사에서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이고, 이 시대가 거석문화를 향유했던 시대라고 상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거석문화가 한라산과 오름을 창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지형지물을 보면서 설문대할망의 신성함을 떠올리고, 숭앙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무당신화와는 다른 신화라는 것을 알았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일반민중에게 향유되던 일반신화이고 무당신화는 사제자를 통해 구연되는 신화이다. 이러한 현상이 인류 문화사적인 변동과 연관이 있음을 주목하였다.

# I. 서론

## 1. 연구목적

『설문대할망』의 자료는 제주도의 지형지물이 조성된 내력에 대해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제주도라는 섬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이야기로 구전신화가 존재함을 말해주는 구체적 증거이다. 이는 세계가 어떻게 이룩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설문대할망』 자료가 지니고 있는 신화적 위상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이런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제주도의 무당신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예외적으로 표선당의 본풀이에 『설문대할망』 이야기에 대한 본을 전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하면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무당신화에서는 두드러진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다.

제주도민에게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널리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제주도 무당신화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논문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에 따라 『설문대할망』의 신화적 성격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설문대할망』에 대한 기존 논의는 주로 『설문대할망』의 자료에 대한 소개나 거인신화, 여신신화에 대한 맥락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인물에 대한 특성에 초점이 맞춰져 연구가 진행되고, 위에서 언급했던 『설문대할망』 이야기와 무당신화와의 차이점, 그러한 차이점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밝히면 『설문대할망』이 기존에 논의되던 신화적 성격외의 다른 신화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인류의 문화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문에서는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이런 점에 주목해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고자 한다.

첫째,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자료를 조망하고, 자료의 성격을 논하려 한다. 『설문대할망』 이야기에 대한 최근 연구성과가 집적되었지만,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자료를 일관되게 다룬 것은 없다. 그렇게 함으로서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핵심사항을 모티브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설문대할망』 이야기 자료의 전반적 성격을 정립하고 그 이야기에 내재하는 이야기의 병렬적 구조를 분석하면서 심층적 의미를 조망하려고 하겠다. 그렇게 해서 『설문대할망』 이야기에 존재하는 병렬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신화적 성격을 새롭게 다루고자 한다. 『설문대할망』과 제주도의 무당신화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성격을 도출해내고, 이것이 가지는 의의를 찾으려 한다. 이러한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성격을 기존 연구에서 그 다음으로 이런 의의가 세계의 여신신화와 거인신화속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살피려한다. 또한,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역사적 지속과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정리

설문대할망이 학계에 최초로 소개되었던 것은 장주근을 통해서였다. 장주근<sup>1)</sup>은 설문대할망 설화 자료를 모으고 발표하였다. 그는 『설문대할망』을 신화라 보고, 그 중에서도 천지창조의 성격이 있는 신화라고 살폈다. 『설문대할망』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한국의 본토 거인설화들을 분석하면서, 거인설화가 회화화되면서 웃음거리의 소담으로 전락한 형상을 살폈다. 그는 이것이 거인설화가 문헌자료로 전승된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전승이 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또한 일본의 다이다라보오시나 오오비도야고로오와 같은 인접하는 인근나라의 거인설화와 『설문대할망』 이야기와의 연관성을 살폈다.

현용준은 설문대할망에 대한 자료를 채록하고 이를 『제주도전설』이란 책자로 발간하였다.<sup>2)</sup> 김영돈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였다.<sup>3)</sup> 또한 진성기는 『남국의 전설』, 『제주도 전설』등 과 같은 책자로 『설문대할망』의 자료조사에 힘썼다.<sup>4)</sup> 임석재는 『한국구전설화』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루방과 설문대할망」이라는 자료를 실었다.<sup>5)</sup> 또한 제주대에서 『국문학보』와 『백록어문』을 발간해 현지조사한 자료를 소개하는데, 이때 『설문대할망』에 대한 자료를 소개하기도 한다.<sup>6)</sup>

1)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_\_\_\_\_ 『한국문화사대계』 5,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67.

\_\_\_\_\_ 『풀어 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장주근저작집간행위원회, 『한국의 신화 풀어쓴 한국의 신화 -신화편』, 민속원, 2013.

2)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76.

3)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1, 한국정신문화어문연구실, 1980.

\_\_\_\_\_, 『한국구비문학대계』 9-2, 한국정신문화어문연구실, 1981

4) 진성기, 『남국의 전설』, 일지사, 1981.

\_\_\_\_\_, 『제주도전설』, 백록, 1992.

\_\_\_\_\_, 『신화와 전설』, 제주민속연구소, 2005.

5)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9, 평민사, 1992,

6)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11집,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92 『국문학보』, 14집,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97

\_\_\_\_\_, 『국문학보』, 18집,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11.

\_\_\_\_\_, 『국문학보』, 19집,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12,

『설문대할망』 설화에 대한 갈래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설문대할망』의 갈래에 대한 논의는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임동권<sup>7)</sup>은 설문대 할망 설화와 유사한 육지 설화를 살피고, 설문대할망이 육지의 것과 동형이었으리라 추정하였다. 육지에서는 거인 설화의 전승의 명맥이 활발하지 못했으나, 제주도에서는 거인설화가 전승되는 점을 증점적으로 다루었다. 『설문대할망』이 지닌 민담적 성격과 전설적 성격에 대해 살폈다. 이성준<sup>8)</sup>은 『설문대할망』이 신화, 전설, 민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며, 『설문대할망』이 오래된 설화임을 말하며, 신화, 전설, 민담적 요소로 자료를 분류하였다.

설문대할망의 외적 특징에 따라 『설문대할망』 설화를 거인설화로 분류하는 시각도 존재했다. 김인희는 거녀설화를 연구하면서 설문대할망 설화와 다른 설화와의 접점을 살피고, 거녀설화를 유형화하였다.<sup>9)</sup> 김영경은 거인설화를 과거에 신성성이 있는 설화였지만, 현재는 신성성을 상실하고 파편적으로 전승되어 전설, 민담의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고 했다. 거인설화의 주된 전승소를 신화소라고 언급하며, 외모중심형과 행위중심형으로 거인설화를 정리하였다. 또, 행위중심형에서 산천형성형, 대결형, 사냥형의 하위유형으로 구별하였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도 거인설화에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sup>10)</sup>

문영미는 설문대할망 설화가 지역 전설로써 갖는 전승 의의를 살폈다.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변이 양상에 대해 살피서, 설문대할망 유형담이 갖는 지역 전승 양상과 의의에 대해 논지를 전개하였다. 또한 설문대할망 설화가 문학에서 어떻게 변용되는지도 살폈다. 설문대할망 설화를 행위담과 증거담을 기준으로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분류하고, 10가지의 하위 분류를 행하였다. 또한 설문대할망 설화의 문학적 변용을 살폈다.<sup>11)</sup>

권태효 또한 거인설화를 주로 연구하였는데, 거인설화가 갖는 창조신화적인 본질에 중점을 두었다. 거인설화를 네 가지 층위로 구분하였다. 그럼으로써 거인설화를 통시적으로 살피고, 거인설화에 나타난 창조신화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였다.

7) 임동권, 「설문대할망 설화고」, 『제주도』 17, 1967.

8) 이성준, 「설문대할망설화연구」, 『국문학보』, 10, 제주대, 1989.

9) 김인희, 「거녀설화의 구조와 기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10) 김영경, 「거인형 설화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11) 문영미, 「설문대할망 설화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거인설화의 변이양상 및 파생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거인설화의 회화화과정과 변이과정, 역사적 전개에 따른 거인설화의 변이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때 권태효는 거인설화의 일환으로 설문대할망을 살펴보았다.<sup>12)</sup> 또한 여성거인이 어떤 지역적인 분포를 보이는지를 살피고, 육지와 바다의 여성거인이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여성거인설화의 전승과정과 여성거인설화와 남성거인설화의 차이에 대해 주목하였다.<sup>13)</sup> 또, 우주창조형 거인신이 지형창조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sup>14)</sup> 거인설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산이동설화를 거인설화적인 관점에서 보고 연구하였다. 설문대할망의 배뇨 또한 산 이동의 설화에 나타나는 홍수 모티브로 보았다.<sup>15)</sup>

또한 『설문대할망』은 여신신화의 일환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강진옥은 설문대할망을 마고할미의 일환으로 파악하였다. 거인의 모습으로 산천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축소된 우주창조작업의 주역이었던 창조여신의 흔적을 지닌 존재이고, 생산신적인 존재라고 언급했다. 여신이 굴절되어 변모해왔음을 논했다.<sup>16)</sup>

조현설은 『마고할미 신화연구』에서 설문대할망에 대해 다루었다. 설문대할망, 개양할미, 안가닥할미, 노고할미, 서구할미등을 마고할미계에 포섭되는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여신으로 간주하고, 마고할미의 정체와 역사적인 변이양상을 추적하였다.<sup>17)</sup>

「마고할미·개양할미·설문대할망」에서는 설문대할망을 창조신화 관점으로 보고, 개양할미 이야기와 연관성이 높다고 말했다. 설문대할망의 변이양상을 살피면서 창조여신의 속화와 성화를 함께 볼 수 있는 경우라고 하였다.<sup>18)</sup>

12) 권태효, 『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2002.

\_\_\_\_\_, 「거인설화의 전승양상과 변이유형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이 논문은 ‘권태효, 『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2002.’ 로 출간되었다.

13)\_\_\_\_\_, 「여성거인설화의 자료 존재양상과 성격」, 『탐라문화』 37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0.

14)\_\_\_\_\_, 「지형창조 거인설화의 성격과 본질」, 『탐라문화』 46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4.

15)\_\_\_\_\_, 「거인설화적 관점에서 본 산이동설화의 성격과 변이」, 『구비문학연구』, 4권 4호, 1997.

16) 강진옥, 「'마고할미'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25호, 1993.

17) 조현설, 『마고할미 신화 연구』, 민속원, 2013.

박종성은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위대한 여신이었다가 속화되는 변이양상을 살폈다. 이러한 속화가 제주도만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의 여러 신화와의 비교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임을 확인하고, 설문대할망이 여신의 보편성을 띄고 있음을 보였다.<sup>19)</sup>

전영준은 제주신화의 특성을 살피면서 설문대할망을 연구하였다. 설문대할망을 통해 제주 신화 및 설화에 전승되는 여성성을 확인하고 시대적인 변모과정을 살폈다. 제주신화에서 보이는 여성성은 여성영웅으로써 천지와 국토를 창조하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주체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sup>20)</sup>

허남춘은 거인신화와 여신신화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설문대할망』을 살폈다. 설문대할망이 창세신화임을 얘기하며, 우리나라 주변 신화와 비교를 하여 여신 거인신화의 정체성을 밝혔다. 중국 여와와 무리우자 여신과 비교를 해서, 설문대할망의 창조여신임을 밝혔다.<sup>21)</sup> 또한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이동되는 사회적인 변화양상에 따라 여성신에서 남성신으로 주권이 넘어가면서, 여성신의 변이양상을 살폈다. 노고, 할미, 할미, 할망과 같은 여신을 칭하는 호칭을 주로 살피며, 그에 따라 여신신격의 위상이 변동됨을 보였다.<sup>22)</sup> 또한 창세신이 역사적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모함을 살폈다. 여성신이 예전과 같은 창세신이 아닌 남성의 배우자나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남성신의 부수적인 존재가 됨을 살폈다. 거인신이 점점 몸집이 줄어들어 거인이 되고 인간크기로 줄어든다고 하였다.<sup>23)</sup>

윤혜신은 어머니 여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어머니 신화를 연구하면서, 신화적 주체가 어머니신을 이해한 맥락을 살펴보려 했다. 자연물과 어머니 이미지가 결합한 양상과 거인의 이미지와 어머니 이미지가 결합한 양상을

18) 조현설, 「마고할미·개양할미 · 설문대할망」, 『민족문화사연구』 41호, 민족문화학회 · 민족문화사 연구소, 2009.

19) 박종성, 「비교신화의 관점에서 본 설문대할망」, 『구비문학연구』 31호, 2010.

20) 전영준, 「탐라신화에 보이는 여성성의 역사문화적 의미」, 『동국사학』 61권,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6.

21) 허남춘, 「설문대할망의 창세신적 특성 -주변민족 거인신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설문대할망과 제주 신화』, 민속원, 2014.

22) 허남춘, 「할망, 그리고 성모·노고·할미」, 『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 민속원, 2014.

23)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의 원시 고대 중세적 특성과 변모」, 『탐라문화』 38,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1.

자료를 통해 도출해내었다.<sup>24)</sup>

『설문대할망』은 위와 같이 주로 여신신화와 거인신화 두가지 관점에서 논의되었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가 되기도 하였다.

김현선은 『설문대할망』과 『천지왕본풀이』를 비교하여 제주도의 여신과 남신을 비교하였다. 여신에서 남신으로의 변화양상을 살펴면서, 신화와 서사시의 관계를 고찰하였다.<sup>25)</sup>

김동윤은 현대소설에서 나타난 설문대할망 설화 수용을 살펴보았다. 거녀설화인면이 주로 현대소설에서 수용이 된다고 하였다.<sup>26)</sup> 이부희는 구비설화에 나타난 식인 신화소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설문대할망이 죽에 빠져죽고, 이것을 모르고 죽을 먹는 오백장군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sup>27)</sup>

지금까지 살펴 본 결과, 『설문대할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되었다. 원래는 위대한 여신이었으나 시대가 변모하면서 여신이 속화하여 결국은 희화화되어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맥락과 한국의 전반적인 거인신화를 연구하면서, 설문대할망의 특성에 대해 논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설문대할망』이야기가 향유되던 시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설문대할망』이야기는 전하고 있는 신화들과 다른 변별적인 자질을 지닌다. 일반민중에게 신으로써 숭앙받던 존재가 설문대할망이고, 이러한 특성이 『설문대할망』이야기의 변별적 자질을 만든다.

조동일·김현선<sup>28)</sup>은 일반신화란 개념을 새롭게 밝혔다. 조동일·김현선은 이 논문에서 문명을 4가지 층위로 나누어 통시적인 관점에서 살폈다. 신화의 시대가 있고, 종교의 시대가 그 뒤를 따르며, 마지막으로 탈 신화·종교·과학의 시대가 있다고 했다. 신화의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 일반신화와 무당신화인데, 일반신화는 일

24) 윤혜신, 「어머니신을 낳은 신화적 주체의 시선과 표현 방식」, 『구비문학연구』, 37권, 한국구비문학학회, 2013.

25) 김현선, 「제주도의 신화와 서사시 연구」, 『탐라문화』 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원, 2008

26) 김동윤, 「현대소설의 설문대할망설화 수용양상」, 『탐라문화』, 37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0.

27) 이부희, 「구비설화에 나타난 식인 모티브의 양상과 의미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7.

28) 조동일·김현선, 「세계신화의 지사학을 위한 제주도의 기여」, 『신화의 보물섬 제주, 제주 신화의 성격과 세계적 위상』,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 연구센터, 2016.

반 민중에게 통용되던 것이고, 무당신화는 신화가 사제자라는 집단이 출현하며 생성된 신화이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일반 신화에 해당된다.

이 견해는 타당하다. 이 견해를 받아들여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신화적 성격을 새롭게 조명하려 한다. 또한 『설문대할망』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설문대할망』 이야기와 비슷한 다른 나라의 신화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류가 『설문대할망』 이야기와 같은 신화를 향유하던 것이 보편적인 현상임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 3. 연구방법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신화적 성격을 새롭게 논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려 한다.

첫째, 『설문대할망』 이야기 자료를 조망하여 정리하고, 주요 신화소를 도출한다. 『설문대할망』 이야기 자료를 모아서, 자료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신화소의 항목을 정리한다. 이 신화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피고, 이를 향후의 분석 도구로 삼으려 한다. 이를 앞으로는 핵심화소라고 칭하려고 한다. 자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첫 번째 작업에서 도출한 신화소를 토대로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려 한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과편적으로 전하고 있어 대부분 병렬적 구조주의 방법을 선택해 분석을 하겠지만, 『설문대할망』 이야기중에서 순차적 구조주의 방법이 적용이 가능한 것이 있다. 자료에 따라 적절한 구조주의 방법을 선택해서 분석하려 한다.

셋째,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 『설문대할망』 이야기 자료를 인류의 문화사적인 관점에서 조명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 비교신화적 방법을 사용하려 한다. 앞서 살펴본 자료를 세계의 다른 설화와 비교해서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특성을 살피려 한다. 두 지역의 설화의 내용을 정리하고, 서사 분석을 한 뒤 공통된 특성을 도출하려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에서 조명한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 나타난 문화사적인 특성이 다른 신화에서도 나타남을 살펴서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향유되던 시대가 있었음을 밝히려 한다.

본고에서는 『설문대할망』 이야기로 칭하려 한다. 그 이유는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갈래를 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전설, 신화, 민담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설문대할망』 이야기라고 통칭하기로 한다. 또한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전승되는 방식이 중요한데,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주로 구전으로 전승하므로, 이러한 특색을 살려 『설문대할망』 이야기라고 칭하려 한다.

한편, 현재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설문대할망』 이야기에는 설문대할망에 대한

다양한 호칭이 등장한다. 자료에 따라 선문대할망, 설문대할망, 설명두할망, 쉼땀  
뒤할망 등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설문대할망이라는 명칭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설문대할망이 가장 일반적으로 불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 Ⅱ.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자료 양상과 화소 분석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제주도에서 오랜 세월동안 전해 내려온 이야기이다. 설문대할망의 몸집은 거구로 묘사되어 있다. 거구인 설문대할망이 제주도의 지형이나 지물을 만든 이야기가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주 내용을 이룬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구전자료가 중심이 되고, 문헌자료가 일부 존재한다. 이 장에서는 먼저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얼마나,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자료의 존재 양상을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화소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 1.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자료 존재 양상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자료를 모으고, 이를 표로 정리하였다. 동일한 자료이지만, 다른 저작물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 저작집이 먼저 출간된 것을 표에 넣었다.

<표1>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자료 정리

연번	명칭	채록연도	핵심 화소	지역	제보자	자료집	비고
1	오백장군	1956. 11	오백형제	한경면 고산리	강민원	진성기 『(제주도) 전설』 (1991)	
2	설문대할망	1958. 8	오백형제, 한라산, 오름만들기 싫েম 바위 구멍, 다리놓기 실패, 물장오리	안덕면 화순리	문인길	진성기 『남국의 전설』 (1981)	
3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옥황상제 말젓말,		진영삼	진성기, 『신화의 전설』	채록연대 와

			하늘과 땅 분리, 빨래하기, 등경석, 배설하여 강과 소섬만들기, 오름만들기, 설문대하르방과 부부의 인연 맺기, 하문으로 고기 잡기, 배설로 오름만들기, 오백아들, 장군바위가 왜적 막기, 다리놓기 실패, 물장오리			(2001)	지역이 확실하지 않음
4	선문데할망 1 <sup>29)</sup>	1960년대 이전에 채록한 것으로 보임	섬섬의 구멍, 거구 흔적	서귀포	김씨	장주근, 『한국의 신화』, (1961)	채록연대, 자료명이 확실하지 않음
5	선문데할망 2	1960년대 이전에 채록한 것으로 보임	다리 놓기 실패	한림읍	이씨	장주근, 『한국의 신화』, (1961)	채록연대, 자료명이 확실하지 않음
6	선문데할망 3	1960년대 이전에 채록한 것으로 보임	빨래하기	구좌면 송당리	고삼림	장주근, 『한국의 신화』, (1961)	채록연대, 자료명이 확실하지 않음
7	선문데할망 4	1960년대 이전에 채록한 것으로 보임	술의 흔적	구좌면 송당리	고삼림	장주근, 『한국의 신화』, (1961)	채록연대, 자료명이 확실하지 않음
8	선문데할망 5	1960년대 이전에 채록한 것으로 보임	빨래하기	제주시	고씨	장주근, 『한국의 신화』, (1961)	채록연대, 자료명이 확실하지 않음

9	선문대할망 6	1960년대 이전에 채록한 것으로 보임	오름 만들기	안덕면 상창리	이씨	장주근, 『한국의 신화』, (1961)	채록연대, 자료명이 확실하지 않음
10	선문대할망7	1960년대 이전에 채록한 것으로 보임	오름 만들기			장주근, 『한국의 신화』, (1961)	채록연대, 자료명, 구연자가 확실하지 않음
11	선문대할망8	1960년대 이전에 채록한 것으로 보임	배설하여 산 만들기	중문면 강정리	이갑순	장주근, 『한국의 신화』, (1961)	채록연대, 자료명이 확실하지 않음
12	선문대할망 9	1960년대 이전에 채록한 것으로 보임	백사장 만들기	표선면	고씨	장주근, 『한국의 신화』, (1961)	채록연대, 자료명이 확실하지 않음
13	선문대할망 10	1960년대 이전에 채록한 것으로 보임	다리 놓기 실패, 맹수가 없는 이유	중문면 강정리	이갑순	장주근, 『한국의 신화』, (1961)	채록연대, 자료명이 확실하지 않음
14	선문대할망 11	1960년대 이전에 채록한 것으로 보임	물장오리	구좌면 송당리	고삼림	장주근, 『한국의 신화』, (1961)	채록연대, 자료명이 확실하지 않음
15	선문대할망 12	1960년대 이전에 채록한 것으로 보임	오백형제	한경면 판포리	변인선	장주근, 『한국의 신화』, (1961)	채록연대, 자료명이 확실하지 않음
16	설문대 할망	1971. 7.	빨래하기, 다리놓기 실패, 물장오리, 쇠섬 만들기, 음문으로 사냥하기.	제주시 이도2동	고홍규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9(1992)	
17	설문대하루방과 설문대할망	1972. 3	설문대하루방과 부부 인연 맺기. 하루방과	성산 신평	오문복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9(1992)	

			하문으로 사냥하기.				
18	선문대할망	1975. 2	거구	구좌면	김학기 , 안용인	현용준 『제주도전설』 (1976)	
19	선문대할망		빨래하기	제주시 노형리	현용준	현용준 『제주도전설』 (1976)	채록연대 가 확실치 않음.
20	선문대할망		감투	제주시 노형리	현용준	현용준 『제주도전설』 (1976)	채록연대 가 확실치 않음.
21	선문대할망		오름만들기	제주시 노형리	현용준	현용준 『제주도전설』 (1976)	채록연대 가 확실치 않음.
22	선문대할망		다리 놓기 실패	제주시 노형리	현용준	현용준 『제주도전설』 (1976)	채록연대 가 확실치 않음.
23	선문대할망		물장오리	제주시 노형리	현용준	현용준 『제주도전설』 (1976)	채록연대 가 확실치 않음.
24	선문대할망	1975.2	빨래하기	성산면 시흥리.	양기빈	현용준 『제주도전설』 (1976)	
25	선문대할망	1974. 10. 19	빨래하기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 , 한공익	현용준 『제주도전설』 (1976)	
26	선문대할망	1974. 10. 19	오름만들기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 , 한공익	현용준 『제주도전설』 (1976)	
272	선문대할망	1974. 10. 19	산 모양 만들기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 , 한공익	현용준 『제주도전설』 (1976)	
28	선문대할망	1974. 10. 19	거구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 , 한공익	현용준 『제주도전설』 (1976)	
29	선문대할망	1974. 10. 19	거구, 등경불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 , 한공익	현용준 『제주도전설』 (1976)	
30	선문대할망	1974. 10. 19	소섬만들기, 배노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 ,	현용준 『제주도전설』	

					한공익	(1976)	
31	선문대할망	1974. 10. 19	배노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 , 한공익	현용준 『제주도전설』 (1976)	
32	선문대할망	1974. 10. 19	다리놓기 실패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 , 한공익	현용준 『제주도전설』(1976)	
33	선문대할망	1974. 10. 19	이름이 여러개이다.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 , 한공익	현용준 『제주도전설』 (1976)	
34	선문대할망	1975. 3.	거구	안덕면 화순리	양성필	현용준 『제주도전설』(1976)	
35	선문대할망	1975. 3.	거구	표선면 표선리	홍성흡	현용준 『제주도전설』 (1976)	
36	선문대할망	1975. 3.	거구(속옷만 들기)	표선면 표선리	홍성흡	현용준 『제주도전설』 (1976)	
37	선문대할망	1975. 3.	이름이 여러 개다.	표선면 표선리	홍성흡	현용준 『제주도전설』 (1976)	
38	선문대할망	1975. 12.	술의 흔적	한경면 고산리	이자영	현용준 『제주도전설』 (1976)	
39	설문대할망	1979. 4.	다리놓기 실패, 족은장오리, 거구, 하문에 각록 숨기기, 배노로 내 만들기.	서김녕 리 용두동	안용인	『구비문학대계』 9-1.(1980)	
40	설문대할망	1980. 11.	빨래하기, 오름만들기, 다리 놓기 실패, 선문대하르 방과 읍문으로 사냥하기.	오라동 동카름.	송기조	『구비문학대계』 9-2.(1981)	
41	선문대할망	1983. 2	다리놓기 실패, 산방산 만들기.	애월읍 고성리	김병수	金榮敦·玄容駿· 玄吉彦 『濟州說話集成(1) 』(1985)	
42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1983.3	다리놓기 실패,	성산읍 신평리	오문복	金榮敦·玄容駿· 玄吉彦	



			설문대할르 망과 하문으로 물고기 잡기.			『濟州說話集成(1)』(1985)	
43	전문대할망 (I)	1985 이전에 채록되었 을 것으로 보임.	빨래하기	남제주 군 성산을 시흥리	양기빈	제주도 문화공보담당관실 , 『濟州道傳說誌』 (1985).	
44	전문대할망 (II)	1985 이전에 채록되었 을 것으로 보임.	물장오리, 거구	제주시 이도 2동	김선우	제주도 문화공보담당관실 , 『濟州道傳說誌』 (1985).	
45	전문대할망 (III)	1985 이전에 채록되었 을 것으로 보임.	거구, 배개.	북제주 군 구좌읍 서김녕 리,	안용인	제주도 문화공보담당관실 , 『濟州道傳說誌』 (1985).	
46	전문대할망 (IV)	1985 이전에 채록되었 을 것으로 보임.	이름이 여러 개다. 빨래하기	남제주 군 성산을 고성리	김석보 , 한공익	제주도 문화공보담당관실 , 『濟州道傳說誌』 (1985).	
47	전문대할망 (IV)	1985 이전에 채록되었 을 것으로 보임.	오름 만들기	남제주 군 성산을 고성리	김석보 , 한공익	제주도 문화공보담당관실 , 『濟州道傳說誌』 (1985).	
48	전문대할망 (IV)	1985 이전에 채록되었 을 것으로 보임.	등경돌, 소섬 만들기, 바다 만들기, 배노	남제주 군 성산을 고성리	김석보 , 한공익	제주도 문화공보담당관실 , 『濟州道傳說誌』 (1985).	
49	설문대할망		거구, 물장오리, 빨래하기, 등경돌, 오름만들기, 다리놓기			제주도 문화예술과, 『제주의 민속 III-구비전승』, (1995).	자료명과 제보자, 채록지가 확실하지 않음.



50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1987년 이전에 채록되었 을 것으로 보임	실패 다리놓기 실패, 빨래하기, 오백장군, 설문대하르 방과 하문으로 바다고기 잡기.	신흥리	오문복	오성찬, 『제주의 마을시리즈』, 5(1987)	
514	설문대할망	1988. 11. 16 오후 2시	다리놓기 실패, 나막신자국, 산신제	조천읍 조천리	김수 동	이성준, 「설문대할망 설화연구」, 『국문학보』, 10, 1990.	
52	설망도 할망 이야기	1992년 이전에 채록한 것으로 보임.	다리 놓기, 오름만들기	남제주 군 남원읍 의귀리.	오봉남	『국문학보』 11집	
53	설문대할망	1992. 7.	옷감 부족, 오름 만들기, 물장오리,	북제주 군 조천읍 선흘 1리	부의함	『백록어문』 10집	
54	설문대 할망	1994. 7.	다리 놓기 실패, 오름만들기.	한동리 상동 1114번 지	김차욱	『백록어문』 11집	
55	설문대할망	1997년 이전에 채록한 것으로 보임.	다리 놓기 실패, 오름만들기	하도리	고만선	『국문학보』 14집	
569	세명주할망	2004.	다리 놓기 실패, 솔 놓던 자리, 오름만들기	구좌읍 송당리,	허순화	김순자, 「'선문대할망'과 그 別稱」(2010)	
57	설문대할망	2005. 7	다리 놓기 실패	신흥1리 마을회 관	유혜옥	『백록어문』 22집	
58	설문대할망 2	2005. 7	한라산·오름 만들기 속옷 만들기		김갑생	『백록어문』 22집	

59	설문대 할망	2005. 7	오백장군, 다리 놓기 실패, 물장오리.		김만권	『백록어문』 22집	
60	설문대할망	2011년 이전에 채록한 것으로 보임.	오름만들기.	한림읍 금악리.	양경옥	『국문학보』 18집	
61	설문대할망	2011년 이전에 채록한 것으로 보임.	물장오리, 거구.	한림읍 금악리	양일화	『국문학보』 18집	
62	설문대할망	2012년 이전에 채록한 것으로 보임.	치마로 오름만들기, 물장오리.	도련 1동	양병생 , 현술생	『국문학보』 19집	
63	설문대할망	2012년 이전에 채록한 것으로 보임.	족두리, 바둑판의 흔적.	도련 1동	양상수 , 고중휴	『국문학보』 19집	
64	설문대할망 설화	2013년 이전에 채록한 것으로 보임.	다리놓기 실패, 오름만들기	와흘리	임완송	『국문학보』 20집	
65	설문대할망 설화	2014년 이전에 채록한 것으로 보임.	배노로 물 만들기	신엄리	김만봉	『국문학보』 21집	
66	雪漫頭姑의 傳說		다리놓기, 거구, 지형만들기			김두봉 『濟州島實記』(19 36)	제보자를 알기 어려움.

위의 표는 『설문대할망』 이야기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채록 연도에 따라서 채

29) 장주근은 『한국의 신화』에서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자료명을 붙이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앞으로의 논지를 전개할 때의 편리함을 위해 『한국의 신화』에 수록된 자료에 임의로 자료명을 붙인다. 장주근은 『한국의 신화』에서 ‘선문대할망’이라는 이름을 써서 설문대할망을 말하고 있기에 선문대할망이라고 자료명을 붙인다.

록연도가 이른 것은 앞쪽에 배치하였다. 각 자료의 핵심화소를 추론하여 핵심화소라는 말로 정리하였다.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전승방식에 차이가 있어 구전으로도 전승되고 문헌으로도 전승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하지만 구전으로 전승되는 자료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1에서 3가지 정도의 화소를 중심으로 단형서사의 형태로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설문대할망을 명명하는 명칭 또한 설명뒤, 설망두, 세명주, 설명두, 선문대 등으로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특징으로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전승되는 양상의 특징과 전승주체들이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유기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있다. 단형의 서사가 대부분이며, 이야기는 1에서 3가지 정도의 화소로 이루어진 구성이 대부분이다. 또한 고품의 이야기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예를 들어 연번 58번 김갑생 제보자가 구연한 「설문대할망 2」와 같은 자료는 핵심화소가 ‘한라산·오름 만들기’와 ‘속옷 만들기’이다. ‘속옷 만들기’는 다른 자료에서는 일반 민중이 설문대할망에게 다리를 놓아주기를 청하면서 그 대가로 속옷을 만들어 줄 것을 제시한다. ‘다리 놓기’ 화소에 ‘속옷 만들기’의 화소가 원래대로라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김갑생 제보자의 「설문대할망 2」에서는 ‘다리 놓기’ 화소가 등장하지 않고 ‘속옷 만들기’가 독자적으로 드러나 있다. ‘속옷 만들기’는 단순히 설문대할망의 거구를 묘사하는 것 정도의 의미로 변질되어 있다. 이는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오랜 세월을 거쳐 전승되면서 화소가 파편화되어 전승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서로 연관성이 없는 화소가 구연자의 흥미에 따라 설문대할망이라는 매개항에 의해 결합하고 해체되며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문헌자료와 구전자료로 전승되고 있다. 하지만 『설문대할망』 이야기 자료 중 문헌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구전자료에 비하면 매우 작다. 이는 문자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전하고 향유함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대할망』 이야기 자료에서 설문대할망의 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 화소는 설문대할망이 지형 지물을 만드는 이야기이다.

또는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 나오는 설문대할망의 행적이 제주도의 지형과 지물에 흔적을 남기거나, 만든 결과로 귀결되는 이야기가 많다. 오백형제, 옥황상제 말쑤 딸, 설문대하르방과 연 맺기, 이름이 여러개인 것을 빼면 모두 지형과 지물을 만든 이야기 내용의 화소이다. 이것은 설문대할망의 신격이 원래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설문대할망은 한라산을 만들고, 제주도를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형성한 신이다.

## 2.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중요 화소 분석

여러 자료에서 핵심화소가 간추려진다.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 나오는 핵심화소는 크게 다음과 같다. 설문대할망의 대표적인 행위는 지형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때 설문대할망이 거구를 이용해서 지형을 형성한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핵심화소는 한라산 · 오름 만들기이다.

한라산 · 오름 만들기는 『설문대할망』 설문대할망이 거구를 이용해서 제주도의 대표적인 지형인 한라산과 오름을 옮기는 내용의 화소인데, 이때 설문대할망의 거구가 문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설문대할망의 거구를 이용하는 창조는 더욱 각별하게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는 화소이다.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창세신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이 이 자료를 통해 드러난다.

배설하여 강 · 소섬 · 오름 · 물 만들기 화소도 『설문대할망』이 예사 이야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설문대할망이 지형을 배설해서 만든다는 것은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향유되던 시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거인이 지형을 먹고 배설한다는 것은 신화시대의 사고의 산물이다.

쇳섬 바위 구멍, 등경석, 솔의 흔적, 빨래하던 지형지물, 물장오리, 빨래하기와 같은 화소는 설문대할망이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끔한다. 이는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전승하는 전승주체가 일반민중임을 알게해준다. 설문대할망이 거구로 인해 벌어지는 일은 지형, 지물에 흔적이 남겨서 일반민중에게 화자되도록 일정한 영향을 주고, 일반민중이 행하는 일을 설문대할망이 행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일반민중 또한 『설문대할망』 이야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대하르방과 부부의 연 맺기, 설문대하르방과 사냥하기의 화소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점은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 설문대하르방이라는 인물이 등장했다는 점이다. 설문대하르방은 확실히 어떤 인물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설문대할망과 같은 거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확인하다. 설문대하르방은 설문대할망과 대우를 이루는 남성거인이다. 이 이야기는 주로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의 거구에 대한 함의가 담겨 있다.

오백장군은 『설문대할망』 이야기에 속하지만, 설문대할망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내용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오백장군의 행위가 주축이 되는 이야기이다. 설문대할망의 생산성을 볼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백장군화소를 지니고 있는 이야기에서 설문대할망이 하는 행위의 대부분은 오백장군을 먹이기 위한 행동이다. 이는 설문대할망이 주체적으로 지형지물을 만들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설문대할망의 신성성이 약화되고 중심인물에서 주변인물로의 이동양상을 볼 수 있다.

각 화소들은 설문대할망의 여신적인 면모가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거인신적인 면모가 드러나기도 한다. 또 일반신화적인 면모가 드러나기도 한다. 단일한 면모가 강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복합적인 면모가 보인다.

자료가 채록된 연도의 선후에 따라 순차적으로 표를 작성하였으나, 앞에서 다룬 표는 설문대할망의 자료가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힘들다. 따라서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기준을 세워 정리를 하고자 한다. 밑의 표는 설문대할망의 행적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다.

<표 2> 『설문대할망』의 행적 정리

핵심화소		세부행위	
① 창조	창조 성공	지형 창조	천지분리
			배뇨 · 배설로 섬 만들기
			배뇨로 바닷물 · 샘 만들기
			한라산 만들기
			오름 만들기
	지명 남기기		
창조 실패	지형 창조	다리 놓기	
② 행적	거구		빨래하기
			사냥하기
			술 덕 모양 바위
			감투, 족두리, 바둑판 모양 바위
	죽음/ 당신좌정		물장오리에 빠져 죽기

		당신으로 좌정
		오백장군

표의 원편은 설문대할망의 핵심서사이다. ① 창조는 창조가 성공하는 경우와 실패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창조는 천지분리와 지형 유래에 집중된다. 설문대할망은 거구를 지니고 있고, 이 거구를 이용해서 제주도의 지형을 창조한다. 이때 설문대할망의 창조는 여신적인 면모와 거인신적인 면모가 함께 일어난다. 또한 일반신화적인 면모도 함께 나타난다.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원래 성격을 가장 잘 갖고 있는 향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항은 ② 거구 흔적에 관한 것이다. 설문대할망이 창조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설문대할망이 거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도 설문대할망의 흔적이 남겨질 수밖에 없는데, ② 거구 흔적은 설문대할망이 움직인 결과로 생긴 흔적들이다. 이 항은 지형전설의 성격을 가장 많이 띤다. 이때 설문대할망은 여신의 면모를 보이기보다는 거인의 면모를 많이 보이며, 인간과 다르지 않는 일상을 산다.

①창조와 ②거구흔적은 모두 설문대할망의 몸이 거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설문대할망의 거구라는 것이 특별하고, 각별한 점임을 알 수 있다. 거인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흔적을 남기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양상이다. 널리 알려져 있는 중국 『반고』 신화와 같은 경우, 하늘과 땅을 분리할 만큼 몸집이 매우 큰 거구로 묘사되어 있다. 일본의 『다이다라봇치』 또한 후지산을 만들고, 발을 구르면 호수가 생기는 등, 거구의 모습이 두드러진다. 또한 북유럽의 『이미르(Yimир)』 신화도 이미르의 사체로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 만큼, 이미르의 몸이 장대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거인신이 우주를 창조하고, 구성하는 바를 만들어낸 것은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독자적인 특성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특성이다. 이 거인신화는 창조한 내력을 설명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창세와 세상의 조형을 이해하려는 인류의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 이때는 거인신들이 창조한 세상과 일반 사람들의 세상이 분리가 되지 않음이 중요하다. 신성은 나누어지지 않고, 예사 사람들과 함께 존재한다.

세 번째 항은 ③죽음/ 당신좌정이다. ① 창조, ② 거구흔적에서 보이던 인간에게



승양받는 존재였던 설문대할망이 다른 신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위대한 여신이어서 독자적인 창조가 가능했던 설문대할망이 남성신의 부속적인 위치에 자리잡게 되기도 하고, 위대한 신이었던 설문대할망이 신성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하지만 인간에게 승양받는 존재임은 확연하다. 가변적인 전승자들에게 수용되며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성격이 변질되기 시작한다. 이 항에서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면모인 일반신화, 거인신화, 여신신화가 함께 나타나지 않고 개별적인 면모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설문대할망의 모습 또한 변한다. 거인신에서 거인으로, 거인에서 거구로 신성성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① 창조, ② 거구혼적 ③죽음/ 당신좌정은 이야기의 내용에 따라 다른 항으로 나누기는 했지만,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한 자료가 각 항에 명확하게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오랜 세월동안 전승되어 온 이야기이다. 파쇄되어 핵심적인 서사만이 전해내려오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핵심서사에 따라 나누기는 했지만,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원래의 장형의 서사라면 저런 식의 표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전승되는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서로 다른 성격의 이야기인데도 하나의 자료로 전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위에서 다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완형으로 전달되지 않고, 파편화되어 전승되고 있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이는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전하는 집단이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기억해서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설문대할망의 이름은 여럿이지만, 행한 행위는 거의 같고, 이야기의 구조 또한 비슷하다. 그 다음은 설문대할망의 행위는 지형이나 지명유래와 관련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는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전설적인 특성을 지녔음을 말해준다.

설문대할망이 신으로 기능을 하나 신성성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 설문대할망의 신성성이 약화되었음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설문대할망의 하문을 세속적인 응답으로 표현하는 것과 설문대할망이 물장오리에 빠져 죽는 것으로 위와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전승하는 전승집단이 설문대할망의 정체성을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인식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대할망이 여신이고, 동시에 거인신이라는 것이다. 설문대할망의 하문이 세속적인 응답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은 설문대할망이 여신으로서의 신성성이 훼손되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물장오리에서 나타나는 설문대할망의 죽음은 물장오리에 빠져 죽을만큼, 더 이상 거인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함을 의미하고, 이는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 설문대할망의 거인신으로서의 신성성이 약화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살펴보았을 때, 『설문대할망』 이야기 자료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기존 논의는 크게 설문대할망을 여신으로 다루는 경우와 거인으로 다루는 경우 두 가지가 있었다. 설문대할망이 원래 위대한 어머니 여신, 우주창조의 거인신이었으나 점점 약화되면서 속화되는 양상이나 죽음을 맞이하는 양상으로 변모되었다는 입장에서 종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종래의 연구는 타당하고,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본디 신화이고, 신화는 신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소략화되어 다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신화에서 현재와는 다른 신앙체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이것이 『설문대할망』 이야기 자료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이를 중심 문제로 삼아 앞으로의 논의를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 Ⅲ.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신화적 성격

이 Ⅲ장에서는 앞 Ⅱ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성격을 논하고자 한다. 앞서 살핀 핵심 신화소를 통해 설문대할망의 특성을 도출하면, 설문대할망은 여신이자 거인신라는 점이 뚜렷해진다. 이는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주요한 내적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은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본디 향유되던 시기를 추측할 수 있게끔 한다.

인류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정착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다. 정착생활을 하기 전, 임시 거처에 머물면서 식량의 유무에 따라 떠도는 생활을 하던 시기가 있었다. 이때의 인류는 수렵민으로서 삶을 영위했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이때 향유되던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다.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설문대할망의 거인신적인 면모와 여신적인 면모는 이런 시대적인 특성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이처럼 설문대할망은 거인신이면서 여신이다. 따라서 Ⅲ장 1절에서는 거인신이면서 여신인 설문대할망에 관한 이야기들을 신화의 관점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새롭게 살펴보고자 한다.

#### 1. 일반신화적 특징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예사 사람들이 전승하는 이야기이다. 설문대할망은 제주도의 지형과 지물을 만든 신이다. 특히 오름과 한라산을 만든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원시시대에 인류가 사고하는 방식과 신화적 세계에서는 마을은 모든 것의 중심이고, 마을을 기점으로 우주가 형성된다.<sup>30)</sup>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마을을 중심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이를 창조하게 된 내력을 말함으로써 그 신성함을 공고히 한다. 마을은 사람들의 세계의 전부이고, 이는 신들의 우주창조를 모방하여 세워진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라산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지형이며, 자신들이 사는 마을과 드넓은 우주의 중심으로 인식해

30) 미르체아 엘리아데, 이동하 역, 『성과 속』, 학민사, 1983, pp. 1-59

왔다.

치마폭에다 흙을 싸서 담아다 쏟아 부은 것이 한라산이 되었고, 동시에 치마폭의 뚫어진 구멍들에서 쏟아진 흙들이 도내에 무수히 산재散在해 있는 작은 오름(岡)들이 되었다.<sup>31)</sup>

위에서 인용한 자료는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의 자료이다. 설문대할망이 이처럼 한라산과 오름을 만들었다. 오름은 제주도에 360여개정도 되는 흔한 지형이다. 또한 이러한 자료뿐만이 아니라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는 설문대할망이 빨래하던 흔적이 남은 바위, 설문대할망이 등경석으로 쓰던 바위 등, 많은 지형지물이 설문대할망의 행적의 결과물로 여겨지고 있다.

에티오피아 도르제족은 자신들의 금식일인 수요일과 금요일에 표범이 자신들의 가축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들의 집 가축을 보호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것이 도르제족의 모순되는 행위인데, 도르제족은 표범이 자신들의 금식일에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금식을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들이 표범들이 금식을 할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자신들의 가축을 표범으로부터 보호하는 이유는 상상적 산물로서의 표범의 진실과 현실의 표범의 괴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고 내려오는 표범은 상상적 산물로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전통이다. 이 전통은 역사를 보증하고 공증하는 역할을 한다.<sup>32)</sup>

“옛날에 우리 시부모가 설문대할망 속읍 하나 행 입젠하나 맹질 뭐 쉰필을 췌텐 해라 쉰필 산맹드는 것도 삼으로 그자 호나 탁 거려와그넝 발로 탁허든 오름되고 이 오름들토 설문대할망이 ……”

『설문대할망』 이야기도 위와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예사 사람들에게서 구전되는 자료이다. 위 자료에서는 시부모로부터 며느

31)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32) 폴 벤드, 김운비 옮김,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믿었는가?』, 이학사, 2002, pp. 7-26(김영희, 『구전이야기 연행과 공동체』, 민속원, 2013, p. 163, 재인용)

리로 이야기가 전승되기도 하기도 한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아무 사람이나 이 이야기를 말로써 전승하는 것이다. 설문대할망이 한라산과 오름을 전했다는 관념적인 사실을 전함으로써, 이는 공동체의 역사와 집단의 기억을 구성하게 된다.<sup>33)</sup> 설문대할망이 한라산과 오름을 만들었다는 것을 거듭 말하게 되며, 연행주체들은 설문대할망이 한라산과 오름을 만들었다는 관념적 사실을 주지하게 되고, 한라산과 오름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설문대할망을 떠올리게 된다. 제주도민들에게 제주도의 중심인 한라산은 동시에 마을과 우주의 중심인데,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승하면서 설문대할망이라는 신성한 존재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설문대할망은 신성한 창조를 행한 신이다. 설문대할망은 흙을 날라 쌓은 한라산과 오름을 만들었다. 한라산과 오름은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어 낼 수 없는 위대하고 신성한 대상이다. 그 위대하고 신성한 한라산과 오름을 만든 것이 설문대할망이라는 점에서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신화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신화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히 살펴보고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는 신성한 공간인 한라산과 오름이 생겨난 내력을 말하고, 마을의 신성함을 피하고 있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마을이 생겨난 내력을 이야기하고, 이를 말함으로써 마을 구성원의 공동체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sup>34)</sup> 이런 기능을 하는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집단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신화로서 기능을 하고, 신화 속 설문대할망은 공동체의 신으로 기능을 한다.

이렇게 힘이 세고 체구가 큰 노파에게 큰 근심이 있었다. 너무나 체격이 커서 옷을 제대로 지어 입을 수 없었는데, 그것이 이 노파에게는 큰 걱정이었다. 하루는 제주 사람들을 불러 청했다.

“당신네가 내 속옷을 한 벌 지어주면, 내가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주겠다.”

제주 사람들은 섬으로 바다 한가운데 외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불편했

33) 김영희, 『구전이야기 연행과 공동체』, 민속원, 2013, pp. 163-164

34) 김영희, 『구전이야기 연행과 공동체』, 민속원, 2013, pp. 159-167

다.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하고서, 이 노파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노파의 체구가 크기 때문에, 그의 속옷 한 벌 짓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적어도 속옷을 한 벌 지으려면 명주 백 통(1통은 50필)은 있어야 했다.

그날부터 제주 사람들은 각자 집에 있는 명주를 다 모으기 시작했다. 온 섬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모았다. 그러나 명주는 99통 밖에 되지 않았다.

노파도 옷을 지어줄 것을 기대해서 조금씩 다리를 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국 명주가 조금 모자라서 옷을 지어줄 수 없었다. 노파는 다리 놓는 것을 중단해 버렸다. 지금 조천과 신촌 앞바다에 그 노파가 다리 놓던 흔적으로 바다 쪽으로 쪽 뻗어간 데가 있다고 한다.<sup>35)</sup>

위의 자료는 『설문대할망』 이야기 중 설문대할망이 백성들을 위해 다리를 놓아주는 내용을 핵심서사로 하는 이야기이다. 핵심적인 이항대립은 일반민중과 설문대할망, 속옷과 다리이다. 백성들이 설문대할망에게 다리를 놓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설문대할망이 다리를 놓는 것에 대한 대가로 속옷을 제시한다. 그러나 설문대할망의 몸집이 너무 커서 백성들은 속옷을 완성하지 못한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한 설문대할망은 다리 놓는 것을 중단하게 된다.

백성들이 설문대할망에게 속옷을 바친다는 것은 단순하지 않은 신화적, 제의적 상징성을 지닌다. 육지는 물론 제주도에서 거행되는 수많은 무속제의에서 신들의 내력이 무가의 형태로 불리지며 제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들에게 복식과 옷감들이 제물로 받쳐지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형태이다. 따라서 설문대할망에게 제주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명주를 조금씩 내어 속옷을 만들어 받친다고 하는 것은 무속의례에서 신들에게 옷감과 복식을 받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 제주도 백성들이 설문대할망에게 속옷을 지어 받치는 내용은 종교적 의례의 일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sup>36)</sup>

35) 제주도청, 제주도 문화예술과, 『제주의 민속 III-구비전승』, 제주도청, 1995, pp. 43-44

36) 권태효는 이것이 인간들이 거인에게 올리는 제의 일종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옷이

결국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통해 설문대할망은 일반 민중에게 신으로 숭앙받던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설문대할망은 제주도와 육지를 잇는 다리를 짓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며 믿어졌으며, 일반 민중에게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하는 신으로서, 기원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예문을 통해 신(설문대할망)과 인간의 사이가 매우 가까운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의 민중들은 어떠한 중개자 또는 대리자 없이 설문대할망에게 직접적으로 소망과 기원을 말하고, 공물로서의 옷감도 직접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설문대할망은 백성들이 소망했던 제주도와 육지를 잇는 다리를 완성하지 못하고 실패한다. 그럼에도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실패가 설문대할망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며, 백성들이 제물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의 위대함과 인간의 부족함이 대비되는 장면이다.

백성들이 설문대할망에게 다리를 놓아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제주에 바다 한 가운데 외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제주도라는 섬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만큼 제주도는 어떠한 외부의 침입 없이 외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 섬인 것이다.

또한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 ‘제주도 사람들’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지니고 있는 명주를 내어 설문대할망을 위한 속옷 짓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주도 사람들’은 스스로를 외부와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공간에서 모두가 하나처럼 공공하게 맺어져 있는 하나의 공동체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위의 자료를 통해 설문대할망이 제주도에 존재하는 신격이고, 일반 민중에게 기원의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형과 지물을 다룰 수 있는 점이 사람들의 기원의 대상이 되는 이유임을 알았다. 설문대할망이 신으로서 위치하고 있음을 밝혔는데, 설문대할망의 신적인 성격이 다른 신들과는 사뭇 다르다.

위대한 거인신으로서 제주도 민중과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었던 가장 오래된 신으로서의 설문대할망은 현재 제주도 무속제의에서는 전혀 섬겨지지 않는 신으

---

나 옷감을 원하는 거인에게 제물로 옷이나 옷감을 바친다는 것이다. 권태효, 「거인설화의 전승양상과 변이유형」,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p. 52

로 존재한다. 또한 그 위대함을 명실상부하게 드러내주는 이야기들은 온전한 하나의 서사를 이루지 못하고 파편화되어 전설과 민담의 형태로 불완전한 서사의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반면, 신화적 속성과 신격의 관념에서 보다 후대에 형성되었고, 보다 하위의 신격으로 추정되는 무속제의 속에서의 신들은 완전한 서사를 갖춘 형태로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가지는 신화적 성격과 설문대할망의 신격이 제주도 무속제의에서 불리는 무당신화와 그 신격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천지왕본풀이』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자료 자체가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것이고, 예사 사람이 아닌 심방(무당)이 전하는 것이므로 비교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천지왕본풀이』는 제주도 전역에서 널리 전승되고 있는 무당신화이다. 박봉춘의 『초감제』·『천지왕본풀이』와 안사인의 『베포도업침』, 정주병의 『천지왕본풀이』에서 공통된 서사단락을 추려 간략하게 서사단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천지개벽을 할 때, 해와 달이 여러 개여서 백성들이 고통 받는다.
2. 천지왕이 수명장자를 징치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온다.
3. 천지왕은 총명부인과 결혼하여 대별왕, 소별왕을 생산한다.
4. 천지왕은 본메본짱을 두고, 천상으로 돌아간다.
5. 대별왕, 소별왕은 장성하여 본메본짱을 들고, 천지왕을 찾아간다.
6. 천지왕은 친자관계를 확인한 후, 대별왕에게 이승을, 소별왕에게는 저승을 다스리도록 한다.
7. 소별왕은 이에 반발해서 대별왕에게 이승을 차지하기 위한 내기를 제안한다.
8. 대별왕과 소별왕은 수수께끼 시합, 꽃피우기 경쟁을 하고, 소별왕이 속임수를 써서 인세를 차지한다.
9. 대별왕은 이승의 혼란을 예언한다.
10. 소별왕은 대별왕의 도움으로 이승의 혼란을 잠재운다.

박봉춘 구연본은 서귀포 지역에서, 안사인·정주병 구연본은 조천지역에서 전승



된다. 두 자료는 제주도의 정반대편에서 구연됨에도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는 보이나 대체적으로 핵심화소는 공유하면서 전승되고 있다.

위의 서사단락을 토대로 핵심화소를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천지개벽, ②일월조정, ③ 수명장자 징치, ④부친탐색, ⑤천부지모, ⑥인세차지경쟁이다. ①천지개벽, ②일월조정에서는 태양과 달을 하나씩 쏘아 떨어뜨린 것으로 대별왕과 소별왕이 남성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나 ② 일월조정에서는 해와 달이 여러 개라는 과다한 자연현상이 나타나고 대별왕과 소별왕이 이를 조정한다. 해와 달이 인간의 세계와 일정한 균형을 취하고 있어야 하는데,<sup>37)</sup> 과다했던 해와 달을 인간의 편의에 따라 맞추고,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는 행위가 일월조정이다.

다음은 ③ 수명장자 징치이다. 수명장자 징치를 통해 지상의 질서를 확립한다. 수명장자는 막강한 세를 지니고 있고, 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징치될 수명장자가 혼자가 아닌 어떤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천지왕이 신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수명장자는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어떠한 신격이 아닐까 한다. 이것이 하늘을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기존 신격이 갈등을 빚고, 이런 과정이 수명장자라는 존재로 『천지왕본풀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④ 부친탐색과 ⑤ 천부지모는 영웅신화에서 전형적으로 확인되는 신화소이다. ④ 부친탐색을 먼저 살펴보자면, 조셉 캠벨(Joseph Campbell)은 그의 저서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에서 영웅은 일상적인 삶의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자신이 속한 세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힘을 얻어 온다고 했다.<sup>38)</sup> 일상세계에서 삶을 영위하던 대별왕과 소별왕은 아버지를 찾으러 떠나고, 천상으로 부터 인세를 차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는 인세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세상의 새로운 질서를 새운다는 것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문화의 발전이므로 대별왕과 소별왕이 지금 속한 세상 즉, 인세에 큰 공헌을 하는 일이다. 문화영웅적인 면모를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인류에게 불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의 행위와 유사한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부계사회의 특성이기도 하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

37)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p. 127

38) 조셉 캠벨 ·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1999.

해 천상과 조우하게 된다. 이는 부자관계 확인을 통한 부의 권력을 승계하기 위한 과정이다.

⑤ 천부지모 또한 대별왕과 소별왕의 영웅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는 요소이다. 대별왕, 소별왕이 평범한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비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이한 능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이한 능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신이한 출생이라는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신이한 출생이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천부지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⑥ 인세차지 경쟁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천지왕과 대별왕, 소별왕이 가지는 특성은 왕권신화에 해당한다. 천지왕이 권력을 말로써 이양하고, 대별왕 소별왕이 이를 받든다는 점에서 그렇다. 아버지의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이며, 이는 부계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 다음으로 인세를 차지하는 과정이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수수께끼로 서로 내기를 하고, 꽃피우기 경쟁을 한다. 소별왕이 수수께끼에서 이기고, 꽃피우기 경쟁에서도 속임수로 이겨 인세를 차지하게 된다. 수수께끼는 인세를 얼마나 아느냐에 대한 질문이고, 꽃피우기 경쟁은 태양과 달을 쏘는 맥락과 유사한 맥락이다. 꽃을 피우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이다. 반면에 꽃을 바꾼다는 것은 인공적인 가공이다. 인류가 문화를 꽃피우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얘기하고 있다. 일월조정 또한 인간이 자연의 것을 그대로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정한 가공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평범한 인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이한 누군가가 필요하고, 이것이 대별왕과 소별왕이다. 대별왕, 소별왕은 영웅이기도 하고 동시에 거인신이다. 신과 인간의 중간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해결하는 존재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천지왕본풀이』는 제주도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고, 각 지역의 자료들은 핵심 신화소를 공유하면서 하나의 공통된 서사를 형성하고 있다. 서귀포지역 박봉춘의 『초감제』·『천지왕본풀이』와 조천지역 안사인의 『베포도업침』, 정주병의 『천지왕본풀이』는 각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채록된 자료이다. 두 지역은 제주도의 끝과 끝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둘이 전승되는 지역적인 거리가 멀어도 장형의 서사와 내용의 유기적 연결, 내용의 변화가 거의 없다.

이에 반해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완결된 장형의 서사로 전승되고 있지 않다. 『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앞서 살핀바와 같이 구연자의 기억에 뚜렷이 남는 핵심 화소만이 전승될 뿐이다. 따라서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전승 과정에서 서사적 유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천지왕본풀이』가 오랜 세월동안 넓은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음에도 『설문대할망』 이야기와 달리 완형의 서사를 공통적으로 전승하고 있는 것은 사제자가 주요 전승집단인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제주도의 사제자, 즉 심방은 신과 인간 중재하며 신의 업적을 구송한다. 『천지왕본풀이』가 구송되는 곳의 현장은 속(俗)의 공간이 아니라 신(神)이면서 성(聖)인 공간이다. 즉, 일반 민중들이 있는 공간과 분리가 된다. 『천지왕본풀이』는 의례를 목적으로 구연되기 때문에 의례를 행한 순간 그 공간은 의례를 위한 공간, 성스러운 제의적인 공간이 된다. 일반 민중들이 있는 공간은 자연스럽게 속으로 지정된다. 일반민중과 대별왕·소별왕을 이어주는 중간 매개자가 사제자인 심방이다.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제자는 권력을 지니게 된다.

『천지왕본풀이』는 신이 이승과 저승을 가르고, 인간 세상에 법칙을 마련한 신성한 행위에 대해 구송을 하며, 신의 내력을 말하고 있다. 이는 세계를 갱신하는 행위이다.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사제자이며, 성스러운 공간과 속된 공간 그 사이를 조율하며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사제자는 이러한 행위 때문에 권력을 갖게 되고, 이는 『천지왕본풀이』가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전승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천지왕본풀이』와 성격이 다르다. 설문대할망은 여성신으로 풍부한 생산력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천지왕본풀이』의 대별왕과 소별왕은 인간 세상에 신이 새로운 문화를 가져왔다는 문화영웅적인 면모가 두드러진다. 이는 둘 다 거인신이지만, 여성신과 남성신이라는 차이가 가져오는 특성이다. 여성신은 대모신, 즉 모계사회의 특성을 띄고 있고, 남성신은 모계사회가 부계사회로 전환되며 여성신과는 다른 특성을 띄게 되었다. 문명의 발전에 따른 사회의 세분화에 따라 신격이 다양하게 분화되었으며, 이를 주도하는 이가 남성신으로 나타난다. 하늘을 기반으로 위계가 수직적으로 재편된다.

하지만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는 하늘을 기반으로 위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질서가 확립되기 전이고 수평적 세계관을 유지한다. 『설문대할망』에서 설문대할망

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지 않고, 따라서 어떤 이들을 처벌하지도 않는다. 또한, 신(설문대할망)과 일반 민중은 같은 세계를 공유하고 있다.

한편, 『천지왕본풀이』와 달리 사제자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이야기판이 자유로운 구연과 전승이 이루어진다. 즉 『설문대할망』 이야기 안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성숙이 하나였던 것처럼,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사제자의 개입 없이 속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상에서 『천지왕본풀이』와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비교하여 논의한 바를 표로 정리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설문대할망』 이야기와 『천지왕본풀이』의 특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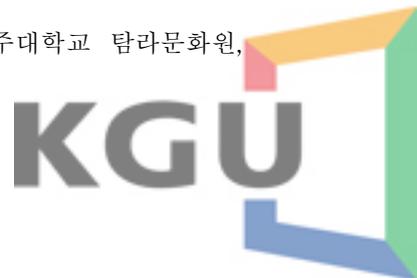
	설문대할망	천지왕본풀이
전승주체	일반 민중	심방(사제자)
서사 구성	삼화적, 단편적, 파쇄적, 병렬적	유기적, 순차적, 장편, 완형
의례 유무	확인하기 어려움	초감제, 베포도업침

김현선은 『설문대할망』과 『천지왕본풀이』를 예시로 삼아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 주목한 적이 있다. 이 둘의 핵심적인 차이는 전승과정이라 하며, 이러한 것이 언제 행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를 통해 「설문대할망」과 「천지왕본풀이」의 성립 배경이 다른 것을 살피고, 이들이 시대를 달리하여 생겼을 것을 추론하였다.<sup>39)</sup>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사실은 일반민중에게 행해지던 신화이고, 의례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는 것을 미루어볼 때,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천지왕본풀이』와는 변별적 자질을 가진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전승주체의 차이이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일반민중에 의

39) 김현선, 「제주도의 신화와 서사시 연구」, 『탐라문화』 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원, 2008, pp. 291-299



해 전승이 되고, 『천지왕본풀이』는 심방, 즉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제자에 의해 전승이 된다. 이러한 차이가 두 자료를 변별되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한다. 『설문대할망』 이야기와 『천지왕본풀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특성들이 사제자의 유무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일반 민중에 의해 전승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삽화들만이 기억 속에 남아 전승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병렬적으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야기의 형태가 <표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1~3개정도의 화소가 결합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특징을 지닐 수 밖에 없다. 이야기의 형태가 삽화적일 수밖에 없고, 단편적이며 파쇄적이다.

반면에 『천지왕본풀이』는 사제자집단에 의해 전승되는 신화이다. 따라서 전문적으로 신화를 학습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구성이 가능하고, 장편이며 완형의 서사가 전승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신을 섬기는 것은 의례로써 심방들에 의해 행해진다. 심방들에 의해 행해지는 의례는 신과 인간과의 공간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과 속이 구별된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이승과 저승이 나뉘고, 천상과 지상이 나뉘었던 것처럼, 인간 사회에서 신화가 구연되는 장소와 일상적인 공간은 구별되어 존재하게 되었다.

하지만 『천지왕본풀이』에서는 그것이 오로지 심방으로 대표되는 자만 가능하다. 신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심방의 대표적인 기능이다. 굿이라는 의례를 통해서 성과 속을 나누고, 이 사이를 잇는 자들이 심방이다. 물론, 굿을 하지 않고 심방의 직능을 행하는 자도 있다. 삼승할망이 그렇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심방에 포함된다. 심방의 직능의 영역의 일부인 산신(産神)에 대한 의례를 하기 때문이다. 삼승할망은 조산무(助産巫)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sup>40)</sup> 이 또한 삼승할망으로 성스러운 공간이 세속과 나뉜다는 점에서 의례의 일종이고, 사제자가 출현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 일반민중이 설문대할망에게 천을 바침으로써 공물을 준다. 이는 일반민중들과 설문대할망 사이의 거리가 없고, 따로 신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나누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일반 민중 그 누구든, 공물을

40)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도서출판 각, 2007, p. 16

바치는 것에 참여하는 자는 신과의 대면이 가능하다.

이렇듯 『설문대할망』 이야기와 『천지왕본풀이』를 통해 일반신화인 『설문대할망』 이야기와 무당신화인 『천지왕본풀이』가 서로 다른 신화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살폈다. 『설문대할망』 이야기와 무당신화는 다른 신화이다. 같은 제주도라는 공간에서 있지만, 무당신화내에서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차지하는 위상이 크에도 불구하고, 무당신화내에서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 밑의 자료를 통해 왜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무당신화와 별개로 전승이 되는지를 살피려 한다.

옛날 한 사람의 거인이 살고 있었다. 그가 어느 정도 컸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귀의 길이가 30척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 거인의 평생소원은 한번이라도 좋으니 옷을 입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거인은 항상 칙넝쿨이나 나뭇잎으로 겨우 사타구니만 가리고 있었다. 당시의 왕(물론 단군 이전의 왕이다.)에게 애원했더니 왕도 거인을 동정하여 일 년 동안 삼남(충청·경상·전라)의 베 전부를 그에게 주었다. 거인은 그 베로 난생 처음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많은 옷감으로도 거인의 옷을 만들기는 부족하였다. 그래도 거인은 만족하였다. 그러자 거인은 기쁜 마음에 聞慶(경북)의 조령 꼭대기에 올라가 마음껏 춤을 추었다. 그러자 거인의 옷자락이 해를 가려 삼남의 땅은 모두 구름 낀 날씨처럼 되어 곡물이 조금도 자라지 못하게 되자 농부들은 왕에게 하소연하였다. 왕은 할 수 없이 거인을 국경 밖으로 추방하였다. 거인은 지금의 만주 땅으로 추방되었다. 그곳에서 거인은 음식을 찾았지만 있을 리가 없었다. 거인은 배고픔 때문에 할 수 없이 광야의 땅을 무턱대고 먹어 치웠다. 그러자 이번에는 목이 말랐다. 어쩔 수 없이 바닷물을 배터지게 마셨다. 그랬더니 결국 설사를 하기 시작했다. 바로 지금의 백두산이 있는 부근에서 배설을 했던 것이다. 그 배설물은 거인이 먹은 흙이었는데, 배설한 바로 밑에 흙이 제일 높게 쌓였고, 거기에서 흘러내린 흙은 어떤 것은 높게 어떤 것은 낮게 쌓이게 되었다. 그것들이 지금의 조선의 산들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백두

산은 모든 산 가운데서 가장 높게 우뚝 솟아 있는 것이다. 또 대변 말고도 소변도 함께 나왔는데, 한 줄기의 소변이 흘러서 압록강이 되었고 다른 한 줄기의 소변은 흘러서 두만강이 되었다. 또한 그 강들의 지류도 생겼다. 강의 근원을 산으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1923년 8월 경북 달성군 월배면 상인동 이희병씨 이야기)<sup>41)</sup>

위의 자료는 일제강점기 때 민속학자인 손진태에 의해 조사, 채록된 「조선산천의 유래」라는 자료이다. 이 자료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A. 거인이 인간의 왕에게 옷을 요청해서 받음.
- B. 해를 가린 거인과 피해를 입은 농민.
- C. 거인의 배설로 백두산과 두만강, 압록강이 생성됨.

A 부분의 핵심적인 이항대립은 왕과 거인이다. 거인의 모습을 중요시 살펴야 한다. 거인은 칙녕쿨이나 나뭇잎으로 사타구니만 겨우 가린 형상을 하고 있다. 직조능력이 없고, 왕이 속한 집단과는 다른 문화사적인 단계에 속함을 알 수 있다. 거인은 앞서 살핀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다리 놓기 실패 자료와 비슷하게 옷을 원하지만 이는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옷과는 다른 함의이다.

B 부분의 핵심적인 이항대립은 농민과 거인이다. 거인이 새로 받은 옷으로 태양을 가림으로 농민들에게는 농사에 필수적인 것을 침범하는 존재가 된다. 따라서 거인은 농민들에게 배척당하게 되고, 농민들의 수장인 왕은 거인을 쫓아내게 된다.

C 부분은 거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앞서 A와 B부분과는 다른 면모를 C에서 보여준다. C에서의 거인은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설문대할망과 같이 창조 능력이 있는 거인이다. 배설로 산과 하천을 만드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거인신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C이다.

C와 A, B는 서로 대립된다. C의 면모를 지니고 있는 거인은 높은 창조력을 지

41) 「조선산천의 유래」, 『한국 민화에 대하여』, 도서출판 역락, 2000, pp. 29-30

니고 있는 거인신인데도 불구하고 왕과 농민에게 왜 배척당해야 했을까?

왕은 농민들을 통치하는 자이다. 권력을 지니고 통제하는 왕은 신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는 거인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고, 농민들을 통제한다는 점을 들어 사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 삼남의 베를 모아 거인에게 쥐어주는 존재는 왕이고 이는 곧 왕을 통해 백성들이 바치는 공물이기 때문이다. 성과 속이 왕으로 인해 이어지는 상황을 알 수 있다. 또한 농민들이 거인으로 인해 생긴 문제를 왕에게 해결을 구한다는 점에서도 왕이 사제자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정치적인 통치자인 왕과 사제자인 왕은 동일인물인 점에서 제정일치사회의 모습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농민들은 농사를 위해 해를 중요시 여긴다. 이는 농사에 꼭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일월조정을 하는 것이 자연현상을 인간의 편의에 따라 맞추는 작업이라 했고, 따라서 이는 인류가 농경생활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농민들의 국가는 하늘에 질서를 재편시키는 신앙을 갖고 있다. 하지만 거인의 신격은 하늘에 재편되는 성격이 아니다. 산천을 조성하는 신격이다. 서로 중요시여기는 신격이 다르기 때문에 농민들의 국가에서 산천을 조성하는 신격인 거인은 분리될 수밖에 없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도 이와 같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반민중에게 향유되었던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중요시여기는 신격에서 제외되었고, 무당신화의 사람들의 삶을 주재하고,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신들이 필요로 되게 되었다.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신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조산무와 같은 이들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제자는 권력을 얻게 되고, 신화를 구연하는 행위로 자신의 권력을 구축하게 된다. 따라서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사제자 집단이 일반민중을 통제하기 위한 권력을 갖게 될 수 있는 신화로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화를 구연한다는 것은 구연하는 사제자에게 특수한 권위를 부여할 수 없다. 따라서 무당신화에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전승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일반민중속에서 신성한 이야기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설과 민담과 같은 형태의 이야기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 논의한 바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설문대할

망』 이야기는 예사 사람들에 의해 전승이 된다. 예사 사람들이 흥미 위주로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전승하기 때문에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형태는 단편적으로, 파쇄적으로 나타난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무당신화 이전의 구전신화이다.

## 2. 여신신화적 특성

여신의 생산력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던 시기가 있다. 인류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정착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다. 정착생활을 하기 전, 수렵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갔고, 동굴이나 강가에서 막집을 짓는 등, 임시거처에 머물면서 식량의 유무에 따라 떠도는 생활을 하던 시기가 있었다. 이때에 향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신신화는 여신의 생산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인류가 정착생활을 하고, 농사를 시작한 이후에도 지속된다. 농경은 자연의 신이한 힘이 결과물을 맺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여신의 생산력은 높이 평가되고, 여신의 생산력은 농경이 결실을 맺는 것과 큰 연관성이 있었다.

신화와 고대 유물 등에서 여성의 풍만한 신체, 가슴, 하문 등은 고대 인류의 풍요에 대한 소망을 담은 상징성을 지닌다. 즉, 이는 성적인 권능인 생산력과 생식력을 동일시하는 시대의 산물인 것이다. 따라서 여신의 하문으로 여신이 지닌 생산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게 된다.

특히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 여신의 하문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설문대할망이 지닌 생산력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설문대할망의 음문이 고기를 잔뜩 잡을 수 있을 정도로 크다는 것은 설문대할망이 지닌 생산력을 은유적으로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 후에 이것이 전승되며 신성성을 일부 잃어버리고 우스개소리로 전락하는 현상도 발생하였지만, 원래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지닌 성격은 설문대할망의 신성함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송정화는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서 모든 생명의 원천이자 풍요의 상징으로 생각되었다고 했다.<sup>42)</sup> 여성의 생식능력이 신성화되어 여신의 생산력이 되고, 이는 세계의 형성을 이해하는 근간이 된다. 설문대할망의 생산력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설문대할망이 여신의 표상, 거대한 음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설문대할망의 생산력은 위에서 말한 여신신화의 주요한 특성이다. 대모신은 부계사회가 도래하기 이전, 모계사회에서 여성이 우위에 있을 때 숭배되던 여신이

42) 송정화, 『중국여신연구』, 민음사, 2007, p. 61

다. 설문대할망의 생산력은 설문대할망이 대모신이며, 모계사회의 여신이었음을 드러낸다. 이는 설문대할망의 성격이 다소 변화된 『오백장군』 설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오백장군』 설화에서 설문대할망은 오백장군의 어머니의 위치로 자리한다. 하지만 오백명의 아들을 두었다는 것에서 설문대할망이 지니고 있는 생산력을 가늠케 한다. 이는 설문대할망이 앞서 말한 풍요의 상징으로서의 면모가 다소 약화되었지만 여실히 그 명맥이 전해져 내려움을 알 수 있다.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 설문대할망이 지형을 창조하는 것을 세밀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설문대할망은 배설과 배뇨를 통해 지형을 창조한다. 이것을 세분화해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표4> 설문대할망의 배설을 통한 지형 창조

설문대할망의 행위	결과	해당하는 대표적 자료(표1의 해당연번)
설문대할망의 배설	섬 만들기	3, 16
설문대할망의 배뇨	샘, 바다 만들기	39, 48, 65

위의 자료들은 설문대할망이 배설 혹은 배뇨로 지형을 만든 경우이다. 하지만, 설문대할망의 창조는 설문대할망의 여신적인 특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설문대할망은 여신이자 거인신이고, 때문에 여신으로서 가능한 창조도 있지만, 거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창조도 있다. 이는 다음 장에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설문대할망의 여신으로서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려 한다. 다음의 자료가 이에 해당하는 좋은 자료이다.

본래 성산리(城山里) 앞바다에 있는 소섬[牛島]은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었다. 옛날 설명두할망이 한쪽 발은 선상면 오조리(五照里)의 식산봉(食山峯)에 디디고, 한쪽 발은 성산면 성산리 일출봉에 디디고 앉아 오줌을 쏘다. 그 오줌 줄기의 힘이 어떻게 세었던지 육지가 꺾어지며 오줌이 장강수(長江水)가 되어 흘러 나갔고, 육지 한 조각이 동강이 나서 섬이 되었다. 이 섬이 바로 소섬이다.

그때 흘러 나간 오즘이 지금의 성산(城山)과 소섬 사이의 바닷물인데, 그 오즘 줄기의 힘이 하도 세었기 때문에 깊이 패어서, 지금 고래·물개 따위가 사는 깊은 바다가 되었고, 그 때 세차게 오즘이 흘러가던 흔적으로 지금도 이 바다는 조류가 세어서 파선하는 일이 많다. 여기에서 배가 깨어지면 조류에 휩쓸려 내려가 그 형체를 찾을 수가 없다.

일설에는 이 할머니가 성산 일출봉과 성산면 시흥리 바닷가의 브름알선 돌이라는 바위를 디디고 앉아 오즘을 누었다고 하기도 한다.<sup>43)</sup>

위의 이야기는 소섬이 어떻게 제주도와 분리되었는지, 제주도와 소섬(우도) 사이의 바닷물의 깊이와 물살이 왜 깊고 거세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자료이다. 핵심적인 이항대립은 분리되지 않은 섬, 분리된 섬이다. 이는 이 세상이 왜 이 모습으로 존재하는 지에 대한 신화적 사유가 들어있는 결과물이다. 원래 분리되어 있지 않은 섬을 분리시킨 것이 설문대할망의 배뇨이고, 이는 쇠섬이 현재 존재하는 모습으로 존재하게 한 원인을 설문대할망의 배뇨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설문대할망』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창조 도구는 배뇨이다. 이는 단순한 배뇨가 아니고, “오즘 줄기의 힘이 어떻게 세었던지”, “세차게 오즘이 흘러가던 흔적으로” 등으로 배뇨의 양이 많고, 그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설문대할망의 배뇨가 신성한 것이며, 설문대할망의 거구를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설문대할망의 생산력이 왕성함을 보여주고 있다. 설문대할망의 배뇨가 바닷물이 된다는 것 또한 위와 비슷한 맥락을 함의한다. 제주도 사람들의 삶은 바다와 매우 가깝다. 바닷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해서 살아간다. 바다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물길이 세서 위험한 곳이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먹거리를 구할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기도 했다.

바닷물은 생산과 재생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어떠한 것이 해체된 뒤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는 곳이 바다이다. 특히 물에 의한 천지개벽설은 인류가 물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신앙에 해당한다.<sup>44)</sup> 꼭 물이 여성을 상징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설문대할망』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화에서도 여신과 물은 연관성이 높

43)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96, pp. 24-25

44) M. 엘리야데, 이재실 역, 『이미지와 상징』, 까치, 1998, pp. 165-166

다.

예를 들어, 바빌로니아 창조서사시 『에누마 엘리쉬(Enuma Elish)』 티야마트(Tiamat)를 예로 들 수 있다. 『에누마 엘리쉬』에서 티야마트(바다)는 아직 천지가 개벽하기 전, 신들의 아버지인 압수와 함께 태어난 신들의 어머니이다. 그들이 섞인 물 사이에서 라흐무와 라하무(진흙 같은 침적토), 안샤르(수평선), 키샤르(지평선)이 태어났다.<sup>45)</sup> 그녀는 죽은 후에 하늘과 대지를 형성하고, 많은 괴물들을 낳았을 정도로 생산력이 높다. 바다가 티야마트가 해체된 후에 새로운 질서인 하늘과 대지가 생겼다는 것은 새로운 탄생과 생명의 잠재력을 풍부하게 하고 증대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키클의 피로 인류를 창조했다는 것을 볼 때, 인류의 탄생이 물과 관련이 깊다는 인식이 신화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바다는 여성과 관련성이 짙고, 바닷물은 재생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힘이 센 배뇨는 설문대할망이 거근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암시이고, 이런 배뇨로 섬과 바닷물, 새를 만들어내는 것은 설문대할망의 생산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이다.

위낙 큰지라 식량食糧이 많아서 대죽범벅(수수범벅)을 먹고 똥을 싼 것이 산이 되었다. 그 산이 현재 ‘농가물’이란 곳에 있는 ‘굿상망오름’이다.<sup>46)</sup>

설문대할망이 대식을 하고 배설한 것이 오름이 되었다. 핵심적인 이항대립은 대죽범벅과 굿상망오름이다. 식량과 배설물의 대립을 보여주는 것이 요점이다. 먹는 행위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행위이고, 배설물은 먹는 행위에 꼭 수반되는 행위이다. 결국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과 생명을 유지한 결과물의 대립이다. 하지만 이 둘의 대립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다. 설문대할망이 이 대립항을 먹고 배설하는 주체이다.

이는 설문대할망의 지모신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문대할망이 지형을 생산한 경우도 있고, 설문대할망은 토양을 직접 만지며 치마로 흙을 담아 오름을 만든 이야기와 같이 제주도의 지형을 만든 경우도 있다. 흔히 고대종교

45) 조철수, 『수메르신화』, 서해문집, 2003, pp. 154-155

46)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2, pp. 7

와 신화에서 대지는 소우주와 동일시된다. 대지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지니며, 어머니의 모성과 흔히 연결된다. 결국 대지의 이미지는 점차 지모신으로 나타나게 되고, 풍요의 신으로 나타나게 된다.<sup>47)</sup>

위의 자료에서는 설문대할망이 먹은 음식을 배설한다. 이 배설물은 대지를 형성하고 있다. 설문대할망을 통해 소멸과 생성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수수범벅은 농사를 지어서 얻어지는 식량이다. 대지를 통해 얻어지는 식량인 것이다. 이를 먹고 다시 대지로 환원하는 대상이 설문대할망이다. 사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의문을 여성의 생산력에 기대어 이해하려는 사고를 찾아볼 수 있다.

설문대할망이 오름과 한라산을 만들었다는 것도, 단순히 제주도의 지형을 만들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름과 한라산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지형이고, 이는 대지로 확장시켜볼만 하다. 대지를 만든 설문대할망이 지모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만 나타나는 단일한 특성이 아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설문대할망』 이야기와 비교될 만한 다른 나라의 신화를 다루어야 마땅하다. 밑에 제시한 내용은 그리스의 『가이아』 신화를 요약한 것이다.

1. 어머니 대지인 가이아(Gaia, 땅)이 혼돈속에서 태어난다.
2. 잠을 자던 중에 아들 우라노스(Uranos, 천국·하늘)를 낳았다.
3. 가이아는 바다를 만든 다음 대양을 만들고, 히페리온(Hyperion, 태양)과 레아(Rea), 므네스모시네(Mnemosyne, 기억), 포이베(Phoib, 달), 크로노스(Kronos)와 같은 거인족을 낳았다.
4. 우라노스는 가이아의 자식들을 모두 없애려 했다.
5. 막내인 크로노스는 난폭한 아버지 우라노스에게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고, 우라노스가 잠든 틈에 우라노스를 거세한다.
6. 크로노스는 레아와 결혼하여 헤스티아, 헤라, 아레스, 제우스를 낳았다.
7. 크로노스는 레아가 자식들을 낳자마자 삼켜버렸지만, 레아가 크로노스에게 발각되기 전에 제우스를 미리 숨겨서, 제우스는 삼키지 못한다.
8. 제우스가 자라자 크로노스는 때마침 자식들을 토해내고, 살해당한다.

47) 미르체아 엘리아데, 이은봉 역, 『종교형태론』, 한길사, 1996. pp. 327-331.

9. 제우스와 형제들은 티탄들과 우주의 지배권을 놓고 싸움을 벌이고, 마에게 발각되기 전에 제우스를 미리 숨겨서, 제우스는 살아남게 된다. 48)

위의 서사단락은 그리스의 『가이아』 신화를 요약한 것이다. 가이아는 대모신으로 설문대할망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세상이 탄생하게 된 이유를 여신의 생산력에 기대어 설명하고 있다. 가이아는 바다를 만든 다음 대양을 만들고, 히페리온(Hyperion, 태양)과 레아(Rea), 므네스모시네(Mnemosyne, 기억), 포이베(Phoib, 달), 크로노스(Kronos)를 같은 거인족을 낳는다. 이는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 설문대할망이 오름을 배설하고, 오름을 만드는 이야기와 비교될만하다.

가이아의 핵심적인 행위는 바다를 만들고, 아이들을 낳는 것이다. 이 아이들은 가이아의 단독 창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태양, 달, 하늘 등 자연환경을 의미한다. 이는 여신의 출산이 자연환경을 만드는 것의 원인이 되며, 이 세상을 이루는 것이 여성의 생산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기는 신화적 사고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인류가 수렵민 사회의 단계에 있을 때 사유하던 방식이다. 옛날에는 종교와 세속을 분리하지 않았기에 인류의 발전단계가 수렵을 하던 구석기 시대였을 때, 구석기인들은 신들과 인간의 사회를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보통 사람들이 평범하다고 여기는 행위조차 영원한 세계에 동참시키는 의식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한다.<sup>49)</sup> 또한 구석기 시대의 조각품에는 여성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여성상들은 벌거벗은 상태로 풍만한 엉덩이와 음부의 삼각형, 젖을 먹이는 가슴이 극단적으로 강조되어 있다. 이는 여성의 몸의 신적 힘을 표출한 것이며, 앞서 말한 여신의 대모신적인 성격과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상 여성의 주술적 힘은 우주 자체만큼이나 경이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sup>50)</sup>

흔히 알고 있듯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당시 시대에 여성의 출산은 신성한 행위로 받아들여지던 행위였다. 신비하고, 고귀한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여성의 출산이지만, 이는 여성이라면 행할 수 있는 평범한

48) J.F. 비얼레인, 현준만 옮김, 『세계의 유사신화』, 세종서적, 1996, pp. 77-79

49) 카렌 암스트롱, 이다희 옮김·이윤기 감수, 『신화의 역사』, 문학동네, 2005, pp. 22-23

50) 조세프 캠벨, 이진구 역, 『신의 가면 I : 원시신화』, 도서출판 까치, 1977, pp. 358-361

행위다. 여성의 출산이라는 행위와 여신의 출산에서 새로운 것의 탄생이라는 공통점을 찾고, 평범한 행위가 비범한 행위가 되어 신과 인간의 세계를 나누지 않는 사고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설문대할망』 이야기와 『가이아』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점이다.

하지만 설문대할망과 다른 점이 있다. 가이아와 설문대할망 모두 단독의 창조가 가능하지만, 설문대할망과는 달리 가이아는 대우신(對偶神)이 있다는 것이다.<sup>51)</sup> 대우신은 우라노스로 나타난다. 우라노스를 처치한 것이 크로노스이고, 크로노스는 자신이 했던 것과 똑같이 제우스에 의해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제우스의 행적을 보면, 남성신이 여성신과는 다른 행보를 걷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자리를 계승해서 자신의 지배권을 확립하는 것이 행보의 목적이다. 지배권을 확립한다는 것은 문화의 정립을 말한다. 제우스는 기존에 있던 무질서, 어머니인 가이아를 아프게 하는 자식들을 제압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다. 이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문화의 도래이며, 문명의 도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이아를 아프게 했던 것으로 은유적으로 나타나있는데, 가이아가 창조했던 가이아의 아이들은 르네모시아(기억)이나 테미스(규율)과 같은 신들도 있지만, 자연현상을 뜻한다. 이와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자연현상과 대립하는 문명을 세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다했던 자연현상을 인간의 편의에 따라 맞추는 작업에 해당한다.

여성에게 부여된 거대한 힘을 부수고 통제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려는 것은 남성의 주요한 관심가운데 하나라고 하기도 한다.<sup>52)</sup> 이것이 우라노스와 크로노스의 행위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제우스도 마찬가지이다. 위의 『가이아』 신화에서 주요한 이항대립으로 여성신과 남성신을 꼽을 수 있다. 첫 번째 대립은 가이아와 우라노스이다. 『가이아』 신화에서 나타난 여신의 궁극적인 거대한 힘은 생산성이다. 이런 생산성의 결과가 자식들이고, 이 자식들을 먹어버

---

51) 『설문대할망』 이야기 자료 중, 3번, 17번, 40번, 50번의 자료에서 설문대할망과 혼인하는 설문대하르방의 존재가 나타난다. 설문대하르방은 설문대할망과 부부가 되지만, 설문대하르방이 설문대할망의 대우신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대우신의 주된 목적은 새로운 성격의 창조이다.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의 성적 결합은 이러한 창조적 행위에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풍요를 기원하는 유감주술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52) 조세프 캠벨, 이진구 역, 『신의 가면 I : 원시신화』, 까치글방, 1977, pp. 358-361 참조

림으로써 여신의 신성한 힘을 제약하려 한다. 이는 레아와 크로노스의 대립으로, 제우스와 티탄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티탄은 가이아의 자식으로, 여신의 생산력의 결과물이다. 이를 제우스가 제압하고 신들의 체제를 세우게 된다. 여신의 시대의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시대가 지난 후에도 여신의 신성한 힘은 완전히 사그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여신이 독자적으로 창조를 행했던 것이 가능한 시대는 가고 남신의 배우자, 딸 등의 남신의 부수적인 자리로 위치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여신의 신성함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제시할 자료는 또 다른 고형의 자료로, 위에서 언급한 여신 티야마트의 행적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이다.

1. 태초에 압수(지하수)와 티야마트(바다)가 있었다.
2. 이들이 물을 섞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라흐무와 라하무(진흙 같은 침적토), 안샤르(수평선), 키샤르(지평선), 아누(하늘신), 누딤무드(지하수신)이 태어났다.
3. 형제신들은 티야마트를 혼란스럽게 했다.
4. 티야마트는 압수가 자신의 사제자인 몸무를 앞세워 형제신들을 제거하려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압수와 몸무는 형제신을 죽일 방도를 계획하고, 이 사실이 형제신들에게 알려진다.
5. 에아가 압수를 죽이고, 압수를 자신의 성전으로 삼는다.
6. 마르둑이 비범하게 태어난다. 마르둑은 흙먼지를 만들어내고, 폭풍을 일게 한다.
7. 이것이 신들을 귀찮게 했고, 신들은 티야마트에게 부탁하여 폭풍을 일으킨 이들을 허깨비로 만들어달라 한다.
8. 티야마트는 11개의 괴물을 만들고, 키클을 높이 세워 전장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한다.
9. 에아는 아버지인 안샤르와 누딤무드의 허락을 얻어 마르둑을 총사령관으로 삼는다.
10. 마르둑은 티야마트를 퇴치하고, 별들을 지금의 모습대로 있도록 하

고, 해를 정하고 절기를 나누었다. 또 열두달을 만들었다. 하늘과 땅을 가르고, 키클을 죽여 사람을 만들었다.

11. 큰 신들이 하늘의 주관과 땅의 주권이 마르둑에게 있음을 확인한다.<sup>53)</sup>

위는 바빌로니아의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쉬』를 요약한 것이다. 마르둑의 바빌로니아 건설을 신성시 여기는 것이 목적인 신화이지만, 앞에서 살폈던 『가이아』 신화와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던 특성을 이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기에 이 자료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에누마엘리쉬』는 『가이아』 신화와 비슷하게 ‘높은 생산성을 지니고 있는 여신-이를 퇴치하려는 남신- 새로운 문화의 도래’라는 이야기 틀을 지니고 있다. 이 『에누마엘리쉬』에서 핵심적인 이항대립은 티야마트와 남신의 대립이다. 맨 처음 나타났던 대립은 티야마트와 압수의 대립이다. 『가이아』 신화에서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여신이 지니고 있는 힘을 제한하려는 남신의 움직임이다. 티야마트는 형제신들을 낳고, 11가지의 괴물을 낳는다. 형제신들은 자연현상을 나타내고 11가지의 괴물은 과도한 자연현상을 나타낸다.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추앙해야 할 대상은 형제신으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과도한 자연현상은 11가지 괴물로 나타났다. 티야마트가 형제신이나 11가지의 괴물은 아니지만, 티야마트가 생산한 결과물이 형제신과 11가지 괴물이므로 이들로 말미암아 티야마트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다. 티야마트가 지닌 생산성은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다. 이는 당대의 사고가 반영된 결과이다. 수렵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고, 초기의 농경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티야마트의 신성한 힘이 발현된 11가지의 괴물과 같은 자연현상은 인류의 농업을 끊임 없이 방해했고, 이는 기근을 낳았다. 이는 『가이아』 신화에서 등장한 티탄과 연관지어 생각해볼만 하다.

동시에 여신이 낳은 세상이 있어야 농사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티야마트의 아이들은 양면적인 특성을 띤다. 티야마트의 생산성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53) 조철수, 『수메르신화』, 서해문집, 2003, pp. 154-179

꼭 필요한 것이고 숭배받아야 할 마땅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한없이 두려우면서 경외하는 대상이었다.

이런 불완전한 자연환경을 다스리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마르독의 행위에 투영된 사고이다. 이러한 측면으로 보자면, 위에서 언급한 이항대립은 다른 성질로 변형된다. 여신과 남신의 대립에서, 여신인 티야마트는 죽음으로 남신인 마르독은 생명으로 그 성질이 변형된다. 티야마트가 지니고 있는 양면적인 성질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만 동시에 언제고 닥칠지 모르는 죽음을 수반한다. 티야마트가 지니고 있는 힘은 언제고 변동될지 모르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는 마르독이 정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티야마트와 마르독의 대결이다. 티야마트는 죽음을, 마르독은 생명의 향으로 대립해서 살필 수 있다. 이는 마르독이 티야마트와의 대결에서 이긴 후로 한 행위가 이를 입증해준다. 마르독은 별들을 지금의 모습대로 만들고, 열 두달과 절기를 지정한다. 또한 하늘과 땅을 나눈다. 이는 인류에게 해가 되었던 과잉이었던 자연현상을 바로잡음과 동시에 이 자연현상이 다시 과잉되지 못하도록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자연환경을 다스린다는 것은 인간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마르독의 행위는 인간의 관점으로 보기에 인간에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다.

『가이아』 신화, 『에누마엘리쉬』를 함께 살펴보면, 여신과 남신의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이것은 생산성을 지닌 여신과 여신의 생산성을 제한하기 위한 남신이 행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 대립은 남신의 승리로 끝나고, 이는 여성의 생산성을 제한하고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여신의 생산성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으로 제한되고, 남신은 이를 조정하는 존재로 자리하게 된다.

이를 『설문대할망』 이야기와 함께 대비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는 남신과의 대립이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설문대할망이 물장오리에 빠져죽는 것과 같이 은유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따름이다. 『가이아』 신화나 『에누마엘리쉬』에서 나타난 여신의 특성에 집중해서 살펴보자면, 『설문대할망』 이야기와 공통점이 나타난다. 바로 여신의 생산성이다. 『가이아』 신화와 『에누마엘리쉬』의 여신의 창조는 자연환경을 낳는 것이다. 『가이아』 신화에서는 가이아가

히페리온(Hyperion, 태양), 포이베(Phoib, 달), 우라노스 (Ouranos, 천국·하늘)를 낳고, 『에누마엘리쉬』에서의 티야마트는 라호무와 라하무(진흙 같은 침적토), 안샤르(수평선), 키샤르(지평선), 아누(하늘신), 누딤무드(지하수신)와 같은 신들을 낳았다. 이들은 인간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자연환경이다.

이는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 설문대할망이 배설로 바다와 오름을 낳는 것과 상통한다. 『가이아』신화의 가이아와 『에누마엘리쉬』의 티야마트가 하는 행위는 생산이고, 설문대할망의 행위는 배설이라는 측면에서 전자와 후자가 다르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이 둘의 함의는 비슷하다. 위에도 언급했다시피, 설문대할망의 배설은 설문대할망의 거근의 의미를 함의한다. 위에 제시한 굿상망오름이 생겨난 내력이 있는 자료는 이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이 자료에서 설문대할망은 수수범벅을 먹고, 오름으로 변화시킨다. 먹는 것에서 자연환경으로의 변환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 설문대할망이고, 이는 설문대할망이 새로운 것을 창조했다는 관점에서 위의 두 신화와 맥락을 함께한다.

또한 『가이아』신화와 『에누마엘리쉬』는 모계사회와 부계사회의 충돌이 나타난 신화이다. 모계사회와 부계사회와의 충돌, 즉 여신과 남신의 대립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만을 조명하면, 『가이아』신화의 가이아와 『에누마엘리쉬』의 티야마트가 자연물을 낳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자연물이 의지를 가지고 인격신으로 대별되는 것은 여신과 남신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벌어진다. 그 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굿상망오름이 생겨난 내력의 자료는 여신과 남신의 충돌이 있기 전, 여신이 자연물을 만들어냈을 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이다. 이는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아』신화, 『에누마엘리쉬』에서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들이 주로 향유되던 시대에서는 이런 인식이 인류가 세계의 생성에 대한 사고를 구성하는 발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세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던 시대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이 시대의 산물임을 이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의 자료는 『설문대할망』 이야기 중에서 설문대할망이 설문대하르방과 같이 등장하는 자료이다.

설문대 하루방광 설문대 할망은 부배가 되영 사넨디 설문대 할망은 아  
덜 오백 성지를 보고(놓고) 스뭇(매우) 괴기가 먹고 싶어서 하루방꺠라(보  
고, 예게) 어서 바당에 네레가서 괴기 심으레(잡으러) 가자 호고 항께 바  
당데레 느레갓수다.

하루방은 할망꺠라 “난 절로 강 괴길 다들리커매(쫓을 터이니) 할망은  
소중기(속곳을) 벗엉(벗고서) 하문을 올양(열고서) 앓아시런(앓아있거라)”  
호고서 바당 쏘곱에 신(바다 속에 있는) 괴길 다올리는데, 셋놈(쫓)으로  
영덕마다(바위 굴 속마다) 질으명(찌르며, 쭈시며) 이 궁기 저 궁기(이 구  
멍 저 구멍) 들썩들썩 숙대겨 가난(쭈셔서 가니) 바당 괴기(바다의 고기)  
들이 혼 어이에(한순간에) 매딱(모두 다) 설문대 할망 하문테레(下門으로)  
기여 들어갓수다.

설문대 할망은 괴기들이 거저 문(모두 다) 들어온 만호난 하문을 뚝기  
(따악) 중간에(잡고) 바당서 나와서 핏 싸놓난(풀어 싸놓으니까) 수수백  
섬이 나왔수다. 설문대 하루방광 설문대 할망은 그 괴길호때에 문 꿇여묵  
인 삼천삼백 연을 살엇께 홉니다.<sup>54)</sup>

설문대할망이 거근을 이용해서 사냥을 해서 먹는다는 것은 설문대할망의 생산  
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성의 생식력은 음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음문을 통해  
여성은 후대를 생산한다. 따라서 여신의 생산력이 응집되어 있는 기관은 음문이라  
할 수 있다. 여신이 지닌 창조의 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눈으로 보이게끔 가  
시적으로 나타내는 장치가 거근이다.

사냥은 수렵시대의 식량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이고, 수확이다. 여성의 생식력을  
잘 나타낸 음문으로 수확을 한다.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의 성행위적인 묘사  
를 통해 여신의 풍부한 생식력에 기대어 자손을 생산하는 것처럼, 먹을 것도 비옥  
해지길 기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원이 설문대할망이 거대한 음문으로 고기를 사  
냥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동시에 거인신화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설문대할망이 물고  
기를 사냥할 수 있을만큼의 거대한 거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설문대할망이 거인

54)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9, 평민사, 1992, pp. 279-280

신이기 때문이다.

설문대하르방의 등장은 설문대할망이 신성성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위의 자료는 설문대할망이 독자적으로 사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위의 자료를 사냥으로 인한 수확의 결실이 크기를 바라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설문대할망의 독자적인 생산력만으로도 충분한 기원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설문대할망은 설문대하르방의 대우신이 되었다. 독자적인 기원의 대상이었던 설문대할망은 설문대하르방과 같이 기원해야 할 대상이 된 것이다. 또한 위 자료에서 설문대할망은 섭지코지라는 곳에 가서 스스로 사냥을 하는데, 설문대하르방과 설문대할망이 같이 나온 자료에서는 사냥은 설문대하르방의 주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신이 주도적이었던 모습에서 남성신이 등장하면서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바뀐 것이다. 설문대하르방의 목적에 따라 설문대할망이 부수적인 존재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가이아』 신화나 『에누마엘리쉬』의 남성신으로 설문대하르방을 이해하기 어렵다. 설문대하르방은 문화적인 행위를 통해 사회를 정립하는 행위를 하진 않는다. 문화영웅의 면모나 창세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설문대하르방은 단지 설문대할망과 같이 고기를 잡을 뿐이다. 이때의 설문대하르방은 기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남녀의 성행위를 사냥의 풍요와 연결시키는 사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당대 사람들의 전체론적인 사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북돋을 수 있다는 사고를 보여준다.<sup>55)</sup> 설문대하르방과 설문대할망의 성행위와 사냥의 풍요는 연관되며, 성행위와 사냥의 풍요가 서로 다른 항목이지만 서로를 북돋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고가 여기서 드러난다.

---

55) 카렌 암스트롱, 같은 책, p. 50

### 3. 거인신화적 성격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오름과 한라산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들 수 있다. 이는 설문대할망의 거인신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는 이야기이다. 이번 절에서는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도 설문대할망이 거구를 이용해서 오름과 한라산을 만든 이야기를 살피고자 한다. 이때의 설문대할망의 면모는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설문대할망은 오름을 나르고 한라산을 만드는 등 신성한 거인의 면모를 보인다. 동시에 민중과 연계되는 세속적인 거인의 모습을 보인다.

먼저 신성한 면모를 보이는 오름과 한라산 창조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오름은 한라산을 만들려다가 떨어진 흙이기도 하고, 흙을 조금씩 옮겨다가 만든 것이기도 하다. 오름은 제주도에 여러 개가 있고, 그만큼 제주도민에게 친숙한 지형이다. 또한 한라산은 제주도의 중앙에 위치한 산으로, 제주도의 중심이다. 제주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라산을 떠올릴 만큼 제주도의 대표적인 지형물이다. 이를 보고 신성하다 여기는 것은 거석문화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한라산과 오름과 같은 거대한 자연물을 보고 신이한 창조라고 여기고, 이를 숭배하는 것이 거석문화의 핵심이다.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향유시기가 어느시기인지 대략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 나타난 거구를 이용해서 제주도의 지형을 창조하는 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5> 설문대할망의 거구를 이용한 지형 창조

설문대할망의 행위	결과
설문대할망이 흙을 날라 지형을 만들.	오름, 한라산 만들기
	다리 놓기
	백사장 만들기

마을은 중심이고, 마을을 기점으로 우주가 형성된다고 한다.<sup>56)</sup>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마을을 중심으로 인식하고, 이를 창조하게 된 내력을 말함으로써 마을이

56) 미르체아 엘리아데, 이동하 역, 『성과 속』, 학민사, 1983, 1-59

세워진 내력이 신성함을 보인다. 마을은 사람들의 세계의 전부이고, 이는 신들의 우주창조를 모방하여 세워진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제주도민에게 한라산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지형이며, 마을 우주의 중심을 상징하는 산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대할망이 흙을 날라 쌓은 결과로 만들어진 신성한 공간이 한라산과 오름이다. 이 이야기는 마을의 중심인 한라산과 익숙한 지형지물인 오름을 신성한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신성한 공간인 한라산과 오름이 생겨난 내력을 말하고, 마을의 신성함을 피하고 있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마을이 생겨난 내력을 이야기하고, 이를 말함으로써 마을 구성원의 공동체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sup>57)</sup> 이런 기능을 하는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신화로서 기능을 하고, 설문대할망은 신으로 기능을 한다.

설문대할망은 이렇게 키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옷을 해입지 못했다. 그래서 설문대할망은 제주 사람들에게 내 옷을 한 벌 해주면 내가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다. 제주 사람들은 그렇게 하자고 하고 제주에 있는 옷감을 모았다. 설문대할망은 조천(濟州牧 안의 동쪽에 있는 海村으로 옛날에는 제주 출입의 항구였다)에서부터 다리를 놓기 시작했다. 제주 사람은 제주에 있는 옷감을 모두 다 거두어서 옷을 지었는데, 겨우 설문대할망의 잠뱅이 밖에 못 만들었다. 그래서 설문대할망은 다리 놓기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설문대할망이 다리를 놓는데 조천 앞바다에 소나무를 수천 그루 깔았는데 그 소나무가 지금도 가끔 떠오른다고 한다.<sup>58)</sup>

이렇게 힘이 세고 체구가 큰 노파에게 큰 근심이 있었다. 너무나 체격이 커서 옷을 제대로 지어 입을 수 없었는데, 그것이 이 노파에게는 큰 걱정이었다. 하루는 제주 사람들을 불러 청했다. “당신네가 내 속옷을 한 벌 지어주면, 내가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주겠다.” 제주 사람들은 섬으로 바다 한가운데 외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불편했다.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하고서, 이 노파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노파의 체구가 크기 때

57) 김영희, 『구전이야기 연행과 공동체』, 민속원, 2013, pp. 159-167

58)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9, 평민사, 1992, pp. 277-279

문에, 그의 속옷 한 벌 짓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적어도 속옷을 한 벌 지으려면 명주 백 통(1통은 50필)은 있어야 했다.

그날부터 제주 사람들은 각자 집에 있는 명주를 다 모으기 시작했다. 온 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모았다. 그러나 명주는 99통 밖에 되지 않았다.

노파도 옷을 지어줄 것을 기대해서 조금씩 다리를 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국 명주가 조금 모자라서 옷을 지어줄 수 없었다. 노파는 다리 놓는 것을 중단해 버렸다. 지금 조천과 신촌 앞바다에 그 노파가 다리 놓던 흔적으로 바다 쪽으로 쪽 뻗어간 데가 있다고 한다.<sup>59)</sup>

위의 두 자료들은 『설문대할망』 이야기 중 설문대할망이 백성들을 위해 다리를 놓아주는 내용을 핵심서사로 하는 이야기들이다. 먼저 백성들이 설문대할망에게 다리를 놓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설문대할망이 다리를 놓는 것에 대한 대가를 제시한다. 그리고 대가가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 놓는 것을 실패하는 내용이다.

설문대할망이 요구한 대가는 속옷이다. 설문대할망이 옷을 입게 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설문대할망의 원래 지니고 있었던 능력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설문대할망은 거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성신이기도 하다. 이는 설문대할망이 지니고 있는 서로 다른 특성이다. 하지만 이 다른 특성이 맞물려 동일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바로 거인, 여성신이어서 풍부한 생산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속옷을 가리는 대상은 거근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설문대할망이 지니고 있는 힘은 설문대할망의 거근과 음문으로 표상된다. 거근은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거인신화와 여신신화의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준다. 여신으로서의 생산력과 거인으로서의 생산력이 맞물리는 것이 거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성들이 옷을 지어주는 것은 설문대할망이 원래 지니고 있던 면모에서 벗어나 새로운 면모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대할망이 지니고 있는 힘은 설문대할망의 거근과 음문으로 표상된다. 이를 가릴 속옷은 설문대할망의 원초적인 힘을 가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속옷을 지어입는 행위’는 설문대

59) 제주도청, 제주도 문화예술과, 『제주의 민속 III-구비전승』, 제주도청, 1995, pp. 43-44

할망의 신성이 훼손되는 일이다.

민중들이 의례의 일환으로 마련한 옷감과 옷이 오히려 설문대할망의 신성을 훼손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는 설문대할망이 만드는 대상이 다리이기 때문이다. 일반 민중들이 설문대할망에게 놓아달라고 요구했던 다리는 육지와 제주도를 잇는 다리다. 이는 설문대할망의 기존 창조와 다른 유형이다. 설문대할망은 하늘과 땅을 분리하거나 한라산과 오름을 만들었다. 이는 제주도 자체를 만드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앞의 창조와는 다르게 다리를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곳과의 연결을 뜻한다. 즉, 새로운 문화권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도와 육지의 문화가 충돌하고, 새로운 문화가 유입이 된다. 신앙 또한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설문대할망은 위의 설화에서 보여주듯 백성과 소통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신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문화권의 형성은 새로운 신앙의 유입이고, 민중들과 소통하며 형성되어 있었던 설문대할망의 신앙은 외래 신격에 의해 변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면에서 다리 놓기는 설문대할망의 신격을 훼손할 여지가 높다. 설문대할망이 다리 놓기를 그만두는 것은 설문대할망이 원래 가지고 있던 면모가 훼손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설문대할망의 다리 놓기’와 비슷한 자료로 아래의 자료가 있다.

표선면 해안의 백사장은 물이 깊어 풍파에 가옥이 침수하는 등 고생하였으며 아이들도 놀다가 빠져 죽었다고 한다. 할망이 명주로 속옷을 만들어주면 메꾸어준다고 하기에 백성들이 모아서 만들어주었더니 하룻밤 사이에 산의 나무를 베어다가 바다에 깔고 백사장을 만들어 주었다. 지금도 조수가 나간 뒤에 모래를 헤쳐 보면 붉은 나무가 보인다고 한다.<sup>60)</sup>

위의 자료는 설문대할망이 백사장을 메우는 행적이 드러나 있다. 앞의 다리 놓기 자료는 설문대할망이 대가가 부족해서 다리 놓는 것을 그만두지만, 이번에는 설문대할망에게 바쳐진 공물이 충분했고, 설문대할망은 표선면 해안의 백사장을

60)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2, pp. 8-9

만드는 데 성공한다.

두 자료의 핵심서사는 다리 놓기와 백사장 만들기로, 설문대할망이 힘을 쓰는 대상은 다르지만 행위의 과정(백성들의 도움 요청- 대가 제시- 대가의 완성도에 따라 성공과 실패 나뉘)은 비슷하다. 설문대할망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형을 창조하는 행위는 같으나, 두 자료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차이점은 두 가지이다. 백성들이 설문대할망에게 완성된 옷을 주는 것과 설문대할망이 무엇을 만들어 주는지의 차이이다.

앞서 다리를 놓는 것은 새로운 문화권의 유입이며 설문대할망의 신성함의 훼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설문대할망의 다리 놓기와 공물받기는 실패한다고 서술했었다. 하지만 위의 백사장 만들기는 설문대할망의 신성함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다. 우선 백사장은 표선면 해안에 있다. 육지와 제주도를 잇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설문대할망의 백사장을 메우는 행위는 마을 우주를 건설하는 과정 중에 하나이다. 설문대할망의 행위를 마을이 건설된 이유로 사유하고 있음이 위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다음의 자료는 설문대할망이 천지를 개벽하고, 오름을 만드는 내용이 있는 자료이다.

부뜰(불은) 게 아니고 전부 물바다로 보아서 하늘광 땅이 부뻗는다 친지 개벽할 때 아미영호여도(아무리 하여도) 열린 사름이 이실 거라 말이우다. 그 열린 사름이 누게가 열렸느냐 호민 아주 키 크고 쉰 사름이 딱 떼어서 하늘은 우테레(위로) 가게 호고 땅을 밋트로(밋으로) 호여서 호고 보니 여기 물바다로 살 수가 없으니 굶드로(가로) 돌아가명 후 파 올려서 제주도를 맨들었다 호는디 거 다 전설로 호는 말입쥬. [김영돈: 하, 다 바당이었는데 예.] 예. [김영돈: 또 속옷 이야기가 있던데 예?] 제주도에서, 속옷이 아니고 허리 허리만 당호여 주면은 목포레 가는 드릴(다리를) 뇌주겠다 (놓아 주겠다). 기연디(그런데) 그걸 호여 주질 못호여서 드릴 못 낫고(놓았고). 기여니 명지(명주)가 멧동이 드는지 알 게 뭐야 원, 워낙 커노니까. 기영호난 못 낫쥬(놓았지). 61)

천지개벽이 일어날 때, 설문대할망이 행했던 행적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흙을 퍼 올려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 행적과 같은 경우는 『설문대할망』 이야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야기들이다. 설문대할망이 거구를 이용해서 제주도의 지형을 창조했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다수 전승되고 있다. 설문대할망은 다리를 놓거나 배뇨와 배설을 통해 지형을 만든다.

이는 다른 나라의 신화와 비교될 만하다. 천지가 개벽할 때 거인이 주체가 되어 이를 행한다는 내용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신화소이다. 『설문대할망』 이야기와 비교하기에 적절한 신화가 있다. 『반고』 신화와 북유럽 신화의 『이미르』이다. 이들을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비교한다면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성격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반고』 신화의 서사단락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1. 하늘과 땅이 열리지 않았을 때, 반고는 계란 속에서 잠에서 깨어난다.
2. 반고는 도끼를 가져와 알을 부수자, 가볍고 맑은 것은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것은 땅이 되었다.
3. 반고는 하늘과 땅이 합쳐질까 두려워서 땅과 하늘을 받치고 있었다. 반고의 키는 매일 1장씩 커졌다. 이렇게 1만 8천년이 지나자 하늘은 지극히 높아졌고, 반고의 키도 아득하게 커졌다.
4. 오랜 세월이 지나 반고는 죽음을 맞이한다.
5. 반고가 죽자 반고의 몸은 숨은 바람이 되었고, 목소리는 우레로, 왼쪽 눈은 태양으로, 오른쪽 눈은 달로 변하였다. 그의 손발과 몸뚱이는 대지의 사극과 이름난 다섯 산으로 피부와 살은 비옥한 밭으로, 머리카락과 수염은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별들로, 피부와 그 위에 난 솜털은 풀과 나무로, 이와 골수 등은 번쩍거리는 금속과 단단한 암석과 아름다운 진주와 옥석으로 변했다. 땀도 만물을 운택하게 하는 비와 이슬과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로 변했다.<sup>62)</sup>

61)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p. 710

62) 김희영 편역, 『중국고대신화』, 육문사, 1993, pp. 9-11 요약.

『반고』 신화 자료에 뒤를 이어 북유럽신화의 『이미르』도 함께 다룰 만하다.

1. 세상엔 아무것도 없고, 단지 얼어붙을 듯이 추운 북쪽의 니플헤임과 타오를 듯이 무더운 남쪽의 무스펠이 있었다.
2. 니플헤임의 얼음과 무스펠의 불꽃이 만나는 지점에서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그 물에서 생명이 탄생하였다.
3. 이 생명은 이미르(Ymir)이고, 물이 녹으면서 암소 아우둠라(Audhumla)도 같이 탄생하였다.
4. 암소는 얼음을 핥아 부리(Buri)를 탄생시켰다.
5. 이미르는 암소의 젖을 먹으며 잠들었는데, 잠을 자던 중 거인들을 탄생시킨다.
6. 부리는 이미르의 자식들 중 여성 거인과 결혼하여 보르(Bor)를 낳고, 보르는 오딘(Odin), 빌리(Vili), 베(Ve)를 낳았다.
7. 오딘, 빌리, 베는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이미르를 죽였다.
8. 이미르의 시체에서 살은 흙이 되고, 뼈는 산과 절벽이 되었다. 치아와 뺨조각은 바위, 조약돌, 모래, 자갈등이 되었고, 피와 땅은 바다가 되었으며, 두개골은 하늘이 되었다.<sup>63)</sup>

위 요약본은 중국의 『반고』 신화와 북유럽의 『이미르』 신화이다. 반고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고, 반고의 키가 자라나 하늘과 땅의 거리를 넓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반고의 시체가 화생하여 바람, 우레, 태양, 달등으로 변한다. 이미르는 오딘, 빌리, 베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미르의 시체는 화생되어 세상을 세우게 된다. 반고와는 달리 자신의 의지로 세상을 떨어뜨려 놓는 것은 아니지만, 거인의 몸이 천지를 개벽하고, 세상 만물을 만들어냈다는 사고는 『반고』 신화의 신화소와 그 맥락을 함께한다.

『반고』 신화와 『이미르』 신화는 『설문대할망』 이야기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특성을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표로 특성을 나타내

63) 닐 게이먼, 박선령 옮김, 『북유럽신화』, 나무의 철학, 2017, pp. 21-28

어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표에서는 『반고』 신화와 『이미르』 신화를 『설문대할망』 이야기와 비교하면서, 위에서 다루었던 『가이아』 신화와 『에누마엘리쉬』를 또한 함께 다루고자 한다.

<표6> 『설문대할망』 이야기와 외국의 거인신화 비교

핵심화소	천지개벽	하늘과 땅을 지탱하기	거근으로 자연환경 만들기	시체 화생소	죽음 뒤 결과
『반고』 신화	○	○	×	○	○
『이미르』 신화	○	×	×	○	○
『에누마엘리쉬』의 티야마트	○	×	○	○	○
『가이아』 신화	○	×	○	×	×
『설문대할망』 이야기	○	×	○	×	×

위의 표는 『반고』, 『이미르』 신화, 『가이아』 신화, 『에누마엘리쉬』의 티야마트,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표로 정리해놓은 것이다. 위의 창세신화들 모두 천지개벽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항이다. ‘하늘과 땅을 지탱하기’ 항부터 위 신화들의 차이점이 돋보이기 시작한다. 하늘과 땅을 지탱하는 『반고』 신화와는 달리 『이미르』 신화, 『가이아』 신화, 『에누마엘리쉬』의 티야마트,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하늘과 땅을 지탱하지 않는다. 위 다섯 신화는 모두 이 세상을 이루는 것을 창조하는 신화소가 담겨있다. 창조의 방법으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거근으로 자연환경 만들기’ 이고, 두 번째 방법이 ‘시체화생소’이다.

『반고』 신화와 『이미르』 신화와 같은 경우는 거인의 성별이 모호하다. 『이미르』 신화는 이미르의 성별을 남자도 여자도 아닌 것으로 말하고 있고, 『반고』 신화는 성별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고』 신화와 『이미르』 신화는 거근으로 자연환경을 만들 수 없다. 거근으로 무언가를 생산하는 것은 여신이 지닌 독자적인 생산력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가이아』 신화와 『에누마엘리쉬』의 티야마트,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는 거근으로 지형지물을 생산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여신의 독자적인 생산력이 나타난 결과이다.

그 다음은 ‘시체화생소’ 향이다. 이는 『반고』 신화와 『이미르』 신화가 해당된다. 『반고』 신화는 창세신화이다. 반고는 알을 깨고 나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는데, 이는 난생신화의 특성이다. 이 알이 우주를 상징한다고 하며, 반고의 큰 키가 인간의 머리와 사지 및 오장육부가 하나의 축소된 소우주라는 개념에서 반고의 큰 키를 이해할 수 있다. 반고가 온 몸을 펴서 천지 사이를 위 아래로 넓히는 행위는 인간의 본체가 우주를 확장시키는 인본주의와 부합된다고 하며, 시체화생소를 통해 인간 스스로를 자연 생태계와 동일하게 간주하는 사고를 찾아볼 수 있다. 사람의 죽음으로 생태계가 순환하는 과정을 시체화생소를 통해 나타낸다고 이해된다.<sup>64)</sup> 이는 『이미르』 신화 또한 마찬가지이다. 시체를 통한 창조를 행하고, 이것이 세계를 형성하는 근원이 되었다는 점은 『반고』 신화와 동일하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에누마엘리쉬』의 티야마트이다.

위에서 ‘거근으로 자연환경 만들기’는 여신의 독자적인 생산력을 보여주는 향이라고 언급했었다. 따라서 성별이 모호한 이미르와 반고는 이런 특성이 나타나기 어렵다. 그렇다면, 티야마트는 왜 거근으로 자연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시체화생소도 가능한 것일까? 이는 『에누마엘리쉬』의 성격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에누마엘리쉬』는 바빌로니아 창건을 신성시 여기는 내용으로 귀결된다. 마르둑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주권이 하늘과 땅에 모두 이를만큼 신성한 것으로 칭송하는 것에 신화의 목적이 있다.

이런 마르둑의 신성화를 위해 티야마트는 괴물로 변모한다. 여신이 속화하여 퇴치되어야 할 괴물로 나타내졌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모계집단과 부계집단의 싸움에서 더욱 문명적인 발전을 이루어낸 부계집단의 승리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티야마트는 원래 가졌던 여신의 면모와 위의 반고와는 다른 맥락으로 퇴치되어야 할 괴물(거인)의 모습을 함께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티야마트가 ‘거근으로 자연환경 만들기’, ‘시체화생소’라는 두가지 창조 방법을 갖게 된 연유이다. 시체화생소뒤에는 당연히 세상이 만들어진 결과가 따르고, 시체화생소가 없는 신화에서는 죽음이 나타나지 않거나(가이아), 죽음 뒤 결과가 따로 나타나지 않는다.

64) 김낙철, 「반고, 여왜, 복희 신화의 문화 코드 고찰」, 『中語中文學』 63호, 2016. pp. 72-74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는 『반고』 신화와 『이미르』 신화에서 나타난 시체화생소항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설문대할망이 배설을 하거나 산과 오름을 만든 것에서 위 『반고』 신화와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반고』 신화의 시체화생소는 인간이 죽고, 죽은 뒤에 끝난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서 시체는 없어지지만 새로운 식물과 동물의 먹이가 되는 순환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 설문대할망은 배설을 하여 오름을 만드는 자료에서 먹는 것과 배설물 사이에 나타난 순환의 과정으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반고신화』와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공통점을 찾기 힘들다. 시체화생소와 배설사이의 언뜻 보아서는 관계가 별로 없어보인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것이 『하이누웰레신화』이다.

1. 아메타는 사냥을 하던 중, 돼지의 어금니에서 코코넛을 발견하였다.
2. 아메타는 코코넛을 심고, 15일 후에 야자나무 위로 올라가보았는데, 작은 소녀가 태어나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날 조심스럽게 소녀를 감싸서 내려왔다. 이 소녀를 하이누웰레라 불렀다.
3. 소녀는 매우 빨리 자라 3일뒤에 벌써 결혼할 수 있는 젊은 처녀가 되었다. 하이누웰레가 배설할 때마다 값비싼 물건들이 나왔다.
4. 마로 축제가 열리는 9일 동안, 8일간 하이누웰레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귀중한 물건을 나누어 주었다.
5. 아홉 번째 밤, 하이누웰레는 마로 축제 한 가운데 생매장당하고 사람들은 그녀가 묻힌 곳 위에서 춤을 춘다.
6. 아메타는 하이누웰레가 살해당한 것을 알고, 하이누웰레의 시신을 조각 조각 잘라 땅에 묻었다.
7. 하지만 하이누웰레의 두 팔은 묻지 않고 바나나에서 태어난 소녀 물루아 사테네에게로 가지고 갔다.
8. 하이누웰레의 시신에서 구근작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소녀의 위는 단지가 되고, 허파에서는 우비 열매종류인 아인테 라투 파이테가 생기고, 다른 가슴에서는 우비 열매 종류인 아인테 바바우가 생겨났다. 음부에서는 아주 냄새가 좋고 맛이 있는 밝은 보랏빛 아인테 모니가 생겨났다. 엉덩

이에서는 바삭 마른 껍질이 있는 아인테 카 오쿠가 생겨났다. 귀에서는 아인테 켈리엘라가 생겨났다. 발은 아인테 자사네가 되었으며, 허벅다리는 커다란 우비인 아인테 외부부아가 되었다. 머리는 우쿠가 되었다.<sup>65)</sup>

위에 제시된 것은 『하이누웰레』 신화에서 본 논문과 관련있는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핵심내용은 하이누웰레가 배설로 귀중한 물건을 만들어내고, 죽어서 구근 작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배설이 새로운 창조가 되고, 사체가 화생하여 새로운 식물의 기원이 되는 이야기가 한 이야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시대적 변이를 겪으면서 신성하던 이야기가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희화화되었지만, 본래는 신성한 행위였으며, 사람들의 인식이 배설을 청결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을 바꾸어나가면서, 그에 따른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배설도 희화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거인은 인간의 몸과 유사하다. 다른 것은 인간과 같은 신체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크기가 크다는 점에서 대별된다. 배설을 하여 대지를 만드는 행위는 거인이라는 신성한 몸을 기반으로 우주의 섭리를 이해하려 하는 신화적 사고였다. 이는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아』 신화, 『에누마 엘리쉬』, 『반고』 신화, 『이미르』 신화 에서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들이 주로 향유되던 시대에서는 이런 인식이 인류가 세계의 생성에 대한 사고를 구성하는 발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다섯 신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던 시대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이 시대의 산물임을 이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 면모인 세속적 거인이다. 세속적인 거인은 위에서 언급한 거인과는 달리 인간의 생활상과 거인의 생활상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민중의 일반생활상과 별로 다르지 않는 모습을 영위하고, 이러한 것이 지형지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성산면 성산리 일출봉에는 높이 솟은 바위에 다시 큰 바위를 얹어 놓은

65) 아돌프 엘레가르트 엔젠·헤르만 니게마이어, 이해정 옮김, 『하이누웰레 신화』, 뮤진트리, 2014, pp. 109-115 요약.

듯한 기암이 있다. 이는 설명두할머니가 길삼을 할 때 접시불을 켜던 등잔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위에 다시 바위를 올려 놓지 않았는데, 불을 켜 보니 등잔이 얇으므로 다시 바위를 하나 올려 놓아 등잔을 높였다고 한다. 등잔으로 썼다고 하여 등경돌(燈檠石)이라 한다.<sup>66)</sup>

위와 같은 이야기는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유형중 하나이다. 설문대할망이 거인이지만 민중들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위 자료에서 잘 드러나 있다. 일반 여인들의 생활상이다. 이는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민중들의 삶 속에서 전승되었음을 드러낸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전승하는 집단이 거인은 보통의 인간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지만, 인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였음을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지닌 성격을 살펴보았다. III장 1절에서는 II장의 논의했던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자료 존재 양상과 중요 화소를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특성이 일반신화로 해당될 수 있음을 서술하였다.

이것을 2절에서는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여신신화, 거인신화적 특성을 밝히고, 토대로 이러한 일반신화가 세계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밝혔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

66)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pp.22-26

## IV.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의의

현재 구전과 문헌으로 전승되고 있는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여성신, 거인신으로 위상이 높았던 설문대할망이 속화되고, 신성성이 약화된 결과물이다. 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II장에서는 『설문대할망』 이야기에 등장하는 설문대할망의 행적을 표로 분리하고, 핵심화소를 찾아냈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구성하는 핵심화소를 토대로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층위를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창세신 : 천지분리
2. 신성한 거인신·여신 : 한라산과 오름을 창조
3. 세속적 거인·여신 : 일반민중과 같은 생활 영위
4. 설문대할망의 신의 속화 : 물장오리에서 빠져 죽음, 오백장군의 어머니로 위치

설문대할망은 지형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격이었고, 이 설문대할망이 한라산이나 오름을 창조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거석문화가 향유되던 시기에 향유되던 신화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거석문화는 거석을 숭배하는 문화이다. 거대한 자연물을 숭배하는 것이 그 문화의 핵심적인 면모라 할 수 있다.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 설문대할망이 한라산과 오름을 만들었다는 것은 한라산과 오름도 신성한 법칙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한라산과 오름이 창조된 내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신에 의한 창조이다. 따라서 거석문화와 지형 창조는 일정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신성한 거인신 또는 여신으로서 기능하는 설문대할망은 점점 신성함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빨래를 하거나 베개에 누워 자는 등, 일반민중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이 드러남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설문대할망이 세속적인 거인과 여신으로 나타남을 말한다.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민중들 사이에서 전승되고, 영향을 받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지녔던 신으로서의 성질이 변모한 것이 마지막 4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는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 설문대할망이 본래 자신이 지녔던 신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물장오리에 빠져 죽는다는 것은 신으로서의 기능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오백장군의 어머니로의 위치로 자리하게 되는 것은 더 이상 설문대할망이 단일한 신격으로 존재할 수 없고, 남성신의 부수적인 위치에 놓여지게 됨을 의미한다.

Ⅲ장 1절 일반신화에서는 『천지왕본풀이』와의 비교를 통해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특징을 살폈었다. 『천지왕본풀이』의 가장 큰 특징은 인류의 문명을 이룩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이 말이 통하고, 죽은 자와 산 자의 분별이 없다가 분별이 생긴다. 인류가 문명을 이룩하면서, 자연의 법칙과는 다른 인류만의 독자적인 법칙을 세우는 모습이 『천지왕본풀이』에서 드러난다. 일정한 법칙으로 자연을 다루고, 개간하는 문화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천지왕본풀이』는 의례가 행해지면서 구연되는 신화이다. 이러한 의례는 원초적인 창조가 다시 되풀이 될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 한다. 마르두크가 티야마트를 처치하고, 키클의 피로 인류를 만드는 것이 바빌로니아 축제 기간 동안 여러 번 낭독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재현하는 행위라고 한다.<sup>67)</sup> 이를 행하는 것이 사제자이다. 사제자는 성스러운 공간과 속된 공간을 잇는 행위자로서 기능한다. 『천지왕본풀이』가 등장한 문명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문명이다.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중심이 되어 이룩한 것이기에 이는 부차적인 설명일 수 있지만, 『설문대할망』 이야기와 대별해서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특성을 살피기에 는 이 개념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등장하는 모습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는 인간의 무리가 등장하지만 인간이 자연물을 분별하고 가공하는 모습은 거치지 않는다. 그러한 행위를 기원하긴 하지만, 이는 위에서 다루었던 다리놓기와 같이 설문대할망의 신성을 믿고 기원하는 행위이지 자연물을 인위적으로 가공하려는 의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향유되던 때는 이러한 문명의 발달이 있던 시기는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67) 캐서린 벨, 류성민 옮김, 『의례의 이해』,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7, pp. 51- 52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향유되던 시기는 『천지왕본풀이』가 향유되던 시기의 이전의 이전이라는 것이 명확하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설문대할망이 원래 가졌던 신격이 변질되어 죽음을 맞이하거나 다른 남성신의 부속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시대는 황혼을 고한 것이 명확하다. 이렇게 쇠락하는 모습이 『설문대할망』 이야기에 나타나는 이유는 『천지왕본풀이』와 같은 무당 신화와 대립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숭앙받을 신격은 『설문대할망』 이야기에 등장하는 설문대할망과 같은 거인이 아니라 농사에 꼭 필요한 태양이나 강우등을 조정하는 신격, 인간의 탄생을 주관하는 신격, 인간의 운세와 관련된 신격과 같이 인간사회에서 필요한 신격들이 숭앙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설문대할망은 물장오리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단일한 신격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남신(오백장군)의 어머니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등, 설문대할망이 원래 지녔던 신격에서 그 성질이 변모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것은 『가이아』 신화, 『이미르』 신화, 『반고』 신화, 『에누마엘리쉬』에서도 나타나는 양상이다. 일반신화에 숭앙받던 신으로 분류되던 가이아나 티야마트, 이미르, 반고는 신격이 변화되고, 신성이 약화된다. 가이아는 단일한 창조를 하던 신격에서 남성신의 어머니의 위치로 위치하게 되고, 티야마트는 퇴치해야 할 괴물로 변모하였다. 또한 이미르는 시체는 오딘에 의해 세상을 만들 재료로 전락한다. 신격의 변이가 있었고, 이것이 후대의 신들의 위상을 말하기 위한 발판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가이아』 신화의 가이아의 후속세대는 제우스를 예로 들 수 있다. 제우스의 하위 신들은 가정의 신, 농사의 신 등과 같이 인간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들이 등장한다. 또한 『에누마엘리쉬』의 마루дук도 농사에 꼭 필요한 절기와 새로운 문명을 세우는 등, 인간의 문명이 발전됨에 따라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재하는 신격이다. 이러한 현상은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향유되던 시대의 신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한다.

## V. 결론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제주도의 지형지물과 연관되어, 그 기원과 유래를 밝히는 자료들로 주로 전승되고 있다. 이는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지녔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상을 잘 말해준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향유하던 집단은 세계가 운행되는 원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그 사유의 결과가 『설문대할망』 이야기이다.

하지만,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그 신화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제주도 무당신화에서 그 모습을 뚜렷이 찾기 힘들다. 왜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중요한 신화적 위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당신화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니고 이 논문을 작성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문대할망』 이야기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하기 위해, II장을 통해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자료의 핵심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폈다. 신화소를 도출해내고, 그 신화소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개괄적으로 다루었다. 그것을 III장의 논의를 위한 분석의 발판으로 삼았다.

III장 1절의 일반신화적 특성을 통해 서론에서 제기한 의문점을 풀었다. 제주도 무당신화에서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자취를 찾기 어려운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설문대할망과 무당신화의 신격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사람들의 문화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기 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신앙이다. 원래는 위세가 드높던 신이었으나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파편화된 채로 여러 문화단계들을 거쳐 왔고, 그 결과가 『설문대할망』 이야기 속에 누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설문대할망이 오름과 한라산을 만든 이야기는 한라산 꼭대기를 손으로 뽑아버렸다는 이야기에서 한라산과 오름을 만들 때 치마를 이용해서 흙을 퍼올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삼을 이용해서 이야기로 변모된다. 이는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설문대할망의 거인적인 면모가 인류 문화 발달 단계에 따라 점점 사람과 비슷해져가고, 원래 가지고 있던 원초적인 힘을 잃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설문대할망은 거인신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물장오리에 빠져서 죽고 만다. 이는 설문대할망의 신성이 종말을 고했음을 단편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의 핵심화소이다.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도덕적인 질서가 하늘로 재편되기 이전의 신화인 것이 분명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회적인 질서가 성립되기 이전 신화이라는 것이 명확하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도덕적 가치 준거 이전의 일반상을 구현하는 신화이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전승되고, 그러한 성격이 설화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또한 사제자의 존재가 필요 없이, 신에게 일반민중들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천지왕본풀이』와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간략하게 비교하였다. 무당신화의 일환으로 『천지왕본풀이』를 위에서 예로 들어 살펴보았다. 『천지왕본풀이』는 심방이라는 사제자 집단이 전하는 무당신화로, 『천지왕본풀이』는 굿이라는 의례 속에서 행해지고, 사제자의 존재가 필수불가하다. 사제자는 『천지왕본풀이』의 전승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내용상의 변화가 거의 없고, 서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장형의 형태로 신화가 전승되어 내려오는 양상을 살필 수 있었다.

하지만 설문대할망에서는 사제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일반 민중이 직접적으로 설문대할망에게 공물을 헌사하고 있고, 설문대할망이 직접적으로 일반민중의 소리를 듣고 있다. 신을 숭앙하는 방식에서 두 신화는 큰 차이를 보인다. 성과 속의 경계를 잇는 자들이 사제자이고, 『천지왕본풀이』를 구현함으로써, 신과 소통한다. 이는 사제자들에게 권력을 부여한다.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설문대할망은 여신이자 거인이다. 여신신화, 거인신화의 특성으로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특성이 제주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향유되었다고 생각되는 신화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특징을 확연히 하고, 이 시대의 거인신화, 여신신화의 핵심적인 특성을 도출해내었다. 이런 신화가 인류의 문화사에서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이고, 이 시대가 거석문화를 향유했던 시대라고 상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거석문화가 한라산과 오름을 창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지형지물을 보면서 설문대할망의 신성함을 떠올리고, 숭앙하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논문

- 강진옥, 「'마고할미'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25호, 1993.
- 권태효, 「거인설화의 전승양상과 변이유형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_\_\_\_\_, 「지형창조 거인설화의 성격과 본질」, 『탐라문화』 46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4.
- \_\_\_\_\_, 「거인설화적 관점에서 본 산이동설화의 성격과 변이」, 『구비문학연구』, 4권 4호, 1997.
- 김인희, 「거녀설화의 구조와 기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 김영경, 「거인형 설화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김현선, 「제주도의 신화와 서사시 연구」, 『탐라문화』 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원, 2008.
- \_\_\_\_\_, 「세계 돌신화의 분포와 변이」, 『세계로 나아가는 제주도의 굿과 신화, 그리고 신화관』,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2014.
- 김낙철, 「반고, 여왜, 복희 신화의 문화 코드 고찰」, 『中語中文學』 63호, 2016.
- 김순자, 「'설문대할망'과 그 別稱」, 『탐라문화』, 37권 37호, 2010.
- 문영미, 「설문대할망 설화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박종성, 「비교신화의 관점에서 본 설문대할망」, 『구비문학연구』 31호, 2010.
- 이부희, 「구비설화에 나타난 식인 모티브의 양상과 의미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7.
- 윤혜신, 「어머니신을 낳은 신화적 주체의 시선과 표현 방식」, 『구비문학연구』, 37권, 한국구비문학회, 2013.
- 임동권, 「설문대할망 설화고」, 『제주도』 17, 1967.
-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 \_\_\_\_\_, 『한국문화사대계』 5,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67.
- \_\_\_\_\_, 『풀어 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장주근저작집간행위원회, 『한국의 신화 풀어쓴 한국의 신화-신화편』, 민속원, 2013.

전영준, 「탐라신화에 보이는 여성성의 역사문화적 의미」, 『동국사학』 61권,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6.

조동일·김현선, 「세계신화의 지사학을 위한 제주도의 기여」, 『신화의 보물섬 제주, 제주 신화의 성격과 세계적 위상』,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 연구센터, 2016.

조현설, 「마고할미·개양할미·설문대할망」, 『민족문화사연구』 41호, 민족문화학회·민족문화사 연구소, 2009.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76.

허남춘, 「설문대할망의 창세신적 특성 -주변민족 거인신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설문대할망과 제주 신화』, 민속원, 2014.

허남춘, 「제주도 본풀이의 원시 고대 중세적 특성과 변모」, 『탐라문화』 38, 2011.

허남춘, 「할망, 그리고 성모·노고·할미」, 『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 민속원, 2014.

## 단행본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권태효, 『한국의 거인설화』, 역락, 2002.

김영희, 『구전이야기 연행과 공동체』, 민속원, 2013.

김희영 편역, 『중국고대신화』, 육문사, 1993.

손진태 번역·김현선 외 역, 『한국 민화에 대하여』, 도서출판 역락, 2000.

송정화, 『중국여신연구』, 민음사, 2007.

조철수, 『수메르신화』, 서해문집, 2003.

조현설, 『마고할미 신화 연구』, 민속원, 2013.

허남춘, 『설문대할망과 제주신화』, 민속원, 2017.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도서출판 각, 2007.

아돌프 엘레가르트 옌젠·헤르만 니게마이어, 이혜정 옮김, 『하이누웰레 신화』, 뮤진트리, 2014.

Diane Wolkstein, 「Interpretations of Inanna's Stories and Hymns」, 『Inanna Queen of Heaven and Earth, Her Stories and Hymns from Sumer』, New York,

Harper & Row, 1817.

J.F. 비얼레인, 현준만 옮김, 『세계의 유사신화』, 세종서적, 1996.

조지프 캠벨, 구학서 번역, 『여신들』, 청아출판사, 1979.

조지프 캠벨, 이진구 번역, 『신의 가면 I : 원시신화』, 까치글방, 1977.

조지프 캠벨,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1999.

카렌 암스트롱, 이다희 옮김·이윤기 감수, 『신화의 역사』, 문학동네, 2005.

캐서린 벨, 류성민 옮김, 『의례의 이해』,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7.

뤼시앙 레비브뤼, 김종우 번역, 『원시인의 정신세계』, 나남, 2011.

미르체아 엘리아데, 이은봉 역, 『종교형태론』, 한길사, 1996.

\_\_\_\_\_, 『성과 속』, 학민사, 1983.

\_\_\_\_\_, 이재실 번역, 『이미지와 상징 : 주술적 · 종교적 상징체계에 관한 시론』, 까치글방, 2013.

닐 게이먼, 박선령 옮김, 『북유럽신화』, 나무의 철학, 2017.

## <부록>

### 설문대할망에 대한 자료 정리

#### 1. 오백장군(五百將軍 · 靈室奇岩)

진성기, 『(제주도)전설』, 서울; 백록, 1991, pp. 181-182

핵심화소 : 오백형제.

한라산 서남쪽 중턱에 오백장군이라는 기암(奇岩)이 늘어서 있었는데, 실은 사백 구십 구 장군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옛날에 설문대할망이 아들 오백 형제를 거느리고 살았다. 하루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들이 도둑질을 나갔다. 어머니는 아들들이 돌아오면 먹이려고 죽을 쑤다가, 잘못하여 그 커다란 가마솥에 빠지고 말았다.

아들들은 그럴 줄도 모르고, 돌아오자마자 죽을 쑤 먹기 시작하였다. 여느 때 없이 죽맛이 좋았다. 그런데, 맨 나중에 들어온 아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죽맛이 갑자기 좋아질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국자로 죽솥을 휘저었다. 뭔가 국자 끝에 걸리었다. 빠다귀였다. 계속해서 휘저었다. 그러자, 사람의 두개골 같아 보이는 해골이 나왔다. 그리고보니, 어머니가 보이진 않았다. 어머니는 죽을 휘젓다가 빠져 죽었음에 틀림없다. 막내는 치를 떨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런 줄도 모르도 죽을 먹어 치운 더러운 형들과는 함께 못 살겠다면서, 혼자서 차귀섬(한경면 고산 죽도)으로 가 버렸다(一說에는 아버지가 죽었다고도 함).

형들은 날이면 날마다 멀리서 어머니를 그리며 울다 보니 화석으로 굳어져 버렸다.

그 후에 어떤 사람이 육수장에 선산을 정하려고 정시(풍수사)를 불렀다. 정시는 자리가 좋기는 하나 차귀섬 앞에 오백 장군이 비취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였다. 화가 난 상주는 즉시 차귀섬으로 건너가 도끼로 오백 장군을 찍어 내렸다. 찍힌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렸으며 지금도 이 오백 장군 위에는 오목한 상처가 나 있다 한다.

그런데 한란산 중턱(영실기암)의 오백 장군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 별안간 안개, 구름이 덮이어 지척을 분간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때에 별안간 안개, 구름이 덮이어 지척을 분간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때에 죽술에 빠져 죽은 설문대할망이 성을 내는 탓이라고 한다.

<1956년 11월. 한경면 고산리. 강민원>

## 2. 설문대할망

진성기, 『남국의 전설』, 서울; 백록, 1981, pp. 22-23

핵심화소 : 한라산, 오름만들기, 싯섬 바위 구멍, 다리놓기 실패, 물장오리.

오백장군의 어머니 설문대할망은 굉장히 키가 클 뿐만 아니라 힘도 세었다. 흙을 파서 삽으로 일곱 번 떠 던진 것이 한라산이 되었으며, 도내(道內) 여러 곳의 산들은 다 할머니가 신고 있던 나막신에서 떨어진 한 덩이의 흙들이다. 그리고, 오백 형제나 되는 많은 아들을 거느리고 살았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흉년이 든 어느 해, 아들들이 도둑질하러 다 나가 버렸다. 아버지는 아들들이 돌아오면 먹이려고 죽을 쑤다가 잘못하여 그 커다란 가마솥에 빠지고 말았다. 아들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돌아오자마자 죽을 퍼먹기 시작하였다. 어느 때 없이 죽맛이 참으로 좋았다. 그런데, 맨 나중에 돌아온 아들은 이상하게 여겼다. 죽맛이 갑자기 좋아질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국자로 죽술을 휘저었다. 뭔가 국자 끝에 걸리었다. 빼다귀였다. 계속해서 휘저었다. 그러자, 사람의 두개골 같아 보이는 뼈가 나왔다. 그리고 보니, 아버지가 보이질 않았다. 아버지가 죽을 휘젓다가 빠져 죽었음이 틀림없었다.

그래, 그들은 날이면 날마다 멀리서 아버지를 그리며 울다보니 화석으로 굳어져 버렸다.

그리하여, 남편과 또 그 많은 아들들을 잃어버린 설문대할망은 홀몸이 되었다. 이제 갈 데도 올 데도 없는 단신이라 만단수심(萬端愁心)을 다 잊어버리고자 나다녔다.

할머니는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발끝은 바닷물에 잠기어 물장구를 쳤다. 그리고, 빨래를 할 때만 하여도 한쪽 발은 한라산, 또 한쪽은 관탈섬을 디디었다. 그리고, 서귀포와 법환리의 앞바다에 있는 섬에는 커다란 구멍이 두 개 뚫려 있는데, 이것은 이 할머니가 누울 때 잘못 발을 뺀채 생긴 것이라 한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늘 도민들에게 명주 백동(1동은 50필)을 모아 속옷을 한 벌만 만들어 준다면, 본토(本土)에 까지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 주마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도민들은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았으나 꼭 한 동이 모자랐다. 육지와 다리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조천리에 있는 영장매코지는 이 할머니가 놓으려던 다리의 흔적이며, 신촌리의 암석에 있는 큰 발자국은 그 때의 자취라고 한다.

이 할머니는 자신의 키가 큰 것을 늘 자랑하였다. 그래서, 용연물(제주시 용담동 해변에 있음)이 깊다길래 들어섰더니 발등에 겨우 닿았으며, 흥릿물(서귀읍 서흥리에 있음)은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한라산의 물장오리 물은 밑이 없는 연못이라 나오려는 순간 그만 빠져죽고 말았다 한다.

<1958. 8월 안덕면 화순리 문 안길>

### 3.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진성기, 『신화와 전설』, 제주민속연구소, 2001. pp. 27-40

핵심화소 : 옥황상제 말갯딸, 하늘과 땅 분리, 빨래하기, 등경석, 배설하여 강과 소섬만들기, 오름만들기, 설문대하르방과 인연맺기, 하문으로 고기잡기, 배설로 오름 만들기, 오백아들, 장군바위가 왜적막기, 다리놓기 실패, 물장오리

설문대할망은 옥황상제의 말갯딸이었다. 할망은 워낙 호기심이 많고 활달한 성격이라 천상계의 생활이 갑갑했다. 그러던 어느날 설문대할망이 바깥 세계가 궁금해서 몰래 내려다 보았다. 바깥세계는 하늘과 땅이 맞붙어 있었다. 그 순간 할망이 그 세계를 열어 놓아야겠다고 결심하고 하늘과 땅을 두 개로 쪼개어 놓았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하늘을 떠받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땅을 짓누르며 힘차게 일어서다. 맞붙었던 하늘과 땅 덩어리가 벌어지면서 하늘의 머리는 자방위(子方位)로, 땅의 머리는 축방위(丑方位)로 트였다.

이제 땅의 세계는 옥황상제의 권역 밖이 되어 버려서 옥황상제의 진노가 대단하였다. 옥황상제가 딸짓말의 소행임을 알고 설문대할망을 땅의 세계로 내쫓아버렸다.

설문대할망이 속옷 챙겨 입을 겨를도 없이 바깥 세계를 갈라 놓을 때 퍼놓았던 흙만을 치마폭에 담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

인간 세상에 내려온 설문대할망이 먼저 남쪽 노인성이 비치는 아늑한 곳을 찾아내어 치마에 담긴 흙을 내려놓자, 타원 모양으로 내려 앉았다. 제주도는 이때 설문대할망이 내려놓은 흙더미이다. 그런데 흙이 굴곡 없이 평평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두 손으로 다시 흙을 일곱 번 떠 놓아 한라산을 만들었다.

한라산 정상에 오르면 남쪽 멀리 남극 노인성이 보인다. 노인성은 남극의 축(軸)에 있어서 땅 위에 나오지 않는 신령스런 별인데, 오직 한라산과 중국의 남악(南嶽)에서만 볼 수 있다.

한라산이 생기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어떤 사냥꾼이 한라산으로 사슴사냥을 나왔다. 사냥꾼이 한라산 정상에 다다랐을 때 사슴을 발견해서 급히 활을 치켜 들었다. 그때 활 끝이 옥황상제의 엉덩이를 건드리게 되었다.

화가 난 옥황상제가 한라산 봉우리를 손에 잡히는 대로 잡아 뽑아 서쪽을 내던졌다. 그 봉우리가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에 산방산이 되고, 봉우리를 뽑아 버린 자국은 움푹 패여 백록담이 되었다.

설문대할망은 한라산에 왼쪽 발을, 산방산에 오른쪽 발을 디디고 태평양 물에 빨래를 하곤 했다.

설문대할망은 몸집이 커서 한라산을 베개삼고 누우면 발끝이 제주시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까지 닿았다. 그런데 한 번은 실수로 발을 잘못 뺀 바람에 서귀포 법환리 앞바다에 범섬에 구멍 두 개가 뚫리고 말았다.

설문대할망은 성산 일출봉 위에 관솔불을 켜 놓고 길쌈을 했다. 일출봉 기암 가운데 높이 솟은 바위를 골라 불을 켜는데 등잔이 알아서 다시 큰 바위를 하나 더 얹어 놓고 등잔을 썼다. 이곳이 등경석이다.

구좌읍 송당리 목장에 떡엄떡엄 놓인 큰 암석 세 개는 할망이 술을 걸어 밥을 해 먹던 술받침돌이라고 한다.

할망은 성산읍 오조리의 식산봉과 일출봉을 디디고 소변을 보았는데 그 소변

줄기가 세어서 땅이 패이고 강이 되어 흘렀다. 그러다 오줌 강이 깊어져 섬 한귀 통이가 잘려 나가서 생긴 곳이 지금의 소섬(牛島)이다. 지금도 성산과 소섬 사이는 바다가 깊고 조류가 세어서 파선되는 일이 잦다.

할망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천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흙을 가지고 오래도록 주무르며 몰두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360여개나 되는 오름들이다. 처음에는 둥그스름한 것, 삼각형, 사각형 모양을 만들다 차차 여러 모양에 흥미를 가졌다. 그래서 구좌읍의 다랑쉬 오름에는 둥근 모양의 봉우리를 주먹으로 탁 쳐서 커다란 굽부리가 생기게 하기도 했다. 오름을 만들다 쉴 때는 한라산을 베개삼고 서귀포 고근산 굽부리에 엉덩이를 얹은 다음 앞바다 범섬에 다리를 걸치고 누워 물장구를 치기도 했다. 덕분에 고근산 굽부리는 설문대할망의 엉덩이선이 그대로 찍혔다.

어느 날, 설문대할망이 바닷가에서 해물을 잡고 있었다. 이때 할망 옆으로 커다란 그림자가 다가와 보니, 어떤 거인이 서 있었다. 그 거인은 설문대하르방이라는 어부였다. 설문대하르방의 키는 한라산만하고 신(男根)은 갈대 세 대만했다.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이 부부의 연을 맺고 오백 형제를 낳았다. 설문대할망이 오백 형제를 낳고 속이 허해서 바닷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다.

할망과 하르방이 고기를 잡기 위해 바닷가로 내려갔다. 하르방이 소섬쪽으로 가면서 할머니에게는 표선 바다쪽에서 하문을 열고 앉아 있으라고 일렀다. 하르방이 소섬 바다쪽으로 가서 긴 신(男根)으로 바위굴마다 찌르며 휘저어가니 고기들이 삽시에 할머니 하문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그러자 할망이 하문을 꼭 잠그고 물으로 나와서 신흥리 목장에 가서 열어 놓으니, 그 양이 열 섬 열 말이나 되었다. 할망과 하르방은 그 고기를 한 끼니로 모두 먹었다.

할망은 식성이 좋은 만큼 똥을 싸는데도 그 양이 오름만큼 했다. 사람들이 마소를 찾으러 들이나 산으로 다니다가 할망이 싸 놓은 똥을 오름인줄 알고 올라섰다가 빠지기 일쑤였다. 이런 일이 잦아지자, 사람들이 불만이 높았다. 제주도민들이 공론을 하여서 할망에게 똥을 한군데만 싸지 말고 여러 군데 조금씩 흘리며 싸달라고 부탁했다. 설문대할망이 사람들의 부탁 대로 조금씩 썼지만, 세월이 흘러서 싸 놓은 똥 위에 거둬 싸게 되어 오름이 되고 동산이 되고 산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할망의 오줌은 땅 속에 샘솟는 샘물이 되었다.

할망의 오백 아들이 성장하여 기골이 부모에 못지 않게 장대하였다. 흉년이 든 해에 설문대할망이 아들들을 불러서 양식을 구해오도록 했다. 할망은 아들들을 데리고 양식을 구하러 나가고 하르방은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죽을 쑤기 시작했다. 하르방이 큰 가마솥에서 불을 때고 솥전 위를 걸어 돌아다니며 죽을 저었다. 이때 하르방이 발을 헛디더서 필필 끓는 가마솥 속으로 빠졌다.

집에 돌아온 아들이 죽을 보고 허겁지겁 퍼먹기 시작했다. 어느 때보다 죽 맛이 좋았다. 마지막에 돌아온 막내 아들이 가마솥 바닥에 남은 죽을 뜨려는데 국자에 뭔가가 걸려서 살펴보니 사람의 뼈였다. 막내가 아버지가 죽 속에 빠져 죽은 사실을 알고 불효한 형들과 함께 살수 없다며 집을 나갔다. 막내가 한경면 고산리 앞바다 차귀섬까지 달려가서 그 곳에서 며칠을 슬피 울다가 그만 바위가 되고 말았다. 이 바위를 장군바위라고 한다.

차귀섬의 장군바위는 대정읍 바굼지오름(簾山)에서 환히 보인다. 어느 해에 한 지관이 바굼지오름에서 뒗자리를 보다가 차귀섬의 장군바위가 보이는 것이 흠이라고 말했다. 이 소리를 들은 상주가 뒗자리만 좋다면 그것 하나 없애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차귀섬으로 건너갔다. 상주가 도끼로 장군바위를 찍자 그 자리에서 피가 솟구쳤다. 지금도 그때 도끼로 찍었던 자국이 장군바위에 남아있다.

설문대할망의 막내아들은 비록 바위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넋을 기려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 장군바위가 호종단이 탄 배를 파선시키고 왜적의 침입을 막은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제주도에는 장수가 태어날 혈맥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두려워한 중국의 진시황이 지관인 호종단을 보내어 제주의 혈맥을 끊도록 했다. 호종단이 혈맥을 끊으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 지장새미에 이르렀다. 지장새미 옆에서 밭을 갈고 있는 농부가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나서 호종단이 물혈을 뜨러 왔으니 숨겨 달라고 청했다. 농부가 소 길마 밑에 넣어 둔 물사발을 가리키자, 할머니가 그 행기물 속으로 숨었다.

호종단이 지장새미에 이르러 샘물이 없는 것을 보고, 문서를 찾아보니, ‘꼬부랑나무 아래 행기소’라고 적혀 있었다. 꼬부랑나무는 소 길마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호종단이 이를 알지 못하고 농부에게 묻자, 농부가 그런 말이 어디 있냐며 면박만 주었다.

호종단이 화가 나서 가져온 문서를 엉터리라며 찢어 버렸다. 그리고 더 이상 물혈을 뜰 수가 없게 되자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탔다. 그런데 돌아가던 호종단이 차귀섬 앞에서 갑자기 돌풍을 만나 죽고 말았다. 장군바위가 그를 벌한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이같은 내용을 노래에 실어 전하고 있다.

“산의 조종은 곤륜산이요/강의 조종은 황하라/한라 영산을 바라보니/북쪽으로 도 두봉이 있어/도인이 날 듯하고/남쪽을 바라보니 범섬이 떠 있어/호안 장군이 날 듯하고/영실기암을 바라보니 오백장군이 난열한데/일대장군은 차귀도에 서서/호종단을 막아내었다”

한편 장군바위로 변한 동생을 본 형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499명의 형들도 아버지를 부르며 통곡하다가 모두 바위로 변했다. 이렇게 생긴 바위들이 영실기암이다. 오백장군이라고 부르지만 한라산 서쪽 비탈에는 499장군이 서 있으며 차귀섬에 막내 혼자 떨어져 있다.

이들이 바위가 되어 흘린 피눈물들이 땅 속으로 스며들었다가 봄이 되면 철쭉꽃으로 피어나 온 산을 붉게 물들인다.

홀몸이 된 설문대할망은 만단수심(萬端愁心)을 다 잊고자 하염없이 돌아다녔다. 한라산에 오르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삼시간에 안개가 덮여 지척을 분간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슬픔에 싸인 설문대 할망이 화가나서 부리는 조화라고 한다.

설문대 할망이 몸집이 커서 늘 옷이 아쉬웠다. 설문대 할망이 제주도민들에게 명주 100동을 모아 속옷을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다. 도민들이 명주를 모았으나 99동 밖에 되지 않아서 다리는 놓이지 못했다. 하지만 조천리에 영장매코지는 그때 할망이 놓던 다리의 흔적이며, 신촌리 암석에 있는 큰 발자국은 그때의 자취라고 한다.

설문대 할망은 자신의 키가 큰 것을 늘 자랑삼았다. 어느 날 설문대 할망이 키 자랑을 할 생각으로 물이 깊다고 소문난 제주시 용담동 바닷가 용연물에 들어갔다. 그런데 용연물이 할망의 발등까지만 닿았다. 할망이 서귀포시 서흥리 흥릿물에 들어가보니, 이번에는 무릎까지 물이 올라왔다. 그래서 할망이 깊다고 소문이 난 한라산 물장오리에 들어갔는데, 그만 물에 빠져 나오지 못했다. 물장오리 물은 밑이 터진 연못이라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

4. 선문데할망 1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핵심화소 : 섭섭의 구멍, 거구 흔적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다리가 바다에 잠겨서 발로 물장난을 했다. 서귀포 西歸浦 법환리法還里 앞 바다의 ‘섭섭’에 있는 커다란 구멍 두 개는 할망이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서 잘못 발을 뺐었을 때 생긴 구멍이다.

(서귀포, 金氏(女), 60세)

5. 선문데할망 2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핵심화소 : 다리 놓기 실패

명주 明紬 백통을 모아서 속옷 한 벌을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기에 도내의 명주를 전부 모았더니 99통밖에 못돼서 못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할망도 다리를 놓아 주다가 말았다. 그 놓다가 만 다리가 지금 한림 翰林 앞 바다에 있는 긴 곳이[岬]이다.

(한림읍, 李氏(女), 62세)

6. 선문데할망 3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핵심화소 : 빨래하기

한 발은 제주도 서남쪽에 있는 가파도 加波島에, 또 한 발은 제주도 동북쪽에 있는 성산 城山 일출봉日出峯에 디디고 바닷물에 빨래를 했다.

(구좌면 송당리, 高三林(男), 54세)

7. 선문데할망 4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핵심화소 : 술의 흔적

구좌면 舊左面 송당리 松堂里의 동북쪽 들판에 있는 세 개의 바위는 선문데할망이 작은 술을 걸어 놓고 밥을 짓던 곳이다.

(구좌면 송당리, 高三林(男), 54세)

8. 선문데할망 5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핵심화소 : 빨래하기

한라산과 제주시 북쪽 먼 바다 가운데 있는 관탈섬에 밭을 디디고 바닷물에 빨래를 했다.

(제주시, 高氏(女), 48세)

9. 선문데할망 6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핵심화소 : 오름 만들기

치마폭에다 흙을 싸서 담아다 쏟아 부운 것이 한라산이 되었고, 동시에 치마폭의 뚫어진 구멍들에서 쏟아진 흙들이 도내에 무수히 산재散在해 있는 작은 오름(岡)들이 되었다.

(안덕면, 상창리, 李氏(女), 52세)

10. 선문데할망 7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핵심화소 : 오름 만들기

할망이 갈래죽(삽)으로 흙을 떠서 쏟아 부은 것이 한라산이 되고 조금씩 흘러 흙들이 도내의 작은 산들이 되었다.

#### 11. 선문데할망 8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핵심화소 : 배설하여 산 만들기

위낙 큰지라 식량 食糧이 많아서 대죽범벅(수수범벅)을 먹고 똥을 썩 것이 산이 되었다. 그 산이 현재 ‘농가물’이란 곳에 있는 ‘굿상망오름’이다.

(중문면 강정리, 李甲順(女), 40세)

#### 12. 선문데할망 9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핵심화소 : 백사장 만들기

표선면 表善面 해안의 ‘한모살(큰 백사장)’은 본래 물이 깊어서 풍파가 일면 파도가 들이닥치고 가옥에 침수하여 고난이 심했다. 매년 한 사람씩은 어린 아이들이 나가 놀다가는 빠져 죽었다. 그런데 할망이 명주로 속옷을 만들어 주면 떼꾸어 준다고 하기에 백성들이 모아서 만들어 주었더니 하룻밤 사이에 산의 나무를 베어다가 바다에 깔고 다음에 북풍이 일어서 모래가 덮어쓰워지니 현재의 백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조수가 나간 다음에 백사장의 모래를 파헤쳐 보면 굶다란 나무들이 썩어서 정말 깔려 있다는 것이다.

(표선면, 高氏(男), 68세)

#### 13. 선문데할망 10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핵심화소 : 다리 놓기 실패, 맹수가 없는 이유

할망이 갈중이(작업복 바지) 하나만 지어 주며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해서 제주도 백성들이 무명 한 필씩을 모아서 만들었더니 가달(가랭이) 한 쪽밖에 안 되었다. 그래서 할망도 흙 한줌을 집어서 빚어 놓은 것이 현재 모슬포 앞 바다의 긴 꽃이(岬) 알뜨르라고 한다. 갈중이를 다 만들어 주었으면 같이 제주도 내 모든 산줄기에 장군혈이나 모든 혈을 붙어 넣어 주었을 것이라 한다. 그리고 한라산에 봉우리가 구십구 九十九 밖에 없는데, 할망이 하나를 더 만들어서 백百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한라산에는 왕도, 범도, 그 밖의 맹수들도 안 난다고 한다.

(중문면 강정리, 李甲順(女), 40세)

#### 14. 선문데할망 11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핵심화소 : 물장오리

하도 키가 큰 것이 자라이어서 제주시에 있는 용담龍潭 물이 깊다기에 들어서 보니 발등까지밖에 안 찼다 남군 ○○ 물에 들어서 보니 이번에는 겨우 무릎까지 찼고, 마지막으로 한라산 물장오리에 가서 들어서 봤다가 그만 풍덩 빠져 죽어 버렸다.

(구좌면 송당리, 高三林(男), 54세)

#### 14. 선문데할망 12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핵심화소 : 오백형제

아들 5백 형제를 낳고 그 많은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큰 솥에 죽을 끓이다가 그만 잘못해서 빠져 죽었다. 자식들이 그것을 알고 같이 산중에서 죽어 버리니 그것이 현재 제주도 명승命勝의 하나인 영실기암 靈室奇岩 의 오백장군봉이다. 등산할 때에 이 오백 장군봉 峰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 할망이 성을 내서 구름과 안개를 끼게 한다.

(한경면, 판포리, 邊仁善(女), 52세)



## 15. 설문대 할망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9, 평민사, 1992, pp. 277-279

핵심화소 : 빨래하기, 다리 놓기 실패, 물장오리, 쇠섬 만들기, 음문으로 사냥하기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도 아주 아득한 옛날에 지주도엔 설문대 할망이라는 아주 키가 큰 할망이 있었수다. 이 할망은 설문대할망이라고 하지마는 선문대 할망, 설명주 할망, 세명뒤 할망, 세맹디 할망이라고도 하는디 이 할망을 지주도 살므치고는 모르는 사름이 었수다. 이 할망으 키는 어찌나 크던지 한루산(韓孛山)에 걸터앉아(걸터앉아서) 한 발은 쇠섬(제주도의 동쪽에 있는 섬, 牛島)에다 뻗고 또 한 발은 西歸浦 앞으 범섬에다 뻗고 城山峯을 광돌(빨랫돌)로 삼어서 빨래를 했다고 합니다.

설문대 할망은 이와 같이 키가 핑쟁이 컷기 때문에 옷을 해입지 못핏수다. 그래서 설문대 할망은 지주 사름들ㄴ라 내 옷을 한 벌 해주면 나는 육지까지 드릴 놓아주것다고 핏수다. 지주 사름들은 그렇게 하자 하고 지주에 잇는 옷감을 모았고 성문대 할망은 조천(濟州牧 안의 東쪽에 잇는 海村으로 옛날에는 濟州出入의 港口였다)에서부터 드리를 놓기 시작핏수다. 지주 사름은 지주에 잇는 옷감을 문(모두 다) 거두어서(모아서) 옷을 지엿는디 제우(겨우) 설문대 할망으 잠뱅이(짧은 속곳)밖에 못 만들엿수다. 그래서 설문대 할망은 다리 놓기를 그만두엿다고 홉니다. 설문대 할망이 드리를 놓는데 朝天 앞바당에 소낭구를 數數千 동을 깔엿는데 그 소낭구가 지금도 가끔 떠오른다고 홉니다.

성문대 할망은 바당물이 얼마나 짙은가 알아보것다고 여기저기 들어가 봤다고 홉니다. 목안에 잇는 용소에 들어간 보난 물이 할망으 발등밖에 안 들고 서기포(西歸浦)으 西烘리에 잇는 홍리물에 들어간 보난 무릎에꺼지 들지 안혔고 할루산에 잇는 물장오리가 짙다고 해서 거그 들어가 봤더니 그만 그 물장오리에 빠져서 죽엿다고 홉니다. 물장오리는 한엇이 짙은 물이여서 그 키 큰 설문대 할망이 빠져 죽엿다고 홉니다.

지주으 東쪽으 成山里 앞바당에 잇는 쇠섬은 원래 濟州本土에 붙어 잇엿다고 홉니다. 지주 본토에 잇던 쇠섬이 어찌서 섬이 뗏느냐 하민 설문대 할망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설문대 할망은 혼쪽 발을 성산멘 五照里의 食山峯에 띠디고 혼쪽 발은 성산멘 日出峯에다가 띠디고 앉아서 소매(小便)를 보는데 오줌 줄기가 어찌나 심이 쪼게 나오던지 땅이 꺾어서 땅의 일부가 떨어져서 그리서 쇠섬이 되고 쇠섬광 성산 사이에는 오줌 줄기가 세계 흘러서 지금도 그 사이의 바닷물은 세계 흐른다고 합니다. 그 사이의 바닷물을 지내가는 배는 쉰 潮流에 휩쓸려서 破船되고 破船 船體는 좃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설문대 할망은 배가 고프민 城山 앞바당 섬지코지라는 디에 강 두다리를 짝 떡 벌리고 앉아서 쪼기덜이(고기들이) 할망의 혼문데러 (下門쪽으로) 돈땅 들어가는디 그리흐민 할망은 혼문을 꼭 중간 나오란(꼭 잠그고 바다에서 육지로 나와서) 꼭 쏘아서 묵곤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고래도 많고 물개도 많고 쪼기도 많고 해서 설문대 할망은 늘 여기서 쪼기를 심어서 묵어서 그리서 지주 사름들은 여기를 우시게 소리로 설문대 할망 코지영 합니다.

1971년 7월 제주시 이도이동 고흥규(63세, 남)

#### 16. 설문대하루방과 설문대할망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9, 평민사, 1992, pp.279-280

핵심화소 : 하루방과 하문으로 사냥하기

옛날 지주에(濟州에) 설문대 하루방이라는 하루방이 잇엇수다. 이 하루방 키는 할루신(漢孛山) 높이와 같앗다수다. 그리고 이 하루방의 셋놈(쫓)은 질고 커서 할망을 구하지 못흐영 한자 살엇다고 합니다.

흐로는 바당(바다)에 느런 보난 키가 큰 할망이 바룻 잡암 혼난(海産物을 잡고 있어서) 설문대 하루방은 저 할망은 내 배필이 될 만흐다고 보고 할망 짚에 강 “난 설문대 하루방이요. 당신은 누구요? 우리 둘이 부배(夫婦)되여 함께 삽시다.”

설문대 할망이 설문대 하루방을 보난 하루방 심을 만흐여베여(삼아서 살 만하 여서) “너는 설문대할망이요. 실푸도록(실컷) 바듯괴기(바다 고기) 맥에주기영(먹여준다고 하면은) 허금허쿠다(허락하겠습니다).”

“그건 어려운 일 아니우다” 혼연(해서) 하루방 할망은 부배가 되엇수다.

설문대 하루방광 설문대 할망은 부배가 되영 사넌디 설문대 할망은 아덜 오백성지를 보고(낭고) 스뭇(매우) 괴기가 먹고 싶어서 하루방ㄹ라(보고, 에게) 어서

바당에 네레가서 괴기 심으레(잡으러) 가자 호고 함께 바당테레 느레갓수다.

하루방은 할망그라 “난 절로 강 괴길 다둘리커매(쫓을 터이니) 할망은 소중기(속곳을) 벗영(벗고서) 하문을 올양(열고서) 앓아시런(앓아있거라)” 호고서 바당 쏘곶에 신(바다 속에 있는) 괴길 다올리는다, 셋놈(쫓)으로 영덕마다(바위 굴 속마다) 질으멍(찌르며, 쭈시며) 이 궁기 저 궁기(이 구멍 저 구멍) 들썩들썩 숙대겨가난(쭈셔서 가니) 바당 괴기(바다의 고기)들이 혼 어이에(한순간에) 매딱(모두다) 설문대 할망 하문테레(下門으로) 기여 들어갓수다.

설문대 할망은 괴기들이 거저 문(모두 다) 들어온 만흐난 하문을 뚝기(따악) 중간에(잡그고) 바당서 나와서 핏 싸놓난(풀어 싸놓으니까) 수수백 섬이 나왔수다. 설문대 하루방광 설문대 할망은 그 괴길흐때에 문 끊여묵인 삼천삼백 연을 살엇깁 합니다.

1972년 3월 북제주군 성산면 신흥리 오문복

#### 17.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핵심화소 : 거구

옛날 선문대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다.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다리는 제주시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졌다고 한다.

1972년 5월 25일 구좌면 김학리 안용인(남)

#### 18.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핵심화소 : 빨래하기

옛날 선문대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빨래를 제주시 앞바다의 관탈섬에 놓고, 팔은 한라산 정상에 걸고 서서 발로 빨래를 빨았다고 한다.

노형리에서 현용준이 어렸을 때 들었던 자료라고 한다.

#### 19.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핵심화소 : 감투

제주시 한내(漢川) 위쪽에 큰 구멍이 팬 바위가 있는데, 이것은 할머니가 쓰던 감투라고 한다.

노형리에서 현용준이 어렸을 때 들었던 자료라고 한다.

#### 20.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핵심화소 : 오름 만들기

제주도에 오름들은 할머니가 치마자락에다 흙을 담아 나를 때, 치마의 터진 구멍으로 흙이 조금씩 흘러서 된 것이라고 한다.

노형리에서 현용준이 어렸을 때 들었던 자료라고 한다.

#### 21.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핵심화소 : 다리 놓기 실패

할머니는 키가 너무 커서 옷을 제대로 해 입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속옷을 한 벌만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했다. 속옷 한 벌을 만드는 데 명주 백 통이 든다. 제주 백성들이 힘을 다해 모았으나 99통밖에 안 되었다. 그래서 속옷을 만들지 못했고, 할머니는 다리를 놓다가 중단했다. 그 자취가 조천면 조천리·신촌리 등 앞바다에 바다로 뻗어간 바위 줄기로 남아 있다.

노형리에서 현용준이 어렸을 때 들었던 자료라고 한다.

## 22.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핵심화소 : 물장오리

선문대할망은 키가 큰 것이 자랑거리였다. 할머니는 제주도에 자기의 키보다 깊은 물들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제주시 용담동(龍潭洞) 용소(龍沼)가 깊다기에, 들어가 보니 물이 발등에 닿았다. 서귀읍 서흥리(西歸邑 西興里)에 있는 흥리물은 무릎까지 닿았다. 마지막에 한라산에 있는 물장오리에 들어섰다가 그만 풍덩 빠져 죽어 버렸다. 물장오리가 밑이 터져 한정없이 깊은 물임을 미처 몰랐기 때문이다.

노형리에서 현용준이 어렸을 때 들었던 자료라고 한다.

## 23.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핵심화소 : 빨래하기

옛날 설문대할망이라는 할머니가 살았다. 할머니는 한라산을 엉덩이로 깔아 앉고, 한쪽 다리는 관탈에 놓고, 또 한쪽 다리는 서귀읍 앞바다의 지귀섬이나 대정읍 앞바다의 마라도에 놓고 해서 성산봉을 빨래 바구니로 삼고, 소섬(구좌면 우도)은 빨랫돌로 삼아 빨래를 했다.

1975년 2월 28일 성산면 시흥리 양기빈(69세, 남)

## 24.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핵심화소 : 빨래하기

옛날 설명두할머니 또는 세명뒤할머니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한쪽 발은 한라산을 밟고 한쪽 발은 소섬을 밟고 서서 바닷물에 빨래를 했다고 한다.

1974년 10월 19일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한공익

25.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핵심화소 : 오름 만들기

제주도에 오름들은 할머니가 삼으로 흙을 날라 가면서 한 줍씩 집어 놓은 것이라고 한다.

1974년 10월 19일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한공익

26.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핵심화소 : 산 모양 만들기

구좌면의 드랑쉬(自郎崇)는 산봉우리가 움푹하게 패어져 있는데, 이것은 할머니가 흙을 집어 놓은 후 너무 많아 보여서 주먹으로 봉우리를 치는 바람에 패어진 것이라고 한다.

1974년 10월 19일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한공익

27.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핵심화소 : 거구

할머니는 키가 커서 한라산과 일출봉 사이를 한 발자국에 놓았다고 한다.



1974년 10월 19일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한공익

28.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핵심화소 : 거구, 등경돌

성산면 성산리 일출봉에는 높이 솟은 바위에 다시 큰 바위를 얹어 놓은 듯한 기암이 있다. 이는 설명두할머니가 길삼을 할 때 접시불을 켜던 등잔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위에 다시 바위를 올려 놓지 않았는데, 불을 켜 보니 등잔이 얹으므로 다시 바위를 하나 올려 놓아 등잔을 높였다고 한다. 등잔으로 켜었다고 하여 등경돌(燈擎石)이라 한다.

1974년 10월 19일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한공익

29.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핵심화소 : 소섬 만들기, 배뇨

본래 소섬(牛島)는 섬이 아니었다. 옛날 설명두할머니가 한쪽 발은 선상면 오조리의 식산봉(食山峯)에 디디고, 한쪽 발은 성산면 성산리 일출봉에 디디고 앉아 오줌을 누었다. 그 오줌 줄기의 힘 때문에 육지가 패어지며 오줌이 장강수(長江水)가 되어 흘렀다. 그 때문에 육지 한 면이 동강이 나서 섬이 되었는데, 바로 소섬이다. 그때 흘러 나간 오줌이 지금의 성산과 소섬 사이의 바닷물이다. 오줌 줄기의 힘이 센 덕분에 깊이 패어져 고래나 물개 따위가 사는 깊은 바다가 되었다. 그때 오줌이 흐르던 흔적으로 지금도 이 바다는 조류가 세어서 파선하는 일이 많다.

1974년 10월 19일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한공익

30.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핵심화소 : 배뇨

일설에는 이 할머니가 성산 일출봉과 성산면 시흥리 바닷가의 바람알선들이라는 바위를 디디고 앉아 오줌을 누었다고 하기도 한다.

1974년 10월 19일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한공익

### 31.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핵심화소 : 다리 놓기 실패

설명두할머니는 속옷 한 벌만 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했다. 백성들이 애써 모았지만 99필 뿐이었다. 그 때문에 속옷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리도 놓아 주지 않았다고 한다.

1974년 10월 19일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한공익

### 32.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핵심화소 : 이름이 여러 개다.

설명두할머니는 세명뒤할머니, 쉼명뒤할머니 또는 설명대할머니이라고도 한다.

1974년 10월 19일 성산면 고성리 김석보·한공익

### 33.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핵심화소 : 거구

옛날 설문대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는데, 한쪽 발은 한라산을 딛고, 한쪽 발은 산방산을 딛고 앉았다고 한다.

1975년 3월 안덕면 화순리 양성필(77세, 남)

#### 34.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핵심화소 : 거구

옛날 마고(麻姑)할망이라는 키가 큰 할머니가 있었다. 어찌나 키가 컸던지 한쪽 발은 한라산을 딛고 한쪽 발은 표선면 표선리 바닷가의 한모살(모래톱)을 디디었다고 한다.

1975년 3월 2일 표선면 표선리 홍성흡(73세, 남)

#### 35.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핵심화소 : 속옷 만들기 실패

이 할머니의 속옷 한 벌을 만드는 데는 명주 100통이 드는데, 명주가 99통밖에 없어 못 만들었다고 한다.

1975년 3월 2일 표선면 표선리 홍성흡(73세, 남)

#### 36.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핵심화소 : 이름이 여러 개다.

마고할망은 일명 설명지할망이라고도 한다.

1975년 3월 2일 표선면 표선리 홍성흡(73세, 남)

### 37. 선문대할망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문고, 1996(개정판).

핵심화소 : 술의 흔적

애월면 광지리(郭支里)에 흡사 술덕(돌 따위로 술전이 걸리도록 놓은 것) 모양으로 바위 세 개가 세워져 있다. 이곳은 선문대할망이 술을 엮어 밥을 하던 곳이라고 한다. 할망은 밥을 먹을 때, 앓은 채로 애월리의 물을 떠 넣었다고 한다.

1975년 12월 19일 한경면 고산리 이자영(77세, 남)

### 38. 선문대할망

현용준·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pp. 201-202

핵심화소 : 다리 놓기 실패, 죽은장오리, 거구, 하문에 각륙 숨기기, 배뇨로 내 만들기

\* 바지 잃은 사돈 이야기가 끝나 한참 웃고 다시 잡담을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다. 선문대 할망, 설문대 할망, 설명두 할망, 세명뒤 할망 등이라 일컬어지는 이 거녀(巨女)의 이야기는 전도적으로 분포되어 널리 회자되는 이야기이다. 짝막 짝막한 단편적인 에피소드로 전승되는데, 이 여인의 거녀적 모습을 표상하는 요소가 가장 많다.

설문대 할망이 잇어나십주(있었읍지요).

원 그건 모름주.<sup>68)</sup> 거 뭐, 비단 백필만 허영 소중기<sup>69)</sup> 맨들어 주민(만들어 주면) 추즈도까지 드리(다리) 놔 주멘(놓아 주마고) 허였다고.

68)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오의 뜻.

69) 여자의 속옷의 일종.

주문하던 흰 필이 부족하여서<sup>70</sup>). 못허여 주니 걸<sup>71</sup>) 아이 허여 쥐 부렸다고.

겨니(그러니) 설문대 할망이 경허여도(그리해도) 죽은장오리<sup>72</sup>)에는 빠전 죽었다  
고 하니 죽은장오리가 원 그렇게 짙은가(깊은가) 모르겠어, 그렇게.

한라산 머릿박호고<sup>73</sup>) 사스(泗水) 호고 추즈(楸子島)는 발 걸치고 허연 뉘난(누웠  
던) 할망(할머니)이라고 하니, 허허허. 엉뚱한 할망이주.

그 할망이 경 허였주게(그리 했지요). 한라산 우의(위에) 가가지고 응(이렇게)  
가달(다리) 벌견(벌려서) 오줌을 싸는디, 포수가 각록(角鹿)털을, 사슴털을 다운려  
가지고(몰아서) 총으로 쏘을라고. 거, 굴 속에 곱아 부리(숨어 버려)<sup>74</sup>) 어, 보니,  
응(이렇게) 보니 엉큼한 할망인디, 할망(할머니)그디<sup>75</sup>) 가 들어가 부렸어, 각록이.  
하하하하.

(조사자 : 각록이?)

각록이. 들어가 근지러와가니 오줌 싸니 것이(그것이) 내가 뒤편다고.

(조사자 : 아, 아, 아.)

설문대 할망이 크긴 커난(켰던) 모양이라 양. 각록 으나문(여남은) 개가 그디(거  
기) 들어가게쿠름. 허허허허.

[현원봉 : 옛, 말도. 허 허 허.]

1979년 4월 22일 서김녕리 용두동 안용인(74세, 남)

### 39. 선문대할망

현용준 · 김영돈, 『한국구비문학대계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p.710

핵심화소 : 빨래하기, 오름만들기, 다리 놓기 실패, 하늘과 땅 분리, 설문대하르  
방과 음문으로 사냥하기, 감투,

70) 온 도민이 힘을 모아 비단을 모았으나 한 필이 부족해서

71) 그것을, 곧 다리 놓기를.

72) 한라산 허리에 있는 물 이름.

73) 한라산을 베개 삼아 머리를 베고의 뜻.

74) 포수가 잡으려고 하니 사슴들이 굴 속으로 도망쳐 숨어 버렸다는 말.

75) 거기. 곧 설문대 할망의 성기 속에.

\* 고재환씨의 안내로 송기조씨를 찾아갔다. 자그마한 방이지만 글씨 한 폭이 걸려 있었다. 활달한 성격이요 익살스런 분이란 말은 이미 들었었지만 괜찮은 글씨 한 폭이 표구도 안 된 채로나마 걸려 있는 것으로 보아서, 생활감정만은 운치를 지니고 있는 듯했다. 취지를 말하고 제주도 전설로서는 가장 잘 알려진 ‘설문대할망’에 대해서 우선 물어 보았다. 제보자는 이내 이 마을 남쪽 내에 놓인 돌덩이 ‘족두리석’이야기부터 꺼냈다. ‘족두리석’은 꼭 족두리처럼 생긴 돌인데 설문대할망이 쓰던 족두리라 한다. 송기조씨는 이야기의 골격만을 말하고 마는 투여서 조사자들이 가끔 질문을 던져야 말이 이어져 나갔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표준어 화하여 말하는 편이어서 순제주도 방언과는 거리가 있는 말씨였다. \*

설문대할당 감투가 요디(여기) 이십주(있지요). [김영돈: 아 감투마썸? 어디 있어마썸?] 고지렛도. 기연디(그런데) 거기 경주이원흠(慶州李元欽)이 족감석(族感石)이라 새겨졌쥬. 경주이씨 이원흠에 대한 겨레족재(族字), 감동감재(感字), 친족이 감동해서 새긴 돌이라 써진 게 잇긴 잇는다.

우리가 옛날(옛날) 들으니까, 설문대할망이 키도 크고 심도(힘도) 썸고(세고) 흐여난(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흔착발(한쪽발)은 사라봉에 디디고 흔착발은 저디 물장오리라고 거길 디디어서 산짓물에서 빨래(빨래) 흐다가, 산짓물에 빨래흐젠(빨래하려고.) 구뻍흐단(꾸벅하다) 벗어지영(벗어져서) 털어졌다(떨어졌다) 그렇게 말합디다.

그 돌을 보민 흔편으로(한편으로) 영(이리) 모즈(幅子) 모양으로 썸 디가(데가) 잇연(있어서) [고재환: 예, 있습니다.] [김영돈: 거 어디 있어?] 여기서 주차장 감만 흐민(갈 만큼 하면) 바로 가꺄우난(가까우니까) 볼 수 잇수다. [고재환: 가운데 영(이렇게) 보민(보면) 바로 모즈 썸난(썸던) 것꺄치록(것같이) 되었읍니다.] 그 모즈 모양으로 썸 거기에 경주이원흠 족감석이라 우리가 보니까 썸 이십디다. ‘경주’라는 건 ‘경주이씨’. 원흠의 본관 ‘경주이씨’를 말흐고, ‘경주이씨’이엔도 안흐고 그냥 ‘경주이원흠 족감석’이라. 이원흠 친족덜이 감동흔 돌이라 흐니 그건 이원흠 이름을 나타내는 거쥬 그건. [김영돈: 이원흠씨흐고 설문대할망흐고 무슨?] 관계 읍읍니다. 그디(거기에) 클 새기는 이만 물어 보도(보지도) 앓고 이름을 나타내우젠(나타내려고) 흐는 것 썸입쥬.

[김영돈: 설문대할망이 한라산을 어떻흐영(어떻게 해서) 만들엇댕(만들었다고)

흐니까?] 요전이 아으덜(아이들)이 전설을 써 주시오 흐기에 써 줘신디(주었는데), 뭇엔(무어라고) 써줘싱고(썬 줬는고) 흐니, 옛날에는 여기가 하늘광(하늘과) 땅이 부뻗다(붙었다). 부뻗는디 큰 사름이 나와서 떼여 부러다(버렸다). 떼연(떼어서) 보니, 여기 물바닥이라 살 수가 읍으니 곳디로(가로) 물을 파면서, 목포(木浦)까지 아니 파시민(파시쪽) 질을(길을) 그냥 내블테인디(버릴 터인데) 그까지 파부니(파 버리니) 목포도 끊어졌다.

그것은 그때에 여기를 육지 맨드는(만드는) 범이 잘못된 거쥬. 기연디(그런데) 설문대할망이 흑(흑)을 싸다가, 거길 메울려고 싸다가 걸어가당(걸어가다가) 많이 떨어지민 큰오름이 웨곡, 죽게 떨어지민 죽은 오름이 웨었다, 그건 옛말입니다. [김영돈: 어떻마썸?] 치매(치마)에, 치매에 흑(흑)을 싸다가 많이 떨어지민 한라산이 웨곡, 죽게(적게) 떨어지민 도돌봉이 웨었다, 그건 옛날 전설이곡.

저 생각으론 이 제주도를 처음 맨드는 분이 잘못 생각했어. 스방으로 흑을 지쳐시민(위로 던졌으면) 바다는 바다대로 가곡, 육진 돌아져시민(도려내졌으면) 뿔 건디, 웨 육지레(육지로) 가는디 파부러트느냐, 나 그뜨민(같으면) 파지 맘생(마시라) 흐결(할 걸).

[김영돈: 육지흑곡 부뻗당은에(붙었다가는)] 부뻗(붙은) 게 아니고 전부 물바다로 보아서 하늘광 땅이 부뻗는디 친지개벽홀 때 아미영흐여도(아무리 하여도) 열린 사름이 이실 거라 말이우다. 그 열린 사름이 누게가 열렸느냐 흐민 아주 키 크고 썬 사름이 딱 떼어서 하늘은 우테레(위로) 가게 흐고 땅을 밋트로(밋으로) 흐여서 흐고 보니 여기 물바다로 살 수가 읍으니 곳드로(가로) 돌아가명 흑 파 올려서 제주도를 맨들었다 흐는디 거 다 전설로 흐는 말입쥬. [김영돈: 하, 다 바당이 었는데 예.] 예. [김영돈: 또 속옷 이야기가 있던데 예?] 제주도에서, 속옷이 아니고 허리 허리만 당흐여 주면은 목포레 가는 드릴(다리를) 놔주겠다(놓아 주겠다). 기연디(그런데) 그걸 흐여 주질 못흐여서 드릴 못 낫고(놓았고). 기여니 명지(명주)가 멧동이 드는지 알 게 뭐야 원, 워낙 커노니까. 기영흐난 못 낫쥬(놓았지).

기연디(그런데) 그 때도 그런 말이 잇엇답니다. 만일 드릴 놓앗더민(놓았더라면) 호랑이 제와서(겨워서) 못 살 거라고. 호랑이·범이 들어오거든. 현대 제주도에 웨 범이 읍어졌느냐 흐면은 구구곡(九九谷)이라고 아은아옴골이 이십쥬. 거(그것) 백골 웨여서는 범이 와 살 테인디(터인데) 골 흐나히(하나가) 부족흐니 범은 범흐지



못한다. 육지 가도 제주도 사름신디(사람한테) 범이 땡이도(다니지도) 못한다고, 흑내 남쟁(난다고). 제주도 사름안틴(사람한테는) 범이 아니 오라(와).

[김영돈: 기연디 원래 제주도에 범이 잇엇단(있었다가) 어디 중국 사름이 들어 완에(들어와서는) 혼 골짜기에 몰아단 범들을 죽여부렀다 혼는 말도 잇는디예] 그런 말 못 들어났수다. 혼디 우리 옥은(자란) 후에 깎지 잇어난 게 각녹(사슴)·산툽지(멧돼지), 곧 멧돼지, 그것은 우리 옥은 후에 깎지 잇어나십쥬(있었었지요.)

[다음 부분은 녹음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살짝 덧붙였다. 녹음은 되어있지 않다.]

설문대하르방이 잇어났쥬(있었었거든). [김영돈: 설문대하르방도 잇어마썸?] 설문대할망이 이신디(있는데) 하르방이 웃입니까. 할망이 이시민 하르방이 잇쥬. 하르방이 잇다가,

“퀘기(고기)가 꼭 먹고 싶다.”

고. 할망이 곁는(말하는) 말이,

“한라산 꼭대기에 강 잇다가 나 말대로만 흡서(하십시오).”

갓어. 갓는디 하르방 보고,

“당신이랑 한라산 꼭대기에 가서 대변 보멍(보면서) 그것으로 낭(나무)을 막 패어 두드리멍(두드리면서) 오줌을 작작 굴겁서(갈기십시오). 굴기면은 산툽(멧돼지)이고 노루고 다 잡아질 탱쥬(터이지요).”

아닌게 아니라, 이영헛터니(이리헛터니) 산툽이고 노루고 막 도망가. 할망은 자빠전 누워 잇엇덴(있었다고). 비브름 피헛젠(피하려고.) 혼단 그것들은 할망 그디(그곳, 陰部) 간 문딱(모두) 곱안(숨었어). 곱으니(숨으니) 이젠 그것들 잡아단(잡아다가) 혼 일년 반찬 혼연 먹엇덴(먹었다고) 혼여.

1980년 11월 23일, 오라동 동카름, 송기조(74세, 남)

#### 40. 선문대할망

金榮敦·玄容駿·玄吉彦, 『濟州說話集成(1)』 下卷,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5, pp.511-512

핵심화소 : 다리 놓기 실패, 산방산 만들기

설문대할망이 속옷 하나만 명주로 해주면 진도까지 다리를 놔주겠다고 했다. 명주 선통을 들이고도 속을 하나 못해서 다리를 못 놓았다고 한다. 한라산이 너무 높아 굽어 가지고 서답하기에 바다물에 빨래하기에 조금 높아서 한로산 봉우리를 조금 꺾어내어 던진 것이 산방산이 되었다고 한다. 산방산이 한라산 봉우리인데, 한라산은 암산이 되고 산방산은 숫산이 되었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바닥이 넓지 않아도 우양호사가 사방으로 우도는 소섬, 양은 비양도, 범호자는 대정 범섬, 정의 사자섬이 있다. 그래서 제주도가 어떠한 큰 대환도 잘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 41.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金榮敦·玄容駿·玄吉彦, 『濟州說話集成(1)』 下卷,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5. pp.705-706

핵심화소 : 다리 놓기 실패, 설문대하르방과 하문으로 물고기 잡기

설문대할망이 있던 시절에는 설문대할망만큼 큰 할아버지도 있었던 모양이다. 설문대할망이 제주도민들에게 완도까지 다리를 놓아 주겠으니, 속옷 하나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하루는 먹을 것이 떨어져서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이 앉아서 고민을 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방뒤(南濟州郡 城山邑 新陽里의 俗名) ‘섭지코지’(新陽里 해안가의 지명)에 가서 속옷을 벗고 들어 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있으라고 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시킨대로 섭지코지에 가서 앉아 있고, 할아버지는 하도(北濟州郡 舊左邑 下道里) 아래 소섬(牛島) 동어귀로 가서 쟁기로 발갈이하듯이 자지로 바다를 가며 고기를 쫓으니까 고기들이 할머니 하문(下門)으로 들어가 버렸다. 할머니가 잠그고 물밖으로 나와서 요기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섭지코지’를 우스개 소리로 ‘설문대코지’라고도 한다.

#### 42. 선문대할망(I)

제주도 문화공보담당관실, 『濟州道傳說誌』, 제주도, 1985, pp. 68-69

핵심화소 : 빨래하기

제주도에 고, 양, 부 3을라가 태어난 시대에 선문대할망은 비록 여자지만 제주도를 통치할 야욕을 품고 왔으나, 사불여의(思不如意) 하자. 물에 빠져 죽고 만 인물이었다.

선문대할망이 살아 있을때 빨래를 할려고 하면, 왼쪽 발은 성산 일출봉(成山日出峰)에 던지고 오른쪽 발은 마라도(馬羅島)에 던지고 서서 옷을 서귀포쪽에 있는 직기섬에 놓고 빨래했다.

또, 북쪽 바다에서 빨래를 할려고 하면, 추자도(楸子島)와 완도에 발을 던고서 보길도(甫吉島)에 옷을 놓고 했다.

남제주군 성산읍 시흥리, 양기빈(남·77) 제보.

#### 43. 선문대할망(II)

제주도 문화공보담당관실, 『濟州道傳說誌』, 제주도, 1985, pp. 68-69

핵심화소 : 물장오리, 거구

옛날 제주도에 선문대할망이 있었는데 그의 키는 왼쪽 발은 한라산에 던지고, 오른쪽 발은 산방산(山房山)에 던지고 서서 태평양 물에 빨래할 정도였다.

어느 날에는 한라산 중턱에 있는 물장오리의 물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속에 몸을 담겼는데, 지금까지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죽어 버린 듯하다.

제주시 이도 2동, 김선우(남 · 62) 제보.

#### 44. 선문대할망(III)

제주도 문화공보담당관실, 『濟州道傳說誌』, 제주도, 1985, pp. 68-69

핵심화소 : 거구, 배개

옛날 선문대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다. 얼마나 키가 컸던지, 한라산을 배개 삼고 누우면 다리는 제주시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졌다.

45. 선문대할망(IV)

제주도 문화공보담당관실, 『濟州道傳說誌』, 제주도, 1985, pp. 68-69

핵심화소 : 이름이 여러 개다, 빨래하기

옛날 설명두할망 또는 세명뒤할망이라고 하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한쪽 발은 한라산을 밟고 한쪽 발은 소섬을 밟고 서서 바닷물에 빨래를 했었다.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김석보, 한공익(남· ) 제보.

46. 선문대할망(IV)

제주도 문화공보담당관실, 『濟州道傳說誌』, 제주도, 1985, pp. 68-69

핵심화소 : 오름 만들기

제주도의 많은 산(오름)들은 할머니가 삽으로 흙을 날라 가면서 한 줍씩 집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구좌읍(舊左邑) 경에 있는 「도랑뒤산」은 움푹하게 패어져 있다. 이것은 할머니가 흙을 집어 놓고 보니, 너무 많아 보여서 주먹으로 봉오리를 탁 쳐 버렸더니 움푹 패어진 것이다.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김석보, 한공익(남· ) 제보.

47. 선문대할망(IV)

제주도 문화공보담당관실, 『濟州道傳說誌』, 제주도, 1985, pp. 68-69

핵심화소 : 등경돌, 소섬 만들기, 바다 만들기, 배노

성산리(城山邑 城山里) 앞바다에 있는 소섬(牛島)은 처음부터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었다. 옛날 선문대할망이 한쪽 발은 오조리(城山邑 吾照里)의 식산봉(食山峰)

에 디디고, 한쪽발은 일출봉에 디디고 앉아 오즘을 썼다. 그 오즘 줄기의 힘이 어떻게 세었던지 육지가 깨어지며 오즘이 장강수(長江水)가 되어 흘러 나갔고, 제주 섬 한 조각이 동강이 나서 섬이 되었다. 이 섬이 바로 소섬이다. 그 때 흘러나간 오즘이 지금의 성산(城山)과 소섬 사이의 바닷물인데, 그 오즘 줄기의 힘이 하도 세었기 때문에 깊이 깨어서, 지금 고래 · 물개 따위도 살 수 있는 깊은 바다가 되었고, 그 때 세차게 오즘이 흘러가던 흔적으로 지금도 이 바다는 조류가 세어서 파선하는 일이 많다. 여기에서 배가 깨어지면, 조류에 휩쓸려 내려가서 그 형체를 찾을 수 없다.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김석보, 한공익(남· ) 제보.

#### 48.. 설문대할망

제주도 문화예술과, 『제주의 민속 III-구비전승』, 1995, pp.43-44

핵심화소 : 거구, 물장오리, 빨래하기, 등경돌, 오름 만들기, 다리 놓기 실패

옛날 제주섬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였다. 이 섬에는 설문대할망이라는 거인노파가 살았다. 그는 체구가 매우 커서 한라산을 베개 삼아 누우면 다리가 제주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질 정도였다. 또 백록담에 엉덩이를 걸치고 두 다리를 뻗으면 한쪽 다리는 위미리 앞 지귀섬에 닿았고, 한쪽 다리는 제주시 앞 관탈섬에 닿았다. 그 노파가 돌아앉으면 한쪽 다리는 제주 서쪽 산방산에, 다른 한쪽 다리는 제주 동편 성산 일출봉에 걸쳐 놓았다.

그는 자기 키가 이렇게 큰 것을 자랑삼아, 제주 섬 안에 있는 모든 물에 들어가 보았다. 제주시 용머리 용소가 깊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들어가 보았다. 물이 겨우 발등에 찼다. 서귀포시 서흥동 지경에 있는 홍리물에 깊다고 해서 들어가 보았더니, 겨우 무릎까지 왔다. 이렇게 그는 제주 섬 안에 있는 모든 물을 제 키로 재어 보았다. 그런데 한라산에 있는 물장오리 물을 재려고 들어갔다, 그만 빠져 죽고 말았다. 그 물은 밑이 뚫려 있었다.

노파가 빨래를 할 때면, 빨래감을 관탈섬 앞바다에 놓고 한라산 백록담 상봉을 손으로 짚고 서서 빨래를 밟으면서 했다. 어떤 때는 소섬 앞바다에 빨래를 놓고

하기도 했다.

제주시 한천(漢川)이라는 내에 큰 구멍이 뚫어진 큰 바위가 있는데, 이것은 그 노파가 쓰고 다니던 감투모자라고 한다. 성산읍 일출봉에는 많은 기암괴석이 있다. 그 중에 솟은 바위 위에 다시 편편한 바위를 올려놓은 것 같은 형상을 한 바위가 있는데, 이는 그 노파가 등잔불을 켜두었던 곳이다. 그래서 이 바위를 등경돌(燈檠石)이라 한다.

예전에 구좌읍 우도가 따로 떨어져 있던 섬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설문대할망이 하루는 한쪽 발을 성산읍 오조리 식산봉에 디디고 한쪽 발을 일출봉에 디디고 앉아 오줌을 쏘다. 그 오줌 줄기가 너무 힘이 세어서 땅이 깨어지면서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었다. 그 바람에 그 오줌줄기가 흘렀던 곳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우도가 섬으로 따로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 지금도 그 오줌 줄기가 흘러갔던 줄기를 따라 조류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노파는 힘이 세었다. 구좌읍 月郎崇(月郎崇)은 산봉우리가 움푹하게 패어져 있는데 그것은 이 노파가 흙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 봉우리가 커지자, 한번 툭 쳐버려 그렇게 되었다. 제주 여기저기에 있는 많은 오름은, 그 노파가 치맛자락에 흙을 담아 나를 때 흘러버린 흙들이 쌓여서 된 것이다.

이렇게 힘이 세고 체구가 큰 노파에게 큰 근심이 있었다. 너무나 체격이 커서 옷을 제대로 지어 입을 수 없었는데, 그것이 이 노파에게는 큰 걱정이었다. 하루는 제주 사람들을 불러 청했다. “당신네가 내 속옷을 한 벌 지어주면, 내가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주겠다.” 제주 사람들은 섬으로 바다 한가운데 외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불편했다.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하고서, 이 노파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노파의 체구가 크기 때문에, 그의 속옷 한 벌 짓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적어도 속옷을 한 벌 지으려면 명주 백 통(1통은 50필)은 있어야 했다.

그날부터 제주 사람들은 각자 집에 있는 명주를 다 모으기 시작했다. 온 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모았다. 그러나 명주는 99통 밖에 되지 않았다.

노파도 옷을 지어줄 것을 기대해서 조금씩 다리를 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국 명주가 조금 모자라서 옷을 지어줄 수 없었다. 노파는 다리 놓는 것을 중단해 버렸다. 지금 조천과 신촌 앞바다에 그 노파가 다리 놓던 흔적으로 바다 쪽으로 쪽

뺨어간 데가 있다고 한다.

#### 49.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

오성찬, 『제주의 마을시리즈』, 5, 반석, 1987.

핵심화소 : 다리 놓기 실패, 빨래하기, 오백장군, 설문대하르방과 하문으로 바  
다고기 잡기.

섬 안에는 대당한 거인이었던 설문대할망에 대한 여러 가지 전설이 전해 내려  
오고 있다. 예를 들면, 섬 사람들과 명주 백동을 마련해주면 섬과 육지를 잇는 다  
리를 놓아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아흔아홉 동으로 한 동이 모자라 다리를 놓지  
못했다는 이야기라든가, 얼마나 몸집이 컸던지 한라산과 관탈섬에 양발을 걸치고  
빨래를 했었다는 이야기 등 섬 전체에 걸쳐 이 거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많  
다.

한편 이 할머니에게 아들 오백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사냥을 나간 사이에 이  
들에게 줄 팔죽을 쑤다가 가마솥에 빠져 죽었다는 영실의 오백장군 전설을 보면  
이 할망에게 남편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설문대하르방에 대한 전설은 지금까지  
별로 알려진 게 없다.

그런데, 성산읍 신양리의 해수욕장 동남쪽, 소위 “섰지코지”라 불리는 곳에는 이  
거인 설문대할망과 설문대하르방에 대한 전설이 있어 흥미를 끈다. 이 섯지코지는  
제주섬에서 동남쪽으로 가장 길게 뻗어나간 만으로 이 코지 끝에는 지금까지 거  
의 원형대로 남아 있어 지방기념물 3-28호로 보존되고 있는 봉수대가 있으며, 일  
제시대에는 일본 군인들이 이곳 붉은 오름에 레이다기지를 만들려다 철수한 흔적  
이 보이기도 한다.

설문대할망과 하르방은 한 때 이곳에서 바닷고기들을 잡아 먹으며 살았는데 원  
체 거인이었던 이들에게 생계를 이어 가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제안을 했다.

“하르방 저 쇠섬 여으로 강 고기를 줘 몰아옵서.”

할아버지가 우도 옆으로 가서 고기를 섯지코지 쪽으로 몰면 섯지코지 쪽 바다  
에 앉았던 할머니가 하문下門으로 그물을 치듯이 예워 잡아 그걸로 생계를 유지

했다고 한다.

<신평리 오문복(50)>

#### 50. 설문대할망

이성준, 「설문대할망 설화연구」, 『국문학보』, 10, 1990. pp. 79-80

핵심화소 : 다리 놓기 실패, 나막신 자국, 산신제

조사일시 : 1988. 11. 16 오후 2시

조사장소 : 조천읍 조천리 3104-7 金壽童 할머니 자택

제보자 : 金壽童 (여 · 79세)

채록자 : 李成俊

#### <조사개황>

설문대할망에 관한 얘기를 채집하기 위해 제주도 일원을 두루 다녔으나 이미 채집된 내용에 비해 특이한 점을 거의 발견치 못했다. 그러던 중 玄容駿 교수님으로부터 이 李原祚의 「耽羅誌」(奇聞篇)에 설문대할망에 대한 기록이 있더라는 귀중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 내용은 “朝天邑 新村里에 설문대할망 발자욱이 남아 있다”는 것이었다. 이 기록 내용이 현재 구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朝天 · 新村里 일대를 사흘간이나 수소문했으나 확인할 길이 없었다. 춥기도 하고 해서 조천 · 신촌 경계지(속칭, 권물)에 있는 친구집으로 찾아갔다. 마침 할머니가 계셔서 인사드리고 살아가는 얘기 끝에 설문대할망에 대해 물었다. 잘 모른다고 하는 걸 부추겨 세웠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젠 잊어부린, 다 잊어부린 잘 몰라. 요샌 그런 말 허지덜도 안 허곡. 건디(그런데) 닛날엔(옛날엔) 그런 말이 이섯쥬(있었지). 설문대할망 이랭헌(이라고 한) 지레(키) 큰 할망이 이섯는디 가달을(다리를) 벌리믄(벌리면) 추자도까지 가는 할망이. 건디 할망 지레가 하도(위낙) 커부난 옷을 못 입영 살았거든. 그래서 제주사람덜암피(제주사람들한테) 옷을 멘들어 드랜. 거믄(그러면) 육지꼬지 드릴 노아주

겠다고. 아, 할망이 옷을 멘드라주민 (필자 : 무신 옷 마썸?) 무신 옷은 무신 옷이라 드라마개 (두루마개)쥬. (필자 : 속옷이 아니고 예?) 그건 요셋사름덜이 멩글어 (만들어) 낸 말이고, 육지까정 드릴 놔주겠다고 했거든. 건디 제웃사람덜이 베 혼필이 부족해놔서 옷을 못 멩글아줬거든. 게난(그러니깐) 놓던 드릴 설러부렸쥬(그만 뒤버렸지). 으기 대섬도 할마님이 드리 놓던 그릇(자취)이고, 영장매<sup>76</sup>)도 그릇이 쥬.

(필자: 옛날 책에 보난 신촌 어디 설문대할망 발자욱이 있덴 행게 그런 말 못 들어봐수파?)

무신 책(필자 : 조선시대 책마썸) 누겐지 몰라도 이시난 써실테쥬. 난 잘몰라. ...으기 대섬 말인가? (필자 : 어디 마썸?) 닛날 그런 말이 이실거라. (있을 걸.) 으기 대섬 들어가는 물통. 그 빌레(바위)에 나막신모냥(처럼) 파정(파져) 싹쥬(있지). 그건 당추 황당헌 소리고. 건디 그걸 할마님 나막신 즈국이랜 해났덴 허난 ..... 막 잇날에.

(필자: 으 대섬 빌레에 파진 웅덩이 말이쥬예?) 응. (필자: 건디 할머니 옛날 산신제도 해나수파?) 해났쥬. (필자 : 거른 산신제에 설문대할망 소리도 이서나수파? 사설중에?) 닛날 해나긴 했는디 몰라. 우리 젊을때까진 불공<sup>77</sup>) 드릴 때 해났쥬. 저굴막(舊左邑 東福里)인가 벨방(舊左邑 下道里) 심방이 그거 잘 해났쥬.

(필자 : 어떤 심방 마썸. 그 심방 이름 알아집네까? ) 그 머시나 김 머시던가, 이 머시던가? 오래부난 잘 몰라. 그 심방이 우리영 산신제(山神祭) 불공 드릴 때 잘해났쥬. (필자 : 그 사설 흐썰도 모르쿠과?) 이젠 몰라. 해난 거 듣기만 했시니까. 건디 백록산신(白鹿山神)이영 오백장군(五百將軍)이영 해나긴 해서.

## 51. 설망도 할망 이야기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11집,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92, p. 224.

핵심화소 : 다리 놓기, 오름만들기

76) 조천읍 조천리와 신흥리 경계 해안가의 돌무더기. 영장매코지라고도 함.

77) 불공이라 했으나 아무래도 불공이 아니고 巫俗祭儀 같음.

이디선 보통 설망도, 뭐 또 설명도 할망이엔 허는디 워낙 키가 크고, 이디 제주 절도(絶島)니까 속곳을 명주로 하나 멘들아 주민 육지 허고 제주 스이에 도리를 놓아 준덴 허니 제주 사름덜이 문딱 애써서 도리를 놓아 보젠, 이신 명주를 다 모양 속곳을 멘들다가 처지 고슴이 모자랑 다 멘들지 못허영 도리를 못놓았다는 말이 이서

아무리 그 때 제주가 멧 사름 안살았지마는 그다서 난 명주를 문딱 가지고도 속곳하나 못 멘들었으니 얼마나 큰 할망이엇는지를 알 수 있주.

그리고 한라산의 흙 하나 그 할망이 삽으로 거러 놓은<sup>78)</sup> 것이 그 어간에 조금 조금 오름이엔 허주

<조사자들 : 웃는다>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오봉남(남, 78세)>

## 52. 설문대할망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학회 외 3곳, 『백록어문』, 10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학회, 1994, pp. 127-128

핵심화소 : 옷감 부족, 오름 만들기, 물장오리

<바매기<sup>79)</sup> 가지깁이 물에 설문대 할망 빠져 죽었던 행계양. 그 말 흐끔 ㄹ라줍서.> 옛날 설문대 할망이 이서났젠. 그 할망이 저 바당(바다)으로 건너 와도 발등도 아이 즈물안<sup>80)</sup> 허난, 맹쥐(명주) 원 동을 아전 소중이를 혀도 처차<sup>81)</sup>가 부족허연 못허연. 이젠 치메자락에 흙 혼 갈래죽<sup>82)</sup>을 싸이전 땡기명, <sup>83)</sup> 이디 강 독독 저디 강 독독 문디려부난,<sup>84)</sup> 그게 문 저 바매기가 되었쟁 허주게. 또 물장우린

78) 떠 놓은

79) 밤약(栗岳)으로 풀이하나, 구름을 뜻하는 일반명사로 사용되기도 함. 선홀리에는 알밤약, 옷밤약이 있다.

80) 잠겨서.

81) 밀떡 옷감

82) 삽

83) 다니면서

84) 흘려 버리니

지<sup>85)</sup>택장우린지 강 나 요디나 디더보민 발등이 즈물크냐 허연, 설문대할망이 양가딜<sup>86)</sup>을 영 허여났젠. 비 오커냐 안 오커냐 하늘을 씨러났젠<sup>87)</sup> 험디다. 하도 커부난. 계난개 맹주 쉰 동이민 거 뗏 필이라. 거 처지도 부족허연 못허영 입엇젠. 경허난 이젠 물장우린지는 아이 디디고, 바매기 꼭지엔 현 동그란 물 이시난, 이디나 나 지레광<sup>88)</sup> ㄱ튼 물이카(물인가) 허연 디디난에 움막 들어가 부런. 장우리에 상 그 물을 보민 보말도 조랑조랑 돌아지곡 가지깁이도 이서듬서, 그 물이 죽을 사름은 보곡 살 사름은 아니 보인덴 허매.

<1992년 7월 24일, 북제주군 조천읍 선흘1리 체보자 자택, 부의함(여, 81세)>

### 53. 설문대할망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학회 외 3곳, 『백록어문』, 11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학회, 1995, pp. 261-262.

핵심화소 : 다리 놓기 실패, 오름 만들기

(조사자 : 저 뱀, 뱀 같은 거 죽이는 거 말고요. 무슨 여우나 다른 것은 어서 마씨?)

그런거는 이 우리 제주도에는 저 한락산이, 에 봉우리가 아흔아홉개 백원 없어. 아흔 아홉 개 백원 없으니까. 뭐 영 골 진<sup>89)</sup> 것도 아흔 아홉. 봉우리도 아흔아홉. 하나 이성<sup>90)</sup> 백 개만 채와시면 왕도 나곡, 범도 나곡, 곰도 나곡. 그 참, 여우같은 거 다 날 건디. 하나 어서부난 봉우리 하나 어서부니까 왕도, 범도, 못 나왔젠.

또 성산 일출봉도 아흔 아홉 봉우리라. 성산 일출봉도 그 설문대 할망이라고 옛날에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에 설문대 할망. 이제 그디 친정 딸이 있어. 그디 성산 이출봉드레 가당 보른 진<sup>91)</sup> 돌이 큰큰헌 돌 우회 또 쪼그만헌 돌 올리는 것이

85) 물장울(水長兀)인지. 地名

86) 다리.

87) 쓸어 냈다고.

88) 키와.

89) 골짜기 진 것도

90) 있어서.

91) 긴.

있어. 막 괴짜하게시리.<sup>92)</sup> 무사 안 가 봐서. 있지이. 우린 성산꺼난<sup>93)</sup> 거기서 설문대 할망이 거기 왔아서, 그 동산에 그 저 그 친정들 위에 앓양, 그디 옛날엔 그 뱀뱀이라고 뱀뱀이도 있곡 그 평, 저 둥근 평 닭은 뱀뱀이도 있고. (조사자 : 뱀뱀이 마씨?) 뱀뱀이 저 옛날엔 그 이젠 그 꽃심호이엔(?) 허멍 막, 경헌 그것 곶양 뱀뱀이랜 허주. 아랜 몽클락하고 입 꼬는꼬는헌 그 병 있잖아게. (조사자 : 아 그 술 담는거. 호리병 닭은 거) 응 응 그거 호리병 닭은 거. 그것 7라 뱀뱀이랜 허주. 뱀뱀이랜 허거든. 경헌디 그것에 허고, 거기 이제 에 저 지름불 싸그넝에 그 할망이 바느질을 허면서 한락산에 혼 착 가달을<sup>94)</sup> 한락산에 그걸 걸치고 질 지어.

이제 그 할망이 저 멩지<sup>95)</sup> 아흔 아홉 봉을 들여서. 아흔 아홉 봉 (조사자 : 멩지요?) 멩지. (조사자 : 멩주?) 멩주 그것이 아흔아홉 봉을 해야야 이제는 펜티여 뭐여 허지만 그때는 속곳이랜 허거든. 속웃. 속웃해영. 그걸 허난 아흔 아홉 봉 들여도 이제 속곳에 이제 허나가 어서. 백 동만 들여시면 그걸 다 채울건디. 경허곡 치매도 아흔아홉동여야 치매를 행 입언그넝 허난 치매에서 저 이제 이 흙을 담안에 저 한락산에서 이래 오멍 그 할망이 툽툽툽툽 흘친게 저 오름이라 허는 거라.

경 행 허곡 그 저 그 성산일출봉도 그건 본디 서나신사<sup>96)</sup> 어떻해신지 그건 말은 안 곤고 이제 그 할망 치매로 흙을 담아그넝에 저 한락산으로 이래 영 툽툽 싸서 오디가네 흘친 게 이제 오름이 됐다.

경허니까 한락산 봉우리도 어 백개만 채와시민 연날에 백개만 그것이 되어서면은 범이나 왕이나 곰이나 뭐, 뭐시나 다 나올건디 백개를 못 채우고 그디 아흔 아홉 골이 서. 저디 한락산에 아흔아홉 골도 있곡. 이제 봉우리도 아흔아홉 개 있고 또 성산 일출봉도 봉우리가 아흔 아홉 개라. 겨난 그런 곰 같은거, 뱀같은 거, 여의 같은 거 그건 일절 없주게.

<1994년 7월 30일. 한동리 상동 1114번지 제보자 자택, 김차옥(여, 71세)>

## 55. 설문대 할망

92) 곧추 서 있는 모양.

93) 성산 것이니. 성산사람이라서.

94) 다리를.

95) 멩주

96) 본래 있어났는지.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14집,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97, p. 204.

핵심화소 : 다리 놓기 실패, 오름만들기

옛날 어떤 할망이 이신디 속곳을 해 주민 소섬과 성산 새에 드릴<sup>97)</sup> 놔주켄 해도 그 할망 속곳을 멩길<sup>98)</sup> 일곱동이를 들여도 부작헨<sup>99)</sup> 드릴 못 났댄 험주.

그 할망이 오름들을 갈래죽<sup>100)</sup> 으로 들렁 데끼명<sup>101)</sup>...... 죽영 데깁건 죽은오름, 하영 데깁건 큰 오름, 소빱 하영 데깁건 한라산이렌 험주.

<하도리, 고만선, 71세>

#### 56. 세명주할망

김순자, 「'설문대할망'과 그 別稱」, 『탐라문화』, 37권 37호, 2010, pp. 297-298

핵심 화소 : 다리 놓기 실패, 솔 놓던 자리, 오름 만들기

제보자 : 경헌디 드리에 그 저 설문대할망이엔 허연 허염젠 헌 말은 들언.

조사자 : 아 드리에서. 아니 거기서 설문대. 드리 저쪽 그 돌박물관?

제보자 : 으. 경헌디 그제 설문대가 아니고, 옛날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을 땀 세명할망, 세명주할망 해낫주게.

조사자 : 세명주할망?

제보자 : 세명주할망. 계난 요디 상당히 신기헌 디가 잇어낫주. 이 질 허젠 허난 이 저 그 돌을 완전히 집 높이 가차운 돌을, 세 덩어린 계난 솟덕엔 허연. 그제 그 할망이 그디서 냄비 앓져난 디엔 허메.

조사자 : 아, 그 동네 이름은 뭐우과? 그 큰 돌 잇어난디.

제보자 : 시덕앗인빱.

---

97) 다리를.

98) 명주를.

99) 부족하여서.

100) 삼.

101) 던지면서.

조사자 : 아 덕이 세 개 앓았던 허영?

제보자 : 그 돌이, 돌도 그냥 그자 귀난 돌도 아니고 둥그러헌 돌이라. 완전 둥그러헌. 둥그러헌 돌이 경 신기헌 그 돌이 춤 유명했주. 그 돌이 셔시민 유명한 돌이주게. 그 할망이 이제이 오름도 멩기멍 흑 혼 갈래죽 거려논게 오름이 경 췌 거다고 헤. 육지허곡 제주허곡 드리를 놓아 줍센 허난 이제 멩지를 아흔아홉 빌을 들연에 이제 현디. 처지헐 게 죽안.

조사자 : 으. 처지는 뭐우과?

제보자 : 처지엔 허민이 속옷이 영 허영근에이 영허영 이것도 큰 것 영허영 오그리게 췌 거주게. 그리민 이거는 베 가는 디가 돼고 이디는 가달이 되는 거라. 영허민 처질 크쟁허게 돼어야 헐 거 아니라. 이제도 속곳은 계속 별므작 들곡 헤 낫주게.

조사자: 별므작?

제보자: 별므작도 들앙 속곳을 멘들아. 옆의는 별므작을 돌아서. 이 속곳을 허당도 이디 처지 이디 헐게 아흔아홉 빌을 들어도, 아흔아홉 동 들어도 처지를 못헤 연 내부난 육지허고 제주허고 드릴 못 낫젠 허민. 게난 할망이 진짜 유명한 할망이주. 머리가 쉬은 대 자간 무신 멧 자고 우린 계속 들어신디. 이거는이 옛날 사름들이 엇어부난 설문대할망이여. 우리는 어린 때부터 들은 게 세멩주할망. 송당에 그디는 시덕앗인빳. 시 덕이 진짜 유명한 돌이 잇어났지. 그 돌이 셔신디 진짜 유명한 거주게. 그 돌이 어디 가불곡 어떻게 부수닥질 헤부러주.

조사자: 거기서 그 세멩주할망이?

제보자: 냄비 앓전 뿔 끓여 먹어났다.

조사자: 아, 시덕앗인빳. 지금도 잇어예?

제보자: 시덕앗인빳은 지금도 잇주. 빳이름이 시덕앗인빳. 그 질허곡 시덕 앓인디가 이 거는 질이민 이만이 허게 시덕을 앓져젓주게. 경현디 그냥질을 늘르젠 허난, 옛날은 질을 늘르젠 허난 시덕앗인빳이 다 들어간. 그런 옛날 전설이 상당히 중요헌 거라.

<2004. 구좌읍 송당리, 허순화(1932)>

57. 설문대 할망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학회 외 3곳, 『백록어문』, 22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학회, 2006, pp. 275-276

핵심화소 : 다리 놓기 실패

속옷을 그 천을 뗏 필을 헤여그네 그 속옷을 해주민 이디왕 저 이 육짓 사이에 다리를 놔 주켄 겐디 한락산 꼭대기 광 그 새에 혼 발짜국이민 영 가달을 티왕 가낫젠 허주게. 경헌디 그 천이 모지렌 옷을 내일 속옷을 못 만들어 드리난 그 할망이 그 일로 저래 다리를 못 놔줬젠 경헌 말이 이서. 설문대 할망이.

<조사자 : 이 그 할망이 그 할망이구나>

그 할망이 그 할망이주~

<조사자 : 게민 그 속옷은 얼마나 들엇길레 경헛우가?>

얼마나 게난 그 속옷이 너미 할망이 커노난 천이 몰라 당혈수가 어서서 너미 커노난 옷을 영 뗏 필을 들여도 그 속옷 하나 만들수가 업엇어. 경허난 당허지 못 허난 속옷을 만들 수가 어시난 그 할망이 속옷을 허여주민 이디서 육짓 사이에 다리를 놔주켄 헤도 그 속옷을 못 만들어 드리나네 그 다리를 안 놔줬젠허주게

<2005년 7월 31일. 신흥1리 마을회관. 유혜옥(여, 1922년생, 개띠)>

58. 설문대 할망 2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학회 외 3곳, 『백록어문』, 22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학회, 2006, pp. 328-329

핵심화소 : 한라산·오름만들기, 속옷 만들기

설문대 할망 이 육지 육짓 할망이라 보렌 육진디 이 제주도에 오름 영아리니 붉은 오름이니 한라산이니 제주도에 오름이 그 설문대 할망이 저 제주 한라산을 만들언

<조사자 : 하하하~ 한라산을 만들언??>

한라산을 만들젠 그 어떠케사 커신디 육지 혼 가달 노코 제주 혼 가달 노코 이



러케 이러케 벌겨사네 삽으로 육짓 흘글 한라산더레 맨들젠 가명 흘글호꿈씩 털어진 것 조금 털어진건 죽은 산 크게 털어진건 큰 산 이러케해서 경행 그 삽으로 그 할망이 한라산을 만들었써.

<조사자 : 아~ 경행 쪼그만 떨어진건 오름뒤편, 겐디 할머니 무사 한라산은 영 세워시민 산처럼 영 생겨야 돼살건디 무사 영 가운데가 영 빠져신가마심?>

그거 겐 그 흙아사당으네 잘락잘락 비우당보른 거 카진디 이실꺼여 나 거깨진 모르고~

<조사자 : 하하하 아이고 막 커신게 거 한라산 만들젠 하믄>

겐디 그 할망이 옷은 속옷을 아흔아홉 필을 들어넨 속옷을 헤노앗져

<조사자 : 어 막 커부난>

응. 아흔아홉필 그건 속옷을 헛젠~

<조사자: 그 멩주 속옷이렌 하지 안습니까?>

이 멩주던 베던 무명이던 그 할머니 속옷은 많이 들엇덴. 아흔아홉 필을 들어야 속옷 하나 헤연 입엇다

<2005년 7월 29일. 제보자 자택. 김갑생(여, 1923년생, 돼지띠)>

#### 59. 설문대 할망 1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학회 외 3곳, 『백록어문』, 22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학회, 2006, pp. 309-311

핵심 화소 : 오백장군, 다리놓기 실패, 물장오리

설문대할망이 아덜 오백 형제라. 오백 형젠디. 설문대할망이 키도 크고 몸집도 크고 험디 제주도 한라산을 삽으로 열두 번 걸어치니깐이 한라산이 뗏다는 거야. 사방오름은 그 할망 나막신 신언 나막신에서 툽툽 터니깐 사방오름이 뗏고 하하하. 그렇게 뗏건디 그 오백형제가 아덜이 되니깐이 식량당허기가 어려운 일이주게. 게난 혼번은 문 도둑질을 내보내서. 너네 문 나강 도둑질을 헤오라고 경 안하민 살 수가 엇다고 살 수 어실테주게. 오백 성젠디.

<조사자 : 오백을 어떻 맥영 살아질거라.>

도둑질을 나간에 동장 등지 동서 썩썩에 사방팔방 땡기다가. 이젠 아버지는 고

만이 생각해보니 도둑질을 헤오민 거 죽이라도 혼 줌씩 줘야할건디 안돼кет다고  
 풀죽을 끓여서, 큰 가마에 오백 형제 먹젠허민 저 머시는 가마사라주지, 풀죽을  
 쭈는디 췌. 아덜덜이 먼저오는냥 그 먹어보니 풀죽 맛이 좋아. 아 맛 좋다 맛 좋  
 다 참. 맨 마 끝에 들어온 녀석이 풀죽을 먹어보니 맛이 좀 하 이상허다 성제가  
 다 풀죽 맛 좋은 줄 아는디. 국 가마로 간 짓는 걸로 짓정보니 뭐 드굴럭허게 걸  
 려. 사람 빠가 이서. 아이고 아버지가 죽 졌다가 이 죽 짓는 것에 그만 헛놀령 그  
 만 죽가마에 빠전 죽은거여. 쟁 또 졌단보니 머리카락이 나오라 아이고 틀림없다  
 고 아이고 틀림없다고 쟁 그때게 아버지 아버지 허멍 막 저 오백형제 막 울어. 게  
 난 영실에 그 오백 장군이 그 설문대할망 아덜 오백형제가 그 울당보니 눈물이  
 얼어붙엉 그만 하하하 눈물이 얼어붙엉 그 오백장군이렌 현 것이여. 오백장군이.  
 쟁 용심나니깐 이 할망이 한라산 꼭대기를 그들그들 흔들어보니 흔들어정. 용심낭  
 으네 이걸 확 빠낸 세와부난 세와부난 산방산이 뻗어. 하하하 산방산이 뻗어.

<조사자 : 한라산 윗봉을 떼영 던져부난?>

어. 쟁 산방산이 뻗어. 쟁 산방산이 되고 이제. 아이고 경해나네 이제 한라산을  
 베개 삼양 누웠 이제 알더래 바당 알더래 발놔뵤 바닷물에 물장구 치는디. 바닷물  
 로 물장구 치는디. 서귀포 이 범환이 범섬이 하나 있어. 그 섬더래. 발을 쭉 뻗은.  
 쟁이네 문열으로 구멍 두 개가 낮어. 그저 췌 모양으로 췌모양으로 그제 설문대  
 할망 발로 밀려부난 터진거지. 하하하. 쟁 누워서 생각해보니 이제 입을 건 엇고  
 제주도민 보고 그렇지 말고 명주 백동만 헤오민 내가 소중행 입어서. 이저 목포까  
 진가 다리를 놓아서 걸영 땡기게 허겄다고 걸영 땡기민 제일 좋겄다고 해서. 아  
 거 명주 백동도 어려운 거라 혼 동이 췌 필인디 췌필인디 혼 필이 스무 자라 혼  
 필이 스무자고 혼동이 췌필이고 백동이니깐 어만씩 허게. 아무리 소중히 헤도. 어  
 느 자락에 부족허연. 부족허기 때문에 다리를 못 낮주게. 못 난 저 조찬이 응장벽  
 흐지렌흔디 혼짜 발노고 신촌이 무슨 빌레머신디 그디 혼짜 발 난에 시작할걸로.  
 흐쓸 표잇게 잇다 잇다허여 발자국이. 쟁 이젠 다리를 못 난 설러불고. 예 이젠  
 목욕이나 허여야겄다고 목욕을 하젠 허난 시외 거 용암못 용두암에 용암못 것도  
 물 깊은 물이라. 그 물에 가난 발 겨우 조무라. 아 이것도 목욕 못허겄다고. 이젠  
 흥리 그 서귀포 우에 흥리. 고향이 어디파?

<조사자 : 저는 제주시 노형>



노형. 아 노형. 성이에 헌디 그 미신거 큰 물인디 그디가니깐 요 정에난 빠기 안와. 아 못 씻겠다고 이젠 저 산에 저 물장어리? 물장어리 큰 물이 잇다고 그디 강 그 물이 창 터진 물이 흐나 이서. 그디강 목욕하젠 들어가니깐 그 할망 그자 움썩 움썩허게 들어강 그 자 들어가분 후에 그추룩한 후에 고작꺼정 안나와. 하하 하

<조사자 : 고작꺼정 안나와. 하하하>

고작꺼정 안나와. 설문 할망 오꽃 죽어비어서게. 죽어빈거라게. 고작꺼정 아니나 오난. 경헌 말이 잇는디

<2005년 7월 29일. 제보자 자택. 김만권(남, 1920년생, 원숭이띠)>

#### 60. 설문대할망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18집,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11, p. 128

핵심화소 : 오름만들기

-설문대 할망에 관련된 설화. 설문대 할망 있잖아요?

“설문대 할망은 뭐 알아져게.”

-아세요?

“옛날에 우리 시부모가 설문대할망 속옴 하나 행 입젠하나 맹질 뭐 선필을 썻덴 해라 선필 산맹드는 것도 샅으로 그자 호나 탁 거려놔그넝 발로 탁허른 오름 되고 이 오름들토 설문대할망이 ……”

-아 금악에 잇는 오름들…….

“아 금악 아니고 다른디 다 선필이 아니고 선동이 들어사 속옴을 행 입엇덴 하난 얼마나 큰 할망인지 경고롭디다. 예 계난 오름도 샅 흙 한갈래 행 탁행 탁밖르른 가운데 파지지 않아수가게, 계난 거막오름은 무사 거막 오름이랜 햐신고 하난 거무 많이 모여지난 거막오름이랜 해나서. 그건 어땡 알말이라.”

<한림읍 금악리, 양경옥(71, 여)>

#### 61. 설문대할망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18집,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11, p. 129

핵심화소 : 물장오리, 거구

-물마다 얽힌 전설같은 건 어수파?

“물마다 얽힌 전설은 한샘이 물에 설문대 할망이 빠져 죽었다. 물이 그렇게 깊었다. 하는 뜻에서 그런말을 농담삼아 말하지만은 물장오리에 설문대 할망이 빠져 죽었다는 말이 있지? 거기는 물장오름 저기 가면은...거기는 이제 설문대 할망이 빠져 죽었다는 전설은 무슨 전설이 있냐면 우리가 듣기로는 설문대 할망이 한라산에서 이제 이래 바닷가 까지 한쪽 오르젠 올라가니까 덜렁자빠지는게 금악오름에 엉덩이가 탁 닿았어 닿으니까 오름이 폭 빠져서 이제 암매(산이 들어갔다)가 되었다고. 올라가봤지? 그디 물량이 고인데, 설문대할망이 폭빠지고 이제 한라산 봉우리 물이 할매가 이제 머리로 탁 치니까 돌이 탁 깨져가지고 물이 탁 들어가니까 그 우물이 한라산으로 발은 어디로 향하나 비양도 비양도로 발을 탁 뻗히니까 비양도가 워낙 높으니까 비양도지 발힘으로 딱 눌러부렀다고, 설문대할망이 얼마나 키가 큰지 모르겠다만은 그만큼 컸다고 설문대할망이 설문대할망이주 상상은 못하는거라이 할망이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그런 전설들을 농담삼아 붙여지는 거고.”

<한림읍 금악리, 양일화(81, 남)>

## 62. 설문대할망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19집,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12, pp. 119-120.

핵심화소 : 치마로 오름만들기, 물장오리

질문자 : 막 설문대할망 이야기 있잖아요. 완전 옛날 이야기요.

양병생 : 설문대할망 이야긴 어떻게 말이광? 하하하하하.

질문자 : 큰 할머니 있었다고 막.

현술생 : 설문대할망이 게 무시하게 할망이 무슨, 허, 원당봉에서 그 저 가던

걸, 저래 빨렁(빨려 들어강) 장우리 해신디.

질문자 : 아 원당봉에 아.

양병생 : 장오림서게. 거게 가달 번청 바다에서 빠래했더멍 골아낫덴.

현술생 : 네 절로단에 한 거. 또 그 오름이 그 설문대할머니가 치메(치마)에 흠을 싸가지고 영 가멍 흐끔씩 흘쳐부난 다 오름이 뒷덴 해.

질문자 : 아, 흘려가지고. 그럼 그 흠은 왜 가져간 거예요?

현술생: 응?

질문자 : 치마에 흠을 왜 가져간 거예요?

현술생 : 치마에 치마에 흠을 쌍 영 들리가멍 쪼금씩 흘쳐불렀지. 다 오름이 뒷다고. 설문대 할머니가.

질문자 : 아, 오름을 만드셨다고요. 아, 그럼 제일 많이 한 거는 그 한라산이 된 거예요?

현술생: 응. 경헌디 경헌디 개중에는 그 할머니가 좀, 좀 커도 장오름물에 물에. 빠져 죽엇덴 안 해시냐? 장오름. 장오리. 장오리 물에 빠져 죽언.

양병생 : 물장오리요? 물장오리. 물장오리. 물장오리. 우물에 빠져 죽엇져 그런 말씀 아니 크냐.

<도련 1동, 양병생(여, 77세), 현술생(여, 80세)>

### 63. 설문대할망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19집,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12, pp. 120-121.

핵심화소 : 족두리, 바둑판의 흔적

양상수 : 저, 오라 가면 족두리도 있을 거야.

질문자 : 족두리요?

양상수: 어, 족두리.

질문자: 족두리는 뭐예요?

양상수: 설문대할머니 족두리 아마 바둑도 뒷난 모양인데 바둑판도 거기 어디.

고중휴: 거 내창에 있다고.

질문자: 내창이요? 바둑돌도 그럼 바둑판이 아니라 바둑돌에?

양상수: 바둑판.

질문자: 바둑판? 바둑판도 있고 족두리는 그러면 돌을 말하는 거예요?

양상수: 어, 돌이 족두리같이 아마 생긴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 설문대할망 쓰던 족두리다.

질문자: 그 뭐 설문대할망이랑 설문대할망이 아들도 있었다 뭐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보셨어요?

양상수: 그건 못 들어보고.

<도련 1동, 양상수(남, 77세), 고중휴(남, 77세)>

#### 64. 설문대할망 설화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20집,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13, pp. 97-98.

핵심화소 : 다리놓기 실패, 오름만들기

질문자 : 그럼 혹시 할아버지 그냥 일반적인 설화들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오백장군이나 아기장군이나 설문대할망 같은 거.

임완송 : 아아, 그 설문대할망이든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에 얘기하는 거 보민 설문대할망이 목포하고 제주시 사이에는 제일 깊은 바다에 들어서도 무릎, 무릎밖에 안 닿는데 그 장우리물에 푹 빠지면 모가지까지 닿는다고 그런 말은 들었었는데. 그 설문대할망 하는 말이 제주도민에게 자기가 입을 옷 한 벌만 해준다면 자기는 목포와 제주 사이에 다리를 놔주겠다고 그렇게 한 디도 불구하고 전도민이 돈을 모여도 그 설문대 할망 옷 한 벌 사줄 돈이 없어서 다리를 못 놔줬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리고 그 설문대 할망이 그 흙을 자기 앞치마에 흙을 잔뜩 집어 놔 가지고 제주도 전역에 흙을 조금씩 조금씩 놓은 것이 그게 제주도 250개의 오름인가 450개 오름인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와흘리, 임완송(남, 82세)>

65. 설문대할망 설화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21집,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14, pp. 97-98.

핵심화소 : 배뇨로 물 만들기.

김만봉 : 설문대 할망은 워낙 크니까 옛날 한라산 백록담에서 애기할만한테가 비양도 발디더서 오줌을 쏘다. 그것이 한라산에 화산 꼭대기의 장에 물이 쏘다. 그것이 한라산에 화산 꼭대기의 장에 물이 쏘다. 설문대 할망이 그렇게 컸다는거라 그래서 오늘노루가 과거로 생각해보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폭발한 끄트머리가 ??? 그러면 또 하나는 비양도라고 하면 여섯이 된거 아니냐 우리는 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설문대 할망이 그렇게 컸던 모양이야. 그 오줌강 식량 그것이 물이 되가지고 이제 먹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는 물이 하도 많다 이거야.

질문자: 그래서 물이 많구나.

김만봉: 다른 외국에는 물이 없어서 물이 금주고 받았다는데, 제주도는 그 설문대 할망이 오줌을 많이 싸부니까. 푸하하그 전설이 있다니까.

<신엄리, 김만봉(남, 83세)>

66. 雪漫頭姑의 傳說

김두봉, 『濟州島實記』, 1936.

핵심화소 : 다리놓기, 거구, 지형만들기

넷적에 한 神女잇스니, 俗稱 설만두할망(本島方言)이라 하고 일훬은 娑麻姑婆라 하니, 그 身長이 거의 하늘에 다을듯하다한대, 손으로 漢拏山을 잡고 바로 滄海의 물결을히롱하며, 土壤을움겨峰을만드니 그爲人이長大함은 可想이라. 恒常 말하여 曰 이 섬 사람이 나를 爲하야 一著衣를 지여주면, 그 報酬로, 내가반다시이섬에서 大陸까지 連橋하야 徒步로 往來케하고 航海하는 困難을 免케하리라하며, 勇氣를

쏟내니 하마하드면다리를 노홀번하엿스나, 애처러운 것은 그 時 島人이 力拙하여 要求한 一着衣를 酬應키 不能하엿슴으로, 다리問題는 마침내 進捗이 못되고 말엇다. 그러나 朝天串이 其是作橋하랴든 痕跡이라한다. 하엿슴으로, 邑東新村岩石上에 巨人의 발자취가 잇스니 俗에 설만두활망 捉跡이라 稱하고 그 外에도 傳會의 說이만타.

# Abstract

MA.(MS.) Thesis

## The mythical characteristics of the Seolmundae Halmang

Kim Hyeon Su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Seolmundae Halmang” is a very familiar story to the residents of Jeju Island and is still widely passed down to them. The story of “Seolmundae Halmang” has much data left related to the geographic features of Jeju-do, which help infer the original status of the story of “Seolmundae Halmang”. The group that had been enjoying the story of “Seolmundae Halmang” deeply pondered over the principle of how the world revolves, and the results of such contemplation appeared in the story of “Seolmundae Halmang”.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call the reasons why “Seolmundae Halmang”, which has a high divinity status and is even passed down widely, does not appear in the shaman myth of Jeju Island and thus why it has happened needs to be identified. This study seeks to shed a new light on the my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Seolmundae Halmang” according to such curiosity.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ory of “Seolmundae Halmang”, this study examined the data on the story of “Seolmundae Halmang” and drew the key mythical elements. By organizing the data on the story of “Seolmundae Halmang” and its common mythical elements and by examining what

meanings such mythical elements carried, this study established a foundation to newly explore the myth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ory of “Seolmundae Halmang”.

This study briefly compared “Seolmundae Halmang” with “Cheonjiwangbonpuri”, another shaman myth in Jeju Island, to examine the story of “Seolmundae Halmang”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ity, and confirmed “Seolmundae Halmang” and “Cheonjiwangbonpuri” had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god. The most notable difference between the stories of “Seolmundae Halmang” and “Cheonjiwangbonpuri” is the existence of priests. While priests are the bridge connecting the world separated by sacredness and mundane in “Cheonjiwangbonpuri”, they are not needed in “Seolmundae Halmang”, which is an important feature. Through this, the study could examine the time differences between the stories of “Seolmundae Halmang” and “Cheonjiwangbonpuri” and infer that both myths belonged to different branches.

This study clearly reveal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ory of “Seolmundae Halmang” through the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the myths considered to have been enjoyed during the similar period in the world. It means that a great goddess and a giant god aspect have gradually become similar to humans along with the stages of the cultural development of humanity, while losing the primitive power it originally had. This study examined that such change is a universal phenomenon worldwide, drew the key characteristics of the giant myth and goddess myth in this era, and revealed that the divinity of this era and the divinity of the future generation change through the myth analysis. In addition, this study showed that such mythology took up part in the cultural history of humanity, and developed a discussion postulating that this era enjoyed the megalithic culture. In the story of “Seolmundae Halmang”, such the megalithic culture creates Hallasan Mountain and oreum

(volcanic cone), because people probably thought about the divinity of “Seolmundae Halmang” and began to revere it while looking at such geographic features.

This study learned that the story of “Seolmundae Halmang” is a different myth from shaman myth, since it is a regular myth enjoyed by the general public while the shaman myth is narrated by priests.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 that such phenomenon is related with the cultural historical changes of humanity.